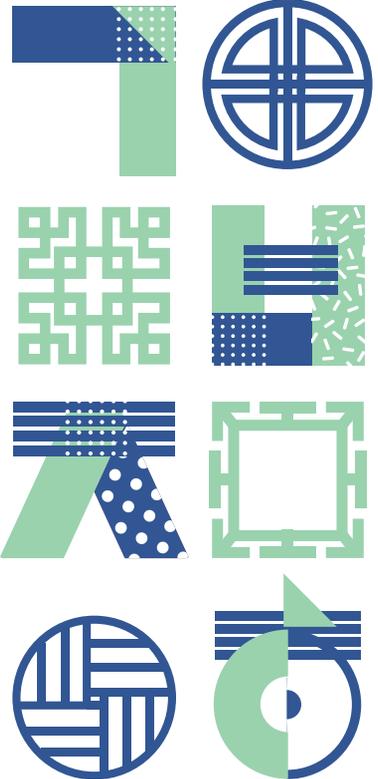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2023



이 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과 그 시행 결과를 수록한 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목 차

제1장 | 국어 정책 개요

1

제1절 국어 정책의 개념과 방향	3
1. 국어 정책의 개념과 내용	3
2. 국어 정책의 흐름과 방향	6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9
1. 국어기본법	9
2. 국어기본법 시행령	14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18
4. 한국수화언어법	20
5.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3
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25
7. 점자법	26
8. 점자법 시행령	29
제3절 주요 국어 정책 기관	32
1. 문화체육관광부	32
2. 국립국어원	35
3. 국립한글박물관	41
4. 세종학당재단	47
5. 국어심의회	54
6. 국어책임관	65
7. 국어문화원	69

제2장 | 국어 사용 현황

73

제1절 공공언어 사용 실태	75
1. 개요	75
2. 공공언어 개선 사례	76

목 차

제2절 국어교육 현황	78
1. 국내 국어교육	78
가.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국어교육 현황	78
나. 대학교 내 국어 관련 전공	81
다. 평생교육 문자 해독 관련 과정	82
2. 국외 국어교육	85
제3절 한국어 교육 현황	86
1. 국내 한국어 교육	86
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86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86
2. 해외 한국어 교육	91
가. 한국어 보급 기관	91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97
제4절 국외 한국어 사용 현황	99
1. 한국어 사용자 수	99
2. 한국어의 위상	100
제5절 국어 관련 민간단체 현황	103
1. 국어 관련 법인	103
2. 국어 관련 학술 활동 지원	106

제3장 | 국어 발전 기본계획

111

제1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13
1. 근거 및 목적	113
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	114
제2절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15
1.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15
2.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117

목 차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19
1.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19
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120
제4절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26
1.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26
2.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127
제5절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32
1.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배경	132
2.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35

제4장 | 2023년 국어 정책 시행 결과

137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정책 기반 조성	139
1.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 기반 구축	139
2. 다양한 언어 현실을 반영한 국어 정책 기반 자료 구축	144
3.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 기능 강화와 언어자원 구축	146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149
1.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언어문화 기반 조성	149
2. 공공언어 종합 평가 및 전문용어 표준화	152
3.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154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157
1.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157
2.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160
3.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164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167
1. 한국어 교육기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167
2.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	170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184

목 차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189
1.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전시 교육 강화	189
2. 한글문화 산업 육성	194
3.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기능 강화	202

제5장 | 2024년 국어 정책 주요 추진 계획

207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정책 기반 조성	209
1.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 기반 구축	209
2. 다양한 언어현실을 반영한 국어 정책 기반자료 구축	211
3.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 기능 강화와 언어자원 구축	212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214
1.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언어문화 기반 조성	214
2. 공공언어 종합 평가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215
3.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216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219
1.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219
2.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224
3.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225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227
1. 한국어 교육 기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227
2.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	228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230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231
1.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전시교육 강화	231
2. 한글문화 산업 육성	232
3.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기능 강화	234

표 목 차

제1장

〈표 1-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의 추진 과제	7
〈표 1-2〉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12
〈표 1-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6
〈표 1-4〉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9
〈표 1-5〉 「한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	22
〈표 1-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24
〈표 1-7〉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25
〈표 1-8〉 「점자법」의 주요 내용	28
〈표 1-9〉 「점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31
〈표 1-10〉 국어정책과 예산	34
〈표 1-11〉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34
〈표 1-12〉 국립국어원 예산	36
〈표 1-13〉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37
〈표 1-14〉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42
〈표 1-15〉 국립한글박물관 과별 주요 업무	42
〈표 1-16〉 세종학당재단 예산	49
〈표 1-17〉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	50
〈표 1-18〉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 현황	51
〈표 1-19〉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56
〈표 1-20〉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57
〈표 1-21〉 국어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	58
〈표 1-22〉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5년 1월~22년 12월)	61
〈표 1-23〉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65
〈표 1-24〉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66
〈표 1-25〉 연도별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	68
〈표 1-26〉 전국 국어문화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70
〈표 1-27〉 국어문화원 연혁	71
〈표 1-28〉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72

제2장

〈표 2-1〉 2023년 공공언어 진단 평가 기준	76
〈표 2-2〉 공공언어 개선 사례	76
〈표 2-3〉 초등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78
〈표 2-4〉 중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79
〈표 2-5〉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80
〈표 2-6〉 국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수(2023년 기준)	81

표 목 차

제2장

〈표 2-7〉 유·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82
〈표 2-8〉 유·초·중등학교 부설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82
〈표 2-9〉 대학(원) 부설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83
〈표 2-10〉 대학(원) 부설 학교급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84
〈표 2-11〉 원격 형태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84
〈표 2-12〉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3년 5월 기준)	85
〈표 2-1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현황(2023년 12월 기준)	86
〈표 2-1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87
〈표 2-15〉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2023년 12월 기준)	87
〈표 2-16〉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2023년 12월 기준)	90
〈표 2-17〉 대륙별 세종학당 운영 현황(2023년 기준)	91
〈표 2-18〉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2023년 4월 기준)	92
〈표 2-19〉 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93
〈표 2-20〉 해외 국가별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2023년 12월 기준)	93
〈표 2-21〉 해외 한국학 강좌 운영 현황(2023년 기준)	94
〈표 2-22〉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합격자 현황	98
〈표 2-23〉 언어별 사용 인구(2023년 기준)	99
〈표 2-24〉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101
〈표 2-25〉 제일 잘하는 언어	101
〈표 2-26〉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101
〈표 2-27〉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102
〈표 2-28〉 국어 관련 법인 현황 및 주요 사업(2023년 12월 기준)	103
〈표 2-29〉 국어 정책 관련 학술행사 지원 내용	106

제3장

〈표 3-1〉 3대 중점 추진 과제	115
〈표 3-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16
〈표 3-3〉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120
〈표 3-4〉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127
〈표 3-5〉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136

표 목 차

제4장

〈표 4-1〉 ‘모두의 말뭉치’ 공개 현황	141
〈표 4-2〉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개요	145
〈표 4-3〉 『우리말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반영 건수	147
〈표 4-4〉 최근 5년간 우리말 꿈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50
〈표 4-5〉 2023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주요 내용(중등)	150
〈표 4-6〉 2022년 전문용어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에서 마련한 표준안(일부)	154
〈표 4-7〉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19년~2023년)	155
〈표 4-8〉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건수(2018년~2023년)	156
〈표 4-9〉 국내 지역어 조사 지점 현황(2004년~2020년, 총 155지점)	161
〈표 4-10〉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163
〈표 4-11〉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탑재 정보	163
〈표 4-12〉 2015년~2022년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165
〈표 4-13〉 북한어 균형 말뭉치 구축 현황	165
〈표 4-1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계획(2021~2025)	169
〈표 4-15〉 세종학당 지정 절차 및 일정	171
〈표 4-16〉 연도별 세종학당 지정 증가율(2023년 기준)	171
〈표 4-17〉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2023년 기준)	172
〈표 4-18〉 국가별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2023년)	173
〈표 4-19〉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인력 현황	181
〈표 4-20〉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현황	181
〈표 4-21〉 한국어 전문가 파견 현지 교원 연수회 개최 내역	187
〈표 4-22〉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 및 관람객 만족도(2016년~2023년)	194
〈표 4-23〉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 〈서울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	195
〈표 4-24〉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 〈어린이 나라〉 연계 지원 학술대회 개최(2023.5.25.)	196
〈표 4-25〉 국립한글박물관 지원 학술대회 개최(2023.7.20.)	197
〈표 4-26〉 국립한글박물관 ‘화요 한글문화강좌’ 운영 내용(2023년)	198
〈표 4-27〉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3년)	199

제5장

〈표 5-1〉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구분	212
〈표 5-2〉 공공분야 외국어 사용 순화 추진 절차도	214
〈표 5-3〉 2024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19
〈표 5-4〉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220
〈표 5-5〉 2024년 점자발전시행계획	222
〈표 5-6〉 한글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변경 사항	233

그림 목 차

제1장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조직도	33
	[그림 1-2] 국립국어원 조직도	36
	[그림 1-3]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41
	[그림 1-4]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49
	[그림 1-5] 재단 한국어 학습 지원 플랫폼	53
제2장	[그림 2-1]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89
	[그림 2-2] 한국어능력시험 연혁	98
제3장	[그림 3-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114
	[그림 3-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19
	[그림 3-3]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26
	[그림 3-4]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35
제4장	[그림 4-1] ‘모두의 말뭉치’ 공개(2023. 12.)	141
	[그림 4-2] 말뭉치 통합 시스템 개념도	142
	[그림 4-3] 2022년, 2023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 포스터	143
	[그림 4-4]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누리집	145
	[그림 4-5] 『침표, 마침표.』	146
	[그림 4-6] 『우리말샘』 개통 당시 수록 규모 및 구성 내용	147
	[그림 4-7]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148
	[그림 4-8]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요’ 캠페인 이미지(네이버 해피빈) ..	149
	[그림 4-9]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교재(초등, 중등)	151
	[그림 4-10] 신문·방송·유튜브를 통한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	151
	[그림 4-11] 접자 종합 정보 누리집 대표 화면	159
	[그림 4-12] 수어 통역 제공 화면	160
	[그림 4-13] ‘까끄라기’에 대한 지역어 지도	164
	[그림 4-14] 한국어교수학습센터	168
	[그림 4-1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170

그림 목 차



제4장

[그림 4-16] 세종학당 한국문화 교육 현장(2023년)	183
[그림 4-17]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183
[그림 4-18] 2023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	184
[그림 4-19]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2023년)	186
[그림 4-20]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2023년)	187
[그림 4-21] 디지털한글박물관	190
[그림 4-22]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2023년)	193
[그림 4-23] 통합수장센터 예상 조감도	194
[그림 4-24] <『한양가』로 그려낸 조선 후기 한양> 학술대회(2023.10.23.)	196
[그림 4-25] 2023년 국제박물관포럼(제1회)	198
[그림 4-26] 화요 한글문화강좌(2023년)	199
[그림 4-27] 2023년 교육프로그램	200
[그림 4-28] 2023년 한글주간	201
[그림 4-29]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경	203
[그림 4-3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수집 자료	204

제5장

[그림 5-1]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218
[그림 5-2] 세대별 언어 차이(신조어 인지도, 지역어 사용 비중)	224



제1장 국어 정책 개요

제1절 국어 정책의 개념과 방향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제3절 주요 국어 정책 기관

제1장 국어 정책 개요

제1절 국어 정책의 개념과 방향

1. 국어 정책의 개념과 내용

말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겨레 정체성의 근간이며, 고유의 말글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발전시키므로 민족문화의 토대가 된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국어란 국민이 쓰는 말을 뜻하며, 순우리말로는 나라말이라고 표기한다. 국어는 우리 문화를 살리는 생명 줄이며,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유일한 도구로서, 그 자체가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할 문화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로의 진입으로 국내외 언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외국어의 유입은 언어의 어휘 자원을 풍부하게 하여 언어 사용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어의 남용과 오용, 축약·변형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표현과 문법을 벗어난 통신매체 등을 통한 언어의 확산은 우리의 국어 사용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국어 생활을 어렵게 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언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문화개선, 쉬운 우리말 쓰기 등 국어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어기본법」상의 내용에 따르면 ‘국어 정책’이란 ‘정부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펼치는 정책’을 말하고, 그 목적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어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국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란 ‘한 국가의 공용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개는 나라마다 하나의 언어를 국어로 삼고 있지만, 스위스나 인도처럼 여러 언어를 국어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물론 영어나 스페인어처럼 여러 나라의 국어로 쓰이는 언어도 있다. 우리는 대다수 한국인의 모어인 ‘한국어’를 ‘국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지만, 때로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어’가 국어였으니 이 시기에 ‘국어’와 ‘조선어(한국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어’와 ‘한국어’는 구분되는 말이다.

우리에게 ‘(한)국어’는 ‘모어’이자 ‘자국어’이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관념이 스며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모어’이고, 한국인 대다수가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국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국어’는 크게 ‘표준어’와 ‘지역어(방언)’로 나눌 수 있다. ‘표준어’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용어로서 규범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어문규범을 통한 관리가 대표적인 표준어 정책이다. 아울러 지역어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으며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에서는 ‘지역어의 보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어’는 공적 영역에서 쓰이는 국어와 사적 영역에서 쓰이는 국어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 영역에 대한 국어 정책은 ‘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롭고 편리한 공적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이다. 국어 순화나 용어

표준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적 영역의 국어 활동은 언어 대중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국어나 비속한 표현 등으로 국어 사용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국어생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어’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한글’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이다. 또한 모든 공문서등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한글의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일은 국어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사실 국어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도 국어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어를 적는 우리의 문자는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점자’도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한국어와는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다. 이 법에서는 엄밀한 언어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와 손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수어를 서로 별개의 언어 체계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좁은 의미의 국어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어를 한국인이 누리는 우리 고유의 언어 체계라 한다면 한국수어는 응당 한국어의 일부, 즉 우리 고유의 의사소통 체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점자법」에 따라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와 한국수어 및 한글과 점자 그 자체를 보존, 발전시키고 이를 사용하는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올바른 국어 정책은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2. 국어 정책의 흐름과 방향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은 국어 순화, 어문규범 정비, 한글 전용 문제 등 언어 대중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상의 언어 처리, 남북 언어 통일 문제, 사전 편찬 등이 새로운 국어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중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국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언어정책에 관한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다.

2005년은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린 해로 평가된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2006년에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수립하였다, 2016년에는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에는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던 일부 정책 기능이 2009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2011. 6. 16. ‘국어정책과’로 변경)로 이관되면서 다시 한번 국어정책 수행 기관에 변화가 따른다. 여기에 더하여 2014년 10월 9일에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함에 따라 국어 정책 수행 기관은 모두 셋으로 늘어났다. 2022년 12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세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1-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의 추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 국어심의회 구성·운영 ○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 ○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지역어 발굴 및 보전 ○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 ○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 한국어 보급 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 ○ 어문 관련 단체 육성·지원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 및 통계 생성·수집 ○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특수 언어에 관한 조사·연구 ○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 ○ 국어·특수 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 ○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 올바른 국어의 보급, 언어 순화 활동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 국어·한국어·특수 언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 관련 기관과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등 ○ 한국어교원·특수 언어 교원 자격 부여 ○ 한국어·특수 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
국립한글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 및 자료 수집·보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람 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 콘텐츠 개발·운영 ○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고증 및 분석 ○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 소장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 ○ 한글 자료 기증자 예우 ○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 한글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 ○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나라 안팎의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면 국내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확산에 따라 전문 영역을 넘어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국어의 사용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심각한 외래어·외국어의 오·남용과 디지털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국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세대교체는 지역어와 민족 문화 생활어를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반대로 나라 밖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 국제적 위상 향상, 한류 등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증가로 언어 집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동 번역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고품질의 말뭉치를 구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일반 국민과 학계에서는 지식의 총체인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의 시행 등과 더불어 언어 취약 계층의 언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인과 시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이나 문해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빠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국어 정책은 이러한 언어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엄정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1.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12. 29.	법률 제8852호(시행 2008. 2. 29.)
일부개정	2008. 13. 28.	법률 제9003호(시행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3. 18.	법률 제9491호(시행 2009. 3. 18.)
일부개정	2011. 14. 14.	법률 제10584호(시행 2011. 4. 14.)
일부개정	2012. 15. 23.	법률 제11424호(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13. 23.	법률 제11690호(시행 2013. 3. 23.)
일부개정	2017. 13. 21.	법률 제14625호(시행 2017. 9. 22.)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589호(시행 2020. 5. 27.)
일부개정	2021. 16. 15.	법률 제18249호(시행 2021. 12. 16.)
일부개정	2022. 11. 18.	법률 제18761호(시행 2022. 1. 18.)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2005. 7. 28. 시행)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기본 이념하에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어 및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우선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어 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어 정책의 수립을 위해 국민의 국어능력과 언어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특수법인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다. 또한 이 법의 제정으로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20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한글 관련 주요 법령이었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국어기본법」이 명실상부한 국가 단위의 국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나. 「국어기본법」 연혁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에 발표된 ‘국어 발전 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에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윤표 연세대 교수)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1월 27일에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었고,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은 제정 이후 총 10차례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제1차 개정안(법률 제8852호, 2008. 2. 29. 시행)과 제6차 개정안(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은 타법(「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3차 개정안(법률 제9491호)은 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다. 제4차 개정안(법률 제10584호, 2011. 4. 14. 시행)은 법제처에서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제2차 개정안(법률 제9003호, 2008. 3. 28. 시행)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고자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검정 전문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을 확대하였다.

제5차 개정안(법률 제11424호, 2012. 5. 23. 시행)에는 한국어 보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7차 개정안(법률 제14625호, 2017. 9. 22. 시행)에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제8차 개정안(법률 제16589호, 2020. 5. 27. 시행)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자격의 취소 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9차 개정안(법률 제18249호, 2021. 12. 16. 시행)에는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하는 기관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추가한 ‘공공기관등’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제10차 개정안(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시행)에는 국어 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누락되어 있던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다. 「국어기본법」의 의의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가는 국어 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는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이고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는 점을 공식화하였고,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공문서에서의 한글 전용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에 관한 조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와 ‘한글’의 정의	제3조	○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8조	○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실태 조사 등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음
국어책임관 지정	제10조	○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함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국어심의회	제13조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둠
공문서 작성·평가	제14조	○ 공문서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해 매년 평가·공개해야 함
국어문화의 확산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국어 정보화 촉진	제1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7조	○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함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 2	○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함
자격취소	제19조의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한글날	제20조	○ 정부는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쓰고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 등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음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12. 29.	대통령령 제20676호(시행 2008. 2. 29.)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시행 2008. 10. 20.)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시행 2011. 6. 15.)
일부개정	2012. 15. 11.	대통령령 제23759호(시행 2012. 5. 1.)
일부개정	2012. 18. 22.	대통령령 제24053호(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11. 16.	대통령령 제24314호(시행 2013. 1. 16.)
일부개정	2013. 13. 23.	대통령령 제24453호(시행 2013. 3. 23.)
일부개정	2014. 17. 16.	대통령령 제25472호(시행 2014. 7. 16.)
일부개정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2호(시행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0호(시행 2015. 11. 30.)
일부개정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9호(시행 2015. 12. 31.)
일부개정	2017. 19. 19.	대통령령 제28306호(시행 2017. 9. 22.)
일부개정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1호(시행 2019. 1. 1.)
일부개정	2021. 11. 15.	대통령령 제31379호(시행 2021. 1. 5.)
일부개정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7호(시행 2021. 12. 16.)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관 및 연혁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3호, 2005. 7. 28. 시행)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 조(전문 19개 조, 부칙 4개 조)를 제정·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제정 이후 모두 15차례 개정이 되었다. 이 가운데 제1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0676호), 제2차(대통령령 제21087호), 제4차(대통령령 제23759호),

제6차(대통령령 제24314호), 제7차(대통령령 제24453호), 제11차(대통령령 제26839호), 제13차 개정 개정안(대통령령 제29421호), 제14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1379호)은 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제3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2539호, 2011. 6. 15. 시행)은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였다. 후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만 한정했던 것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학 등으로부터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적합 여부를 신청받아 그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4053호, 2012. 8. 24. 시행)에서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국어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세종학당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때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제8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5472호, 2014. 7. 16. 시행)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실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9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5872호, 2014. 12. 23. 시행)에서는 ‘세종학당 정책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범위를 변경하였다. 위원은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및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제10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6680호, 2015. 11. 30. 시행)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제12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8306호, 2017. 9. 22. 시행)에서는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를 홍보 담당 부서의 장에서 홍보 또는 국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확대하였고,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5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6. 시행)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을 평가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공문서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의 정신과 제도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실태 조사 등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의 세부 내용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등의 장은 홍보 또는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실적과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함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규범 영향평가의 세부 내용 규정 ○ 어문규범 제·개정 시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국어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국어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국어심의회 아래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함
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 작성 시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음
공문서등의 평가	제11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문서등의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체계화	제12조, 제12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를 거쳐 확정하여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를 고시하고 활용해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13조~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자격 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의 이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함
세종학당정책 협의회 운영 등	제14조의 2~제14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운영, 수익사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한글날 기념행사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발전유공자를 포상하고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음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문화원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국어문화원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시행 2011. 6. 30.)
일부개정	2015. 11.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시행 2015. 11. 30.)
일부개정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시행 2015. 12. 31.)
일부개정	2017. 12.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2호(시행 2017. 12. 12.)

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관 및 연혁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1. 6. 30. 시행)은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9호)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제정 이후 3차례 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제2차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은 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제1차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 2015. 11. 30. 시행)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두었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3차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2호, 2017. 12. 12. 시행)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나.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제2조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여부,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규정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등 고시	제2조의 2	○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등	제3조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심사 시행 30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 제4조의 2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5조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6조	○ 한국어교원 전공 대학(원) 및 양성 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4.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016. 2. 3.	법률 제13978호(시행 2016. 8. 4.)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22호(시행 2020. 12. 22.)
일부개정	2022. 1. 18.	법률 제18783호(시행 2022. 7. 19.)
타법개정	2023. 8. 8.	법률 제19592호(시행 2023. 8. 8.)

가. 「한국수화언어법」 개관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 2016. 8. 4. 시행)은 “한국수화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는 기본 이념하에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이 제1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실적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수어 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수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각 분야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인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농인이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한국수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지원, 한국수어 능력 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규정이 있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나. 「한국수화언어법」 연혁

「한국수화언어법」은 2013년 이예리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다. 2014년 교육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교문위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이상민 의원 발의, 2013.8.20.), 수화기본법안(정우택 의원발의, 2013.10.8.),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진후 의원 발의, 2013.11.26.) 등 유사 법안과의 병합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 12월 7일에는 국회 교문위를,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3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6년 2월 3일에 법률 제13978호로 공포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제정 이후 총 세 차례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안(법률 제17722호, 2020. 12. 22. 시행)에서는 한국수화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을 한국수화언어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하였다.

제2차 개정안(법률 제18783호, 2022. 7. 19. 시행)에서는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수어통역 제공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제3차 개정안(법률 제19592호, 2023. 8. 8. 시행)은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다.

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기본 인권으로서 언어권 및 한국수어의 발전·보전 관련 국가의 책무 등을 제시하고 농인의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한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한국수어’의 정의	제3조	○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임을 밝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7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8조	○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실태 조사 등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음.
한국수어의 연구	제10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한국수어의 교육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	○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함.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하고,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수어통역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민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민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함. ○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한국수어의 날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5.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	2016. 8. 2.	대통령령 제27427호(시행 2016. 8. 4.)
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시행 2021. 1. 5.)
일부개정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3호(시행 2022. 7. 19.)

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개관 및 연혁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4. 시행)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살려서 하위 법령의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부내외 의견 조회,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개 조(전문 13개 조, 부칙 2개 조)를 제정·공포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은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이 되었다. 제1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1379호)에서는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신청 시 실적 요건이 명시되었다.

제2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2773호, 2022. 7. 19. 시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농인 등이 발표 내용을 알 수 있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중요 정책’의 범위를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나.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도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조	○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실태조사	제3조	○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의 내용을 명시함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부여 등	제4조~ 제6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등급에 따른 자격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7조~ 제9조	○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방법, 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응시 수수료 등을 명시함.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0조	○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인적·물적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지정 취소 사유를 명시함.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11조	○ 한국수어능력 검정을 위한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 근거와 검정시험 분야를 명시함.
업무의 위탁	제12조~ 13조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건을 명시함.

분류	조항	주요 내용
		○ 실태조사,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수행을 위한 민간정보 처리의 근거를 둠.

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 2016. 8.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시행 2016. 8. 4.)

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개관 및 연혁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 2016. 8. 4. 시행)은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27호)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나.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 제3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명시함.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등	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심사 시행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함.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6조	○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 대학(원) 및 양성 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7. 점자법

제정	2016. 5. 29.	법률 제14205호(시행 2017. 5. 30.)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68호(시행 2018. 6. 13.)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89호(시행 2020. 12. 8.)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63호(시행 2021. 5. 18.)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89호(시행 2021. 6. 9.)
일부개정	2022. 9. 27.	법률 제18988호(시행 2023. 3. 28.)

가. 「점자법」 개관

「점자법」(법률 제14205호, 2017. 5. 30. 시행)은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어 다음 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이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되 점자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나. 「점자법」 연혁

「점자법」은 2013년 최동익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다. 2015년 교문위 상정, 교문위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6년 5월 10에는 국회 교문위를, 같은 해 5월 17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5월 1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5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6년 5월 30일에 법률 제14205호로 공포되었고, 이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점자법」은 제정 이후 총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제정 법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1차 개정안(법률 제15168호, 2018. 6. 13.)에서는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차 개정안(법률 제17589호, 2020. 12. 8. 시행)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 개정안(법률 제18163호, 2021. 5. 18. 시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를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법률 제17589호, 2021. 6. 9. 시행)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개정안(법률 제18988호, 2023. 3. 28. 시행)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단체를 점자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다. 「점자법」의 주요 내용

「점자법」은 점자가 한글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자임을 밝히고,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점자법」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점자'의 정의	제3조	○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함.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4조	○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공공기관등은 입법·사업·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실태 조사 등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제10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단체 중 점역·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제12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한글 점자의 날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함.
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접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함.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8. 점자법 시행령

제정	2017. 5. 29.	대통령령 제28056호(시행 2017. 5. 30.)
일부개정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5호(시행 2018. 6. 13.)
타법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시행 2019. 7. 9.)
타법개정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3호(시행 2022. 12. 8.)
일부개정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64호(시행 2023. 3. 28.)

가. 「점자법 시행령」 개관 및 연혁

「점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56호, 2017. 5. 30. 시행)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정책과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점자법」 시행령 관련 관계 기관 협의 및 연구를

진행하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2월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점자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부내외 의견 조회,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6개 조(전문 5개 조, 부칙 1개 조)를 제정·공포하였다.

「점자법 시행령」은 제정 이후 네 차례 개정이 되었다. 제1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8955호)은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1516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 서책 등의 지도서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제2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시행)과 제3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8. 시행)은 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다.

제4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3364호, 2023. 3. 28. 시행)에서는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18988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및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나. 주요 내용

「점자법 시행령」은 「점자법」의 제도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 1-9>와 같다.

〈표 1-9〉 「점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실태 조사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조사의 내용을 명시함. -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 -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 - 점자 사용 환경 - 점자교육 - 점자 관련 전문인력 - 점자의 제작 및 보급 등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제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명시함.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의 기준을 명시함. -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 1명 이상 -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민감정보의 처리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제3절 주요 국어 정책 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국어정책과 설립 목적 및 연혁

국어 정책은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문교부에서 담당해 오다가 1990년부터는 문화부(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 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하나로 그 지향점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도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에 따라 문교부(1990. 12. 27. 교육부로 명칭 변경)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에 따라,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로써 국어 정책은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은 문화부 본부의 어문과가 담당하고, 정책 수립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기능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담당하는 체제로 수행해 왔다. 이후 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 어문출판국이 폐지됨에 따라 문화정책국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1997년 3월 20일에는 다시 국어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 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 말과 글의 해외 보급, 우리 말과 글의 정보화·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정책과’에서 ‘국어민족문화과’(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 변경, 2008. 3. 6. 국어민족문화과로 변경)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과 국어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국어정책과’로 변경되었다. 2011년 6월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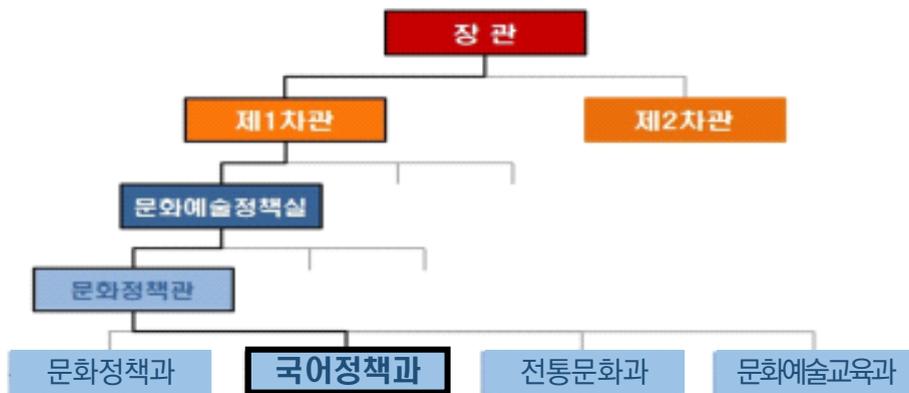
아래 있는 문화예술국의 문화정책관 담당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문화예술국이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정책국 소속이 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문화예술정책실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소속이 되었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며,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나. 조직 및 예산

1) 문화정책관 조직

2023년 12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국어정책과’이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의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소속이다.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조직도

2) 예산

〈표 1-10〉 국어정책과 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	2023	2024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98,113	84,071	88,221	4,150	4.9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지원	195	195	206	11	5.6
합 계	98,308	84,266	88,427	4,161	4.9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국어정책과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1〉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일련 번호	주요 업무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2. 국립국어원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는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1984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안국동 148번지)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연구소의 위상 제고는 1990년도 문화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정원 35명으로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1991년 1월 23일에 문화부 소속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합리적인 국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구 중심 기관에서 정책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국어 정책 및 연구 통합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책 집행 업무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과 연구 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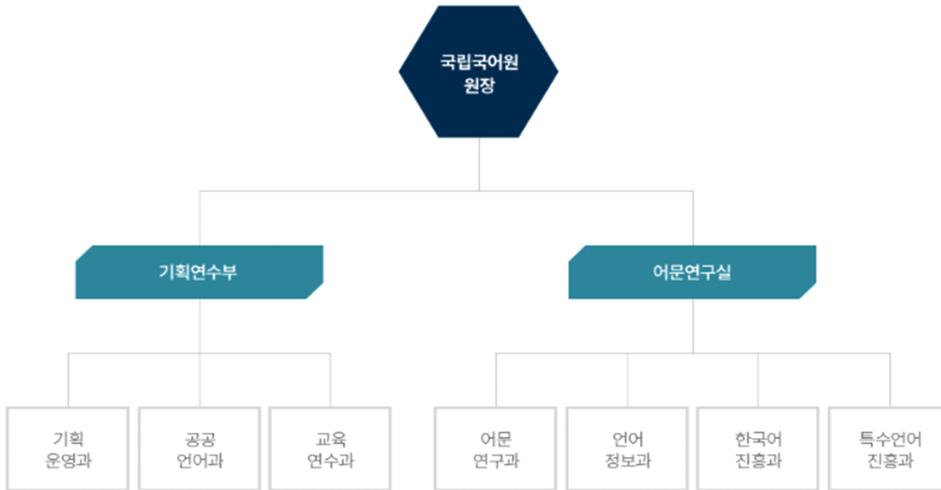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생활에 필요한 어문규정을 관리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자유롭고 편리한 소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고 있다.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국립국어원은 1부(기획연수부), 1실(어문연구실), 7과(기획운영과, 공공언어과, 교육

연수과,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한국어진흥과, 특수언어진흥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53명(연구직 33명)이며 현원은 51명(연구직 32명)이다.



[그림 1-2] 국립국어원 조직도

2) 예산

<표 1-12> 국립국어원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사 업 비	20,157	28,803	29,886	1,083	3.8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1,103	13,581	13,631	50	0.4
○ 국어원 청사관리	1,797	501	551	50	10.0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	1,273	2,186	1,918	△268	△12.3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524	11,881	13,215	1,334	11.2
○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정보화)	1,460	654	571	△83	△12.7
□ 인 건 비	3,863	3,868	3,750	△118	△3.1
□ 기 본 경 비	385	275	300	25	9.1
합 계	24,405	32,946	33,936	990	3.0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068호, 일부개정 2023. 12. 29.) 제36조~제39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3호, 일부개정 2023. 12. 29.) 제24조~제25조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3〉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기획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및 관인 관리 -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감사 관련 업무 -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공언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어문연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연구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국어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부서	주요 업무
언어정보과	-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 -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 진흥과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기관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특수언어 진흥과	- 특수 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특수 언어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 특수 언어에 대한 교육·연수, 교원 자격,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특수 언어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 특수 언어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특수 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특수 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 지원과 한국어 자료 집대성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어·언어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어 정책 및 국어학 분야와 관련된 정책 통계를 생성·수집하여 변화하는 언어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 말과 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문규범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검색 시스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온라인가나다 등의 누리집과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어사전, 각종 외래어 표기 및 로마자 표기 등 언어 자료, 4대 어문규범, 언어 예절 등 국어 관련 자료 제공과 안내 서비스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의 언어문화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말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어 자료를 115만 단어 규모로 수집·관리·제공하여 사용자의 언어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특화 사전 개발 및 문화 콘텐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국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급을 위해 대규모 국어 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국민의 언어생활과 직결된 공공언어 지원 체계 구축

국민이 공문서 등에 사용된 공공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 감수와 평가, 전문용어 표준화, 공공용어 번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등 공문서가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고, 법령문, 안내문,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수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서식과 문서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언어 개선 지원 시스템에서 공공언어 감수를 지원하고, 다듬은 말과 공공용어 번역 정보, 표준 전문용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 혼선 방지와 대국민 소통 기능 향상을 위해 각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낯설고 어려운 외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서 언어의 표현·표기 감수 지원, 원활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연구,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용어 번역 표준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식지인 『쉽표, 마침표』와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어에 관한 다양한 교양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는 어문규범, 언어 교양 등 국민의 국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 종합과정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어의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지식 습득 또는 특정 직군 등을 위한 맞춤형 ‘기획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 강사를 현지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스스로 국어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4)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국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학습자 맞춤형 구축’ 등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민자·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 및 재외동포,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외국인 등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국내외 한국어 교수학습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과 이를 11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로 번역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운영하고 있다.

5) 그 밖의 국민 언어생활 지원 서비스

언어 취약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 규정 정비, 온라인 점자 학습 콘텐츠 개발, 점자 표기 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 언어권 보장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수어사전 편찬, 한국수어 맞춤형 구축,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어 어문규정을 비롯하여 언어생활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 상담(가나다 전화, 1599-9979)’과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실(온라인 가나다)’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국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국민의 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맞춰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3. 국립한글박물관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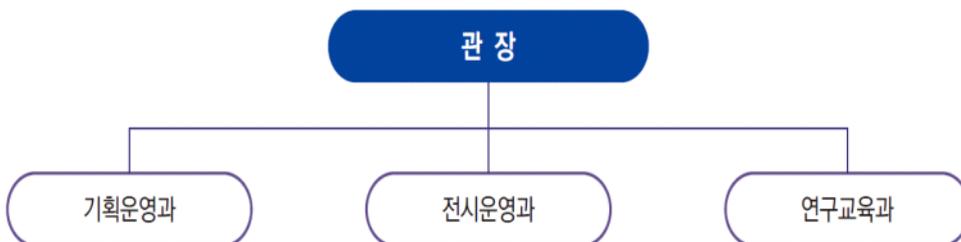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글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2009년 12월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 9일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에 총면적 11,322㎡ 규모의 ‘국립한글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보존·확산·재창조하는 것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훈민정음』으로 펼쳐 낸 한글의 역사를 통해 한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파하는 상설전시실, 한글문화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실험하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들이 한글의 원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한글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한글 자료를 조사·수집·보존·전산화하는 한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창조하여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문화 사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국립한글박물관은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 3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43명(연구직 21명)이다.



[그림 1-3]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2) 예산

〈표 1-14〉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사 업 비	12,711	12,878	17,879	5,001	38.8
○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5,216	5,476	11,455	5,979	109.2
○ 한글박물관 전시	2,001	2,010	1,854	△156	△7.8
○ 한글문화 연구·교육	1,422	1,404	1,204	△200	△14.2
○ 한글문화자원 확충	4,072	3,988	3,366	△622	△15.6
□ 인 건 비	2,917	3,060	3,070	10	4.9
합 계	15,628	15,938	20,949	5,011	31.4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타법개정 2024. 5. 14.) 제67조의 6~제67조의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타법개정 2024. 5. 17.) 제40조의 4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5〉 국립한글박물관 과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기획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조직·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국회·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보안 및 관인 관리 -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 박물관 문화사업 기획·운영 -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	주요 업무
전시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및 자료 수집·보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상설·기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관람 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 콘텐츠 개발·운영 -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 소장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소장 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한글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연구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고증 및 분석 -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 학술·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보급 -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 한글문화 자원의 조사, 수집, 보존, 관리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창제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글 및 한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시·연구·교육 사업을 통해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공유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훈민정음 창제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88,304점의 한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보물 11점, 등록문화재 17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8점, 서울시 등록문화재 220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목록 126점 등 총 382점의 한글 관련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말모이 원고』와 「훈맹정음」 등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자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문화재들이다. 「훈맹정음」은 박두성(1888~1963) 선생이 창안한 국내 최초의 6점식 점자로, 일제강점기에 시각장애인들이 한글과 같은

원리를 통해 점자를 익히도록 한 것이다. 국문으로 발간된 「경향신문」(1906~1910년)은 한일합병 조약 이후 폐간되기 전까지 국민계몽과 국문 대중화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이 외에도 『선종영가집언해』(간경도감본), 『범망경』(고려시대 구결본), 『천지명양수륙잡문』(인경목활자본) 등 국가지정문화재급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수집한 한글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한글문화자원 포털 ‘디지털한글박물관’이 대국민 창구로서 소장 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3,961점)와 한글문화인물 구술 채록 자료(58명, 181시간), 각종 박물관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상태 조사 및 훼손도 등급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온습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 유해 생물 관리(IPM), 훈증 처리 등을 실시하여 예방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훼손된 자료의 경우 과학적 보존 처리를 실시하여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한글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류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사업과 학습용 자료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014년 이래 훈민정음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및 훈민정음 관련 주변 문자 연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관련 보고서 24종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에서 『훈민정음 해설서』, 『쉽게 읽는 훈민정음』, 『초등학생용 멀티미디어 훈민정음 해설서 및 지도안 개발』 등 대중서는 별도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등 기본 지식을 담은 『알기 쉬운 훈민정음』을 국문판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12종의 언어로 제작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해 오고 있다. 한글 자체의 연구도 꾸준히 추진하여 『한글문화지식사전 편찬』 등 지금까지 13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한글문화의 국내외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자언어 및 박물관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장자료를 선별하여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내외 학계 및 대국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장자료 총서』도 연간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한편, ‘전시토대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획전시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기초조사를 자체 진행하여 전시 업무와의 선순환적 성과를 도모해 왔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여 글꼴 연구와 산업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왔다. 한글 폰트 검색과 자동 검사 기능을 제공하는 <한글꼴큰사전>을 2018년에 공개하여 운영 중이며, 옛문헌의 한글 글꼴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옛글꼴누리>를 2022년부터 <한글꼴큰사전>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3) 한글문화를 토대로 한 전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와 다양한 한글문화를 국내외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상설전시와 연간 2~3회의 기획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2022년 1월 21일 개관 8년 차를 맞아 전면 개편하였다. 상설전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계획'은 전시실 전체가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한글의 뿌리인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한글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세종이 직접 쓴 『훈민정음』서문의 글귀를 통시적으로 재해석하여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1부)', '내 이를 딱하게 여겨(2부)', '스물 여덟 자를 만드니(3부)', '쉽게 익혀(4부)', '사람마다(5부)', '날로 씀에(6부)',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7부)' 등 총 7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전시장 내에는 4면 실감 영상, 체험 영상, 인터랙티브북(글자와 그림이 움직이는 책), 투명디스플레이 연출 영상 등을 설치하여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다양한 체험 콘텐츠는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물을 보다 흥미롭게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기획 특별전시는 '한글 문화사', '박물관 소장품', '한글실험프로젝트(한글 디자인)' 3가지 분야로 특성화하여 한글과 한글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잡지 『어린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한 <어린이 나라>, 조선 후기의 삶과 문화를 우리말글로 담아낸 한글 가사 『한양가』의 가치를 조명한 <서울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를 진행하였다.

국내외 순회전으로 <파란마음 하얀마음, 어린이 노래>를 군산 예술의전당과 세종 박연문화관에서 개최하고, <어린이 나라>를 하동 문화예술회관과 창원 역사민속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글실험프로젝트 국외 순회전을 유럽 3개국과 아시아 3개국에서 선보여 한글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4)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한글문화 교육

국립한글박물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글문화의 국내외 확산과 공유를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이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시국 종식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현장 방문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대면 교육 운영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2020년 이후 시작된 비대면 실시간 원격 교육 운영 역시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년간의 인지도 확산으로 인해 지속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영상 및 교구재)를 배포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소통 교육을 실현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온라인 스튜디오 공간 조성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면·비대면 전환이 가능한 교육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 19 확산 이전 대비 국내 교육 참여 인원수가 증가한 점은 한글문화 가치 향유의 기회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글을 배우는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및 원격 교육, 교육 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문화 체험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특히 해외 소재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에 한글문화 체험 교육과 교육자료를 지원하여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외에도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특수학급(시각, 청각 등 신경다양성 장애 초중고 학생) 대상 한글 모양 창작활동 교육 및 강사와 함께 하는 박물관 상설전시실 탐방으로 더욱 풍족한 한글문화 누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023년에는 다양한 대면·비대면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총 27종, 424회 운영하였으며, 총 41,99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5)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하는 문화 서비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민들이 친근하게 자주 찾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매년 한글을 기념하는 주요 기념일인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과 한글날(10월 9일)이 있는 주간은 한글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집중 행사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문화 공연, 체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월 한글을 소재로 하는 공연부터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한글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전시·교육·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대내·외에 꾸준히 알리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체계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2014년 개관 이후부터 프랑스 리옹인쇄박물관,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등 해외기관과 경북문화재단과 김해시한글박물관과 같은 국내기관 및 재단 등 22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순회전, 학술행사 등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산하에 국제문화언어위원회(가칭) 설립을 목표로 세계의 문자언어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인사와의 학술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문자언어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박물관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장인경 ICOM 부회장, 조난단 워드 ICOM 국제정보과학위원회(CIDOC) 부위원장 외 문자와 언어 관련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적극적인 학술 및 인적교류의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헝가리 모메대학교 총장 및 민족학박물관 관장, 태국 문화보 기초예술국장,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대사 등 각국의 주요 관계 인사가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해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4. 세종학당재단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관리하는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9년 7개 부처 합동으로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세종학당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5월 23일에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아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2. 8. 22.)되어 시행령 제14조의 2(세종학당정책 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 3(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 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가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세종학당재단 임원 임명식 및 창립총회가 2012년 10월 11일에 열렸으며,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24일에 공식 출범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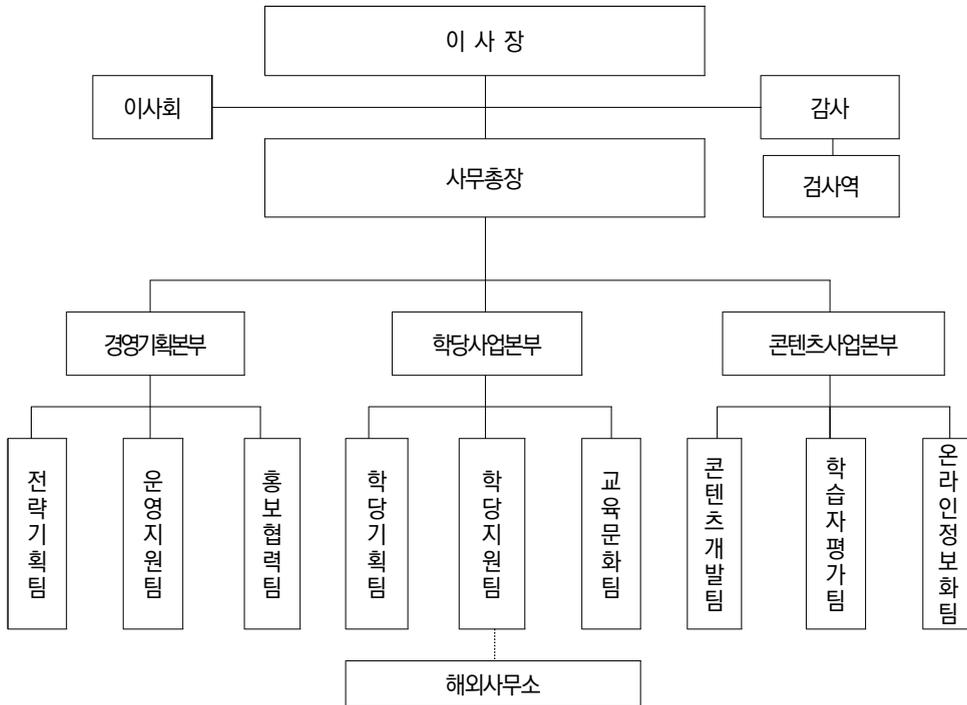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세종학당재단은 경영기획본부(전략기획팀, 운영지원팀, 홍보협력팀), 학당사업본부(학당기획팀, 학당지원팀, 교육문화팀), 콘텐츠사업본부(콘텐츠개발팀, 학습자평가팀, 온라인정보화팀), 감사역의 3본부 9팀 1감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현재 정원은 47명(무기계약 한국어교원 및 직원 55명 별도)이다.

1) 2012년 10월 17일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해산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 관계를 세종학당재단이 승계하였다.[법적 근거: 「국어기본법」(법률 제 11424호, 2012. 5. 23. 일부개정)의 부칙 제2조(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1년 한국어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 법인인데, 그동안 한국어 학습용 교재 개발·보급, 한국어 교육능력 인증시험(2002년~2004년) 시행,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2005년 제1회~2007년 제3회) 위탁 시행, 한국어 학습자용 포털사이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1-4]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2) 예산

〈표 1-16〉 세종학당재단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세종학당 운영 지원	39,618	42,471	48,715	6,244	14.7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내실화	14,231	16,100	16,534	434	2.7
○ 세종학당 교원 전문성 강화	13,443	14,150	17,078	2,928	20.7
○ 세종학당 문화교류 활성화	2,671	2,671	3,876	1,205	45.1
○ 세종학당 학습 지원 강화	9,273	9,550	11,227	1,677	17.6
□ 세종학당재단 운영 지원	5,221	5,383	5,466	83	1.5
□ 국외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	8,251	8,251	6,751	△1,500	-18
○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지원	1,261	1,261	1,261	0	0
○ 한국어교원 현지화 지원	5,390	5,390	5,390	0	0
○ 세종학당 통번역 과정 운영	1,600	1,600	100	△1,500	-93.8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1,100	1,100	840	△260	-23.6
합 계	54,190	57,205	61,772	4,567	8

다. 주요 사업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17〉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

기관	주요 업무
세종학당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세종학당 지원 및 운영 역량 강화

세종학당재단은 국내·외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제공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85개국 248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현지 대학 등에 개설된 일반 세종학당이 184개소, 재외 한국문화원에 개설된 세종학당이 33개소,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인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 세종학당 어디서나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기본 교육과정의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를 비롯하여,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구『세종한국어 회화』), 『세종학당 한국어』(구『사이버 한국어』), 『세종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재들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기본 교재를 기반으로 언어권별로 번역본과 익힘책, 문화 교구 등 보조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진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통번역』, 『농업/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등 특수 목적용 교재도 함께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문화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문화 분야별

전문가를 국내 또는 국외 현지에서 초빙하여 이론과 실습을 동시 제공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23개국 52개 세종학당에서 26,743명이 사물놀이, 한복, K-뷰티, 한글 멋글씨 쓰기 등을 배웠다.

이와 함께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을 통해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예선을 개최하여 우수학습자를 선발하고, 매년 10월 한글 주간에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문화 연수 체험과 대회 결선을 위한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66개국 149개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 168명을 국내에 초청하였으며, 대회 분야별 결선 입상자들에게 국내 대학 어학연수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우수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켰다.

아울러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종학당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세종학당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 평가를 시행하는 등 학당 운영 내실화와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전문성 강화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전 세계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표 1-18〉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파견 인원	24명	39명	50명	90명	119명	125명	140명	180명	232명	270명	265명
파견 기관	15개국 22개소	17개국 32개소	22개국 36개소	31개국 65개소	35개국 75개소	40개국 79개소	41개국 83개소	52개국 103개소	58개국 117개소	59개국 125개소	63개국 131개소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어·한국문화 교수법 관련 전문 연수와 교원 간 협력망 구축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8.7.~8.10.)는 개정판 한국어 교재 활용 방법에 대한 실무연수와 전통 자개 공예, 한식 체험 등 한국문화 교수법에 관한 연수를 함께 제공하였다. 국내외 한국어교원 및 관계자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교원을 위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일자별 대회 영상은 누적 조회수 기준 1만 1,849회를 기록하였다.

또한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교원 재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국내 사이버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현지교원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학위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2023년 2학기까지 3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2023년 298명의 한국어교원을 현지에서 양성하였다.

3) 세종학당 학습자 지원 다각화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수요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구『세종한국어 회화』),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한국문화』, 해외 한국 기업 취업 목적 학습자를 위한 『바로 배워 바로 쓰는 비즈니스 한국어』, 다양한 일상 및 전문 주제로 한국어 통번역을 실습할 수 있는 『세종통번역』, 한국 여행자를 위한 『여행한국어』 등을 개발하였다.

2023년에는 중고급 수준, 특수 목적 교육과정(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여 세종학당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교재 ‘세종학당 한국어5A~6B’를 개발하였다. 이는 2020년 개발한 『세종학당 한국어』(구『사이버 한국어』)의 고급 과정으로, 기존 초·중급 중심이었던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고급 과정 교재를 추가 개발하여 입문부터 고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한국어 학습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초 한국어 학습자료인 『농업/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교재를 6개 언어(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러시아어)로 다국어화하여 개발하고, 『세종통번역』 교재를 4개 언어(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로 추가 개발하여 총 16개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완성하였다. 12개 언어로 개발된 세종학당 통번역과정 교재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학습 참여자의 91.07%가 만족하여 개발한 교재에 대한 현지 호응도를 확인하였다.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종학당재단은 '22년에 구축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23년부터 정식 운영하였고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23년 정식 운영을 시작한 메타버스 세종학당(zep.us/@ksif)은 연 75,869명이 이용하여 실감형 온라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에 기여하였다. 한국어 말하기 도우미 배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주제 특강 등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상시 한국어 소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어 교육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한국어 정규 수업을 운영하여, 91개 교육과정에서 1,530명의 수강생이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23년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은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신설, 강의 언어를 16개 언어로 확대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 개선을 통해 '23년에 88,332명의 온라인 수강생이 학습하여 '22년 대비 44%가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을 통해 해외무역관 현지 직원 대상의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상시 학습을 위해 기존의 수준, 영역별 개별 앱을 세종학당 통합 학습 앱으로 개발하여 한 개의 앱에서 초·중급, 어휘·문법·회화 학습 모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 스마트러닝 체계를 개편한 통합앱 '손안의 세종학당'을 개발하였고, '24년 5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 교원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을 통해 세종학당재단이 개발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자료(교재, 수업 보조자료 등)와 한국문화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그림 1-5] 재단 한국어 학습 지원 플랫폼

5. 국어심의회

가. 개관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법정 위원회이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국어·언어·국어교육 또는 한국어 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국어학·언어학·국어교육 또는 한국어 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언론·방송·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연혁

국어심의회는 1953년 3월 문교부령 제31호에 따라 처음 구성되었는데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실질적인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대통령령 제1977호(1964. 11. 10.)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

1990년에 국어 정책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심의회 운영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어심의회는 심의 역할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국어심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국어심의회 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7월 27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5개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어순화분과로 통합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는 삭제되고,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의 근거 법령도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국어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회의의 의결·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4. 5. 16.)하여 국립국어원의 직제 개편에 따라 전체위원회 간사를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이 맡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과장(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연구과장(어문규범분과위원회), 공공언어과장(국어순화분과위원회)이 맡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행정기관 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강화를 위하여 국어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서 작성 및 신규 위촉 위원의 직무 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어심의회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6. 7. 11.)하였다.

2017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 및 의결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록 서식을 개정하고 의결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7. 10. 31.)하였다.

2021년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위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명시하고, 간사의 직위 등급을 정비하며,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21. 11. 10.)하였다.

국어심의회 설치를 규정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1-19〉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19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1964년	「국어심의회규정」 제정 - 문교부 장관 자문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1976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1995년	「국어심의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14727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법률 제4883호
1995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정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1998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관광부훈령 제28호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분과 구성 변경	법률 제7368호
2009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2014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31호
2016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93호
2017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8호
2021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3호

다. 기능 및 역할

국어심의회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와 연구 기능을 이관하고 심의만 전담하게 된 1991년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과의 구성이 변경된 2005년에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이 두 시점을 중심으로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0〉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1991년 이전	문교부장관 자문 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1991년 ~ 2005년	문화체육부장관 자문 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2006년 ~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전체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2014년 5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전체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 * 전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사 분리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국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어심의회의 기능은 심의 사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나뉘어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5개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통합되었다. 이전의 분과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지금의 분과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에 따라 설정되어 차이가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에 나오는 분과별 심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1〉 국어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 전문소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 밑에 두어 전문성을 살리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심의회의 운영 방법 및 운영 실적

1) 심의회의 운영 방법

국어심의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국어기본법」 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어·언어·언어교육 또는 한국어 교육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의 장, 또는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

국어심의회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어문규범 제정·개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국어심의회는 1958년에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 1968년에 ‘인명·지명·숫자 표기법’, 1969년 11월에 ‘기관명의 준말 작성법’, 같은 해 12월 ‘외래어 한글 표기법’ 등을 심의했다. 1970년에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 1979년에 ‘어문 관계 표기법 개정안’(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 표기법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을 심의하였다. 1976년부터는 순화 대상 용어를 심의하여 국어 순화에 힘썼다. 1985년 12월에는 「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 새로 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을 심의·확정하였다.

국어심의회는 대표적인 실적으로 1988년 1월에 고시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심의를 들 수 있다. 1988년의 어문규범 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8월 학술원안, 1987년 4월 국어연구소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1988년 어문규정 개정 이후에도 ‘표준어 모음 제2집’(1990. 7.), ‘표준화법, 두음 표기, 아래아 표기’(1992. 10.), ‘국악 관련 용어 표준(안)’(1994. 9.), ‘한글맞춤법 일부 조항’(1994. 12.), ‘외래어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 여부’(1991. 5.), ‘외래어표기법 개정 및 국어의 로마자표기법’(1992. 4.), ‘북구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법’(1995. 1.),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안’(1996. 3.),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안’(1997. 6.), ‘한국 접자 규정안’(1997. 11.), ‘표준어 추가 사정안’(2011. 11. 39항목, 2014. 8. 13항목, 2015. 3. 2항목, 2015. 11. 9항목, 2016. 11. 6항목, 2017. 12. 5항목, 2020. 9. 1항목, 2021.12. 1항목), ‘문장부호 규정 개정안’(2014. 8.), ‘국어사전과의 기술 내용 통일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어문규정 개정안’(2016. 11.) 등을 심의하였다.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용어 순화안’(1990. 7.), ‘일본어 투 표현 순화 자료’(1991. 6./1991. 7.), ‘건설용어, 미술용어’(1992. 2.~5.), ‘글자체 용어’(1992. 10.), ‘식생활용어’(1992. 11.), ‘행정용어, 신문·인쇄용어’(1992. 12.), ‘생활 외래

어·전산기 기본 용어·행정용어·선거용어·정치용어’ (1993. 12.), ‘임업·봉제용어’ (1994. 9.~12.), ‘일본어 투 생활용어’(1995. 7.~8.), ‘행정용어 및 건설·미술·식생활·신문제작용어 사용 구분 표시’(1995. 12.), ‘임업용어’(1996. 11.~12.), ‘일본어 투 생활용어’(1997. 6.),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1997. 12.), ‘의류용어 순화안’(1999. 8.), ‘문화재용어 순화안’(2000. 11.), ‘언론 외래어 용어 및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2000. 12.),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2001. 7.), ‘농업용어, 철도용어, 언론 외래어 용어 순화안’(2001. 11.), ‘언론 외래어 용어 순화안’(2001. 12.), ‘연극·영화용어 순화안’ (2002. 12.), ‘영화용어 순화안’(2003. 10.), ‘언론 외국어 및 외래어 순화안’(2003. 11.), ‘행정용어 순화어’(2012. 4./2012. 12.),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안(2013. 2.~2014. 3.), ‘외교부 유엔 관련 전문용어 표준안’(2014. 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2015. 3.),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2016. 11.),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2017. 12.), ‘가스, 고층 민원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2018. 12.),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안’(2021. 4.),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 표준안’(2021. 4.),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 표준안’(2022.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공공행정 분야, 해양경찰청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소방청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2022. 12.), ‘병무청 국방 분야, 산림청 농림 분야, 농촌진흥청 농림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2023. 6.),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전문용어 표준안’(2023. 12.) 등의 심의를 수행하였다.

「국어기본법」에는 국어심의회의 기능에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심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어심의회는 2011년 12월에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2016)’을, 2016년 11월에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2021)’ 및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2021년 12월에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하였다.

2013년에는 문장부호 개정안,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등을 위해 국어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2014년에는 표준어 추가 사정안, 외래어표기법 및 로마자표기법 용례 오류 수정안, 외교부 유엔 관련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등을 위해 국어심의회가 7회 개최되었다. 2015년 1월~2022년 12월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1-22〉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5년 1월~'22년 12월)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국어심의회	(2015년 3월 20일) ○ 2015년 국어 정책 추진 방향, 어문규범분과/국어순화분과 결과 보고, 표준어 추가 사정 계획,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일부 개정 계획, 기타 어문규범 개선 계획 등 보고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15년 11월 25일)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15년 사업 성과 보고, 어문규범분과 회의 결과 보고	○ 서정목 위원장, 채완 부위원장 선출, 2015년 사업 성과 보고, 어문규범분과 회의 결과 이견 없음
	(2016년 11월 30일) ○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결과 이견 없음. 국어순화분과에서 의결한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고시 대상 33건 중 재심 필요 대상 1건 확정
	(2017년 12월 10일)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2018년 국어 정책 추진 방향 보고	○ 서정목 위원장, 채완 부위원장 선출, 분과회의 결과 이견 없음
	(2018년 12월 18일) ○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19년 12월 16일)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2020년 국어 정책 추진 방향·국어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보고	○ 박창원 위원장, 구현정 부위원장 선출,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20년 11월 27일~12월 4일/서면심의) ○ 분과회의 결과보고, 2020 세계한국어대회 추진계획 보고, 2021 국어 정책 추진계획 보고 등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회의 결과보고 등	○ 구현정 위원장, 이정애 부위원장 선출,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22년 12월 20일) ○ 분과회의 결과보고 등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23년 12월 20일)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 분과회의 결과보고 등	○ 김주원 위원장, 양명희 부위원장 선출, 보고 안건 이견 없음.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언어정책 분과위원회	(2015년 11월 25일) ○ 분과위원장 선출, 언어정책분과 소관 업무 보고	○ 이삼형 위원장 선출
	(2016년 11월 30일) ○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안),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2017년 12월 10일) ○ 분과위원장 선출, 대규모 말뭉치 구축 계획 보고	○ 이삼형 위원장 선출
	(2018년 12월 18일) ○ 지역어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 보고	○ 보고 및 의견 청취
	(2019년 12월 16일) ○ 분과위원장 선출, 언어정책분과 운영 방향 논의	○ 이찬규 위원장 선출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분과위원장 선출, 제4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안) 심의	○ 이정애 위원장 선출
	(2022년 12월 20일) ○ 2023년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 보고	○ 보고 및 의견 청취
	(2023년 12월 20일) ○ 분과위원장 선출, 한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2023~2027) 보고	○ 양명희 분과위원장 선출, 보고 및 의견 청취
어문규범 분과위원회	(2015년 3월 20일)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외래어표기법 개정 관련 민원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의결, 외래어 표기법 개정 관련 민원 불수용 의결
	(2015년 11월 25일) ○ 분과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	○ 채완 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의결
	(2016년 11월 30일)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어문규범 수정안, 외래어표기법 일부 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2017년 12월 10일) ○ 분과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	○ 채완 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의결
	(2018년 12월 18일) ○ '그러다'류의 불규칙 활용 인정 건 심의	○ 충분한 연구와 논의 후 재상정 하기로 함
	(2019년 12월 16일) ○ 분과위원장 선출, 어문규범분과 운영 방향 논의	○ 구현정 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2020년 9월 14일~9월 25일/서면심의) ○ 보조사 '이요' 인정 건 심의	○ 보조사 '이요' 인정 결정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분과위원장 선출, 복합어 '팔앙금'의 표준성 인정 건 심의	○ 구현정 위원장 선출 ○ '팔앙금'을 표준어로 인정
	(2022년 12월 20일) ○ 영어 'R(r)'의 한글 표기 '아르/알' 복수 인정 건 심의, 사이시옷 표기 정책 개선 추진 계획 보고	○ 영어 'R(r)'의 한글 표기로 '아르/알' 복수 인정 결정 ○ 보고 및 의견 청취
	(2023년 12월 20일) ○ 분과위원장 선출, 「표준국어대사전」개편 현황 및 계획 보고	○ 유현경 분과위원장 선출, 보고 및 의견 청취
국어순화 분과 위원회	(2015년 3월 20일)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용어 전문용어 표준화 94건 심의	○ 산자부 전력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요청 대상 94건 중, 고시 대상 92건, 고시 제외 대상 2건으로 심의 확정
	(2015년 11월 25일) ○ 분과위원장 선출, 국어순화분과 소관 업무 보고	○ 서정목 위원장 선출
	(2016년 11월 30일) ○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36건 심의	○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36건 중 고시 대상 33건, 고시 제외 대상 3건으로 심의 확정
	(2017년 12월 10일) ○ 분과위원장 선출, 국토교통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16건 심의	○ 서정목 위원장 선출, 국토교통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16건 중 고시 대상 15건, 고시 제외 대상 1건으로 심의 확정
	(2018년 12월 18일) ○ 가스·고충 민원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가스분야 표준화 안 29건 중 고시 대상 29건, 고충 민원 분야 표준화 안 12건 중 고시 대상 10건, 고시 제외 대상 2건으로 심의 확정
	(2019년 12월 16일) ○ 분과위원장 선출, 국어순화분과 운영 방향 논의	○ 박창원 위원장 선출
	(2020년 9월 4일~9월 18일/서면심의) ○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상청, 해경청, 권익위 등 7개 부처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외교부 소관 전문용어 11건,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15건, 농식품부 소관 전문용어 17건, 복지부 소관 전문용어 15건, 기상청 소관 전문용어 25건, 해경청 소관 전문용어 8건, 권익위 소관 전문용어 8건 심의 확정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7일~12월 4일/서면심의) ○ 산림청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산림청 소관 전문용어 18건 심의 확정
	(2021년 4월 1일) ○ 권익위·농식품부·소방청 등 3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권익위 소관 전문용어 1건, 농식품부 소관 전문용어 17건, 소방청 소관 전문용어 9건 심의 확정
	(2021년 4월 30일)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문용어 102건 심의 확정
	(2021년 9월 29일) ○ 교육부, 국토부 등 2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교육부 소관 전문용어 37건, 국토부 소관 전문용어 60건 심의 확정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분과위원장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조남호 위원장 선출 ○ 과기부 소관 전문용어 20건 심의 확정
	(2022년 6월 29일) ○ 농식품부·산림청·행안부·문체부 등 4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농식품부 소관 전문용어 11건, 산림청 소관 전문용어 2건, 행안부 소관 전문용어 11건,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8건 심의 확정
	(2022년 10월 17일~10월 19일/서면심의) ○ 국토부·권익위 등 2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국토부 소관 전문용어 103건, 권익위 소관 전문용어 4건 심의 확정
	(2022년 12월 20일) ○ 개인정보위·해양경찰청·소방청 등 3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개인정보위 소관 전문용어 8건, 해양경찰청 소관 전문용어 9건, 소방청 소관 전문용어 4건 심의 확정
	(2023년 12월 20일) ○ 분과위원장 선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김주원 분과위원장 선출 ○ 국토교통부 소관 전문용어 8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문용어 31건 심의 확정

6. 국어책임관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소속 공무원·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3월 21일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화되었으며, 2021년 6월 15일에는 국어책임관 의무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등으로 확대되었다.

국어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직원 가운데 홍보·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직원이 겸직하게 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23〉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국어기본법」에 따라 2005년 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했다. 2008년과 2013년에는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대해 국어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국어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화된 2017년 9월 22일과, 공공기관등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화된 2021년 12월 16일에는 국어책임관 지정 수가 크게 늘었다. 2023년 12월 기준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50명)과 그 소속기관(1,355명), 지방자치단체(광역 17명, 기초 226명), 교육청(17명) 및 지원청(236명), 공공기관(350명), 특수법인(66명) 등을 포함하면 총 2,317명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각급 기관에 지정된 국어책임관들은 공공

부문에서의 국어의 오용과 어려운 표현의 남용을 막고 올바른 국어 환경 조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연혁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0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였다. 이후 국어책임관의 사업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4〉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년 5월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년 7월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6년 8월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6년 9월	제1차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회의 개최
2007년 4월	54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년 7월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7년 9월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년 11월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년 11월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9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년 3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년 5월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안동)
2010년 11월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서울)
2010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년 4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1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1년 5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서울)
2011년 7월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1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
2011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2년 2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2년 5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경주)
2012년 7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연도	주요 내용
2012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2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3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3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부여)
2013년 7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3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4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4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광주)
2014년 7월	국어책임관 대상 1차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4년 10월	국어책임관 대상 2차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4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5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5년 5월	국어책임관 대상 1차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5년 8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울산)
2015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6년 7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청주)
2016년 11월	중앙부처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방안 워크숍 개최(서울)
2016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7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제주)
2017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8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대전)
2018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9년 4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서울)
2019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22년 7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대전)
2022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23년 4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대구)
2023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개최되지 않았음.

다. 역대 주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등의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국어책임관 안내서를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였다(2006년·2008년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11

년·2017년·2020년『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2018년『국어책임관 길잡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둘째, 2006년·2007년에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이후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셋째, 매년 국어책임관의 지난해 업무 실적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연도별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1-25〉 연도별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

연도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2009년		경상남도, 충청북도		
2010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시		
2011년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부산광역시		
2013년	국방부	경기도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전라남도 고흥군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순창군	
2016년	교육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여주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년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년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광주 동구	
2021년	교육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도교육청
2022년	교육부	경기도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교육청
2023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교육청

* 2017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우수사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21년부터 교육청을 우수사례 선정에 포함함.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설치되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설치·구성되어, 같은 해 5월 제1차 회의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추진 사업을 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2008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는 2008년 10월 20일부로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고 국어책임관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5년에 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전북 등 6개 지자체를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국어문화원

가. 개요 및 현황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를 지정함으로써 출발하였다.

국어상담소는 2008년에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조치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0년에는 각 지역 국어문화원의 총괄·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출범되었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과 적절한 상담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이듬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표 1-26〉 전국 국어문화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덕호	2005년 10월	knukorean.knu.ac.kr
2	경상국립대학교국어문화원	장시광	2005년 10월	ckc.gnu.ac.kr
3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영선	2005년 10월	kor.donga.ac.kr
4	세종 국어문화원	김슬옹	2005년 10월	www.barunmal.com
5	상명대학교(천안) 국어문화원	전정미	2005년 10월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최동주	2005년 10월	klci.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정우숙	2005년 10월	eomun.ewha.ac.kr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양영희	2005년 10월	www.korjnu.kr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신호철	2005년 10월	www.koreanlab.kr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이호승	2005년 10월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김희수	2005년 10월	www.kbs.co.kr/speak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이래호	2007년 1월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박기범	2007년 1월	korean.jj.ac.kr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배영환	2007년 1월	malgeul.jejunu.ac.kr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노경희	2008년 12월	home2.ulsan.ac.kr/user/uoukorean/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장수익	2008년 12월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안산) 국어문화원	김태경	2010년 5월	hkli.hanyang.ac.kr
18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박덕유	2011년 2월	www.inhakorean.or.kr
19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최운호	2014년 3월	mnukorean.blogspot.com
20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이건범	2014년 3월	www.urimal.o
21	인양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철우	2020년 5월	www.anyang.ac.kr
22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이창민	2021년 6월	sejong-urimal.korea.ac.kr

나. 연혁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10월에 전국 11개소의 국어상담소를 지정하였다.

2006년 1월, 국어상담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대국민 국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전국 국어상담소 소장이 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007년에 강원, 제주, 전북 등 3개 지역의 국어문화원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2008년 국어상담소의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울산과 대전 지역 2개소, 2010년 경기 지역, 2011년 인천 지역, 2014년에 서울 및 전남 지역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였다. 특히, 국어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문화원연합회가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20년 경기 지역 1개소, 2021년 세종 지역 1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2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표 1-27〉 국어문화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8월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년 1월	전국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6년 6월	『국어상담』 창간호 발행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8년 12월	울산,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0년 5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1년 2월	인천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4년 3월	서울 및 전남 지역 각 1곳 추가 지정
2020년 2월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설립
2020년 5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총 21곳 지정 운영
2021년 6월	세종 지역 1곳 추가 지정, 총 22곳 지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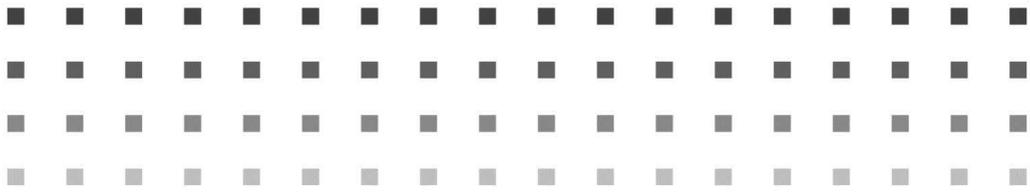
다. 주요 사업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일반 시민이나 공공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언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문규범, 국어 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지도, 독서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 사용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 활동으로 공공언어 실태 조사, 보도자료 감수, 관광지 안내문 지역 표지판 조사 및 개선 등을 하고 있으며, 세종대왕 나신 날과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관련 행사도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표 1-28〉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주요 업무	세부 사업
지역민 국어 능력 향상	국어생활 상담 및 교육, 공공기관 국어 상담 및 감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역 전담, 국어 교실 운영, 어르신을 위한 글쓰기 문화 학교,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글쓰기 학교 등
언어문화 개선	순화어 활용, 공공언어 실태 조사, 보도자료 감수, 관광지 안내문, 지역 표지판 조사 및 개선, 생활 밀접 분야 쉬운 우리말 용어 정비 사업, 우리말 가꿈이(대학생 언어문화 개선 활동 동아리)를 통한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추진 등
국어 관련 행사	세종 나신 날, 한글날 행사 개최, 글짓기 대회, 사투리 대회, 지역 대표 축제 참여 등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 제1절 공공언어 사용 실태
- 제2절 국어교육 현황
- 제3절 한국어 교육 현황
- 제4절 국외 한국어 사용 현황
- 제5절 국어 관련 민간단체 현황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공공언어 사용 실태

1. 개요

쉽고 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어려운 정책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하여 공공언어 진단 평가·감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용어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사용하도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어려운 용어를 사전에 거를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 상담을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이 중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 2011년부터 공공언어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평가하는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왔다. 2018년부터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집중하고, 평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진단 기준을 보완하면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국어기본법」 개정 시행(2021. 12. 16.)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법 개정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공문서의 언어 사용을 정부 업무 평가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평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여 공문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과 제도 정비를 토대로 2023년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기준으로 공공언어를 평가하였다.

〈표 2-1〉 2023년 공공언어 진단 평가 기준

용이성	어려운 외국어 대신 쉽고 친숙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가?	
	외국 글자보다는 한글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가?	
정확성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규범을 지켰는가?
	표현의 정확성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2. 공공언어 개선 사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공개될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널리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공공언어이다. 국립국어원은 보도자료에 나타난 어려운 용어와 비문법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보도자료 평가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23년에 점검한 보도자료 중 개선이 된 일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공공언어 개선 사례

사례	수정안	개선 내용
○웰니스 ○라키비움	○ 건강 관리 ○ 복합 문화 공간	▶ 어려운 외국어 대신 쉬운 말 쓰기
○미래세대를 위한 ESG 핵심가치	○ 미래세대를 위한 이에스지(ESG)/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핵심가치	▶ 국어 기본법 준수 ▶ 외국 글자(한자, 로마자)보다는 한글로 쓰기 ※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하되, 외국 글자를 사용해야 할 때는 한글로 먼저 적고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적어야 함.
○지역 문화행사 道 차원 관심·지원 요청	○ 지역 문화행사 도/도(道) 차원 관심·지원 요청	
○1차 연도 ○축적양	○ 1차 연도 ○ 축적량	▶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 한글맞춤법(두음법칙) 준수
○등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 등본)을	○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를	▶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 괄호 뒤 조사 사용 등
○워크샵	○ 워크숍	▶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 외래어 표기법 준수 등

사례	수정안	개선 내용
○신청 방법은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OO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OO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어법에 맞게 쓰기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 지키기
○결맞는	○ 결맞은	▶어법에 맞게 쓰기 - 어미 바르게 사용하기

제2절 국어교육 현황

1. 국내 국어교육

국어교육은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어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전문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양 과정에서의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국어 관련 전공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국어교육은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다.

가.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국어교육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교육 비중은 국어 교과(군)의 수업 시수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2015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9. 23.)한 후에 7년만인 2022년 12월에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4호)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개정 고시의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관련 수업 시수를 다른 교과(군)의 수업 시수와 비교한 것이다.

〈표 2-3〉 초등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국어	국어 482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272	272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군)	과학/실과	바른 생활 144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224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400	272	272
	영어		136	204
	소 계	1,506	1,768	1,972
전체 교과(군) 중 국어 비율		32.00%	23.07%	20.68%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 ⑤ 정보교육은 실과의 정보영역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표 2-4〉 중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 계	3,060
전체 교과(군) 중 국어 비율		14.44%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표 2-5〉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교과(군)	공통 과목	필수 이수 학점	자유 이수 학점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8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8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8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8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10	
체육		10	
예술		10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84	9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공통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 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④ 과학탐구실험1, 2의 기본 학점은 1학점이며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학, 체육,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는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⑥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와 이수 학점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인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위의 표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국어과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단일 교과로는 국어과의 위상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업 시수가 2015년 고시된 교육과정 시수보다 증가(448시간→482시간)했다. 이는 초등 저학년의 한글 및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국어 교과 비율이 32%로 중학교 약 14%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변경되었는데 과목 이수시간은 줄어들었다.(141.7시간→106.7시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변경되어 시수가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국어능력을 충분하게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실천이 필요하다.

나. 대학교 내 국어 관련 전공

전문 국어교육은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복수 전공 제도의 확대로 전문 국어교육을 받는 전공자 수가 더욱 늘었다.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국어 및 언어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국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수(2023년 기준)

구분	학과명(전공명)	개설(수)
학부 대학원 등	국어국문/국어국문학과/국어국문학전공/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부)	202
	국어교육과(심화전공)	48
	국제한국어전공/국제한국어교육전공/국제한국어학과/글로벌한국어과/ 글로벌한국어문화과/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글로벌한국어 전공	10
	동화·한국어문화학과/동화·한국어문화전공/동화미디어창작학과/ 문예창작학과/창작문학과	49
	(국제문화학과)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전공/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문학학과	35
	초등국어교육전공	20
	한국어교육문화학과/한국어교육학과/한국어교육전공/한국어교육협동과정/ 한국어교육과	78
	한국어문화과/ 한국어문학과/한국어문학부/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전공/한국어학과	44
	국제문화학과 다문화학 전공/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다문화한국어학과/ 한국어 다문화학과	5
	기타(KFL, KLC, KFLT, K-언어문화기업학과)	5
	합계	496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위의 학과 개설 현황을 통해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설 대학의 수를 고려할 때, ‘국어국문학과’가 단독 학과 및 전공으로서는 여전히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표적인 학과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존의 학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유사한 학과 명칭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국어국문학에서 창작이나 번역 관련 학과로 명칭이 변화된 양상도 많이 확인되었다.

다. 평생교육 문자 해독 관련 과정

국어와 관련한 평생교육 과정에서는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문자 해독 과정을 현황을 살펴보면서 평생 국어 교육 관련 문해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7〉 유·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전체	44	0	0	6	14	24	0
초등학교	7	0	0		7		0
고등학교	10	0	0		2	8	0
초중등학교	4	0	0	1	2	1	0
중고등학교	23	0	0	5	3	15	0

〈표 2-8〉 유·초·중등학교 부설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합계	44	0	0	2	8	32	0
서울	8	0	0	1	7	0	0
광주	1	0	0	1	0	0	0
대전	10	0	0	0	2	8	0
경기	21	0	0	3	3	15	0
경북	4	0	0	1	2	1	0

유·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 과정의 수가 가장 많다. 일반 유·초·중등학교에서는 소속 학생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에 해당하며, 국어와 관련된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 등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으로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과정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표 2-9〉 대학(원) 부설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전체	20,241	8346	1	3,231	2,231	6,398	34
서울	7,736	5,345	-	745	547	1,096	3
부산	1,682	575	1	269	195	637	5
대구	879	283	-	168	127	298	3
인천	462	124	-	106	61	171	-
광주	420	45	-	111	64	198	2
대전	658	131	-	121	92	314	-
울산	134	8	-	28	19	78	1
세종	135	2	-	43	33	57	-
경기	2,921	1,348	-	487	248	834	4
강원	561	4	-	115	82	359	1
충북	528	34	-	183	93	216	2
충남	940	278	-	267	148	244	3
전북	703	11	-	114	117	461	-
전남	287	6	-	67	38	176	-
경북	818	56	-	180	121	454	7
경남	1,174	96	-	199	211	666	2
제주	203	-	-	28	35	139	1

〈표 2-10〉 대학(원) 부설 학교급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전체	20,241	8,346	1	3,231	2,231	6,398	34
전문대학	2,862	440	-	1,049	271	1,085	17
교육대학	486	51	1	47	74	313	-
4년제일반대학	15,967	7,471	-	1,863	1,700	4,916	17
산업대학	25	15	-	6	4	-	-
대학원대학	422	235	-	59	99	29	-
사이버대학	387	93	-	191	80	23	-
전공대학	67	41	-	6	-	20	-
기능대학	25	-	-	10	3	12	-

대학(원) 부설 과정에서도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과정은 1개로 줄어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과정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표 2-11〉 원격 형태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시도	프로그램 수	학력보완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전체	77,488	6,908	2	49,002	20,147	1,427	2
서울	72,547	5,520	2	45,896	19,842	1,286	1
부산	564	64	-	471	28	1	-
대구	255	204	-	41	5	5	-
인천	314	88	-	201	19	6	-
광주	266	188	-	38	40	-	-
대전	140	43	-	87	10	-	-
울산	2	-	-	1	1	-	-
세종	25	-	-	25	-	-	-
경기	2,494	450	-	1,781	153	109	1
강원	22	-	-	20	2	-	-
충북	38	-	-	10	22	6	-
충남	157	104	-	41	12	-	-

시도	프로그램 수	학력보완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전북	266	146	-	103	4	13	-
전남	15	-	-	12	2	1	-
경북	12	12	-	-	-	-	-
경남	361	89	-	269	3	-	-
제주	10	-	-	6	4	-	-

원격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의 수도 거의 줄어 단 2곳만 운영되고 있다.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202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 국외 국어교육

국외에서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한국학교이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16개국에 34개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중국이 13개로 가장 많다.

〈표 2-12〉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3년 5월 기준)

구분	계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동남아	남미	기타*
학교 수	34	4	13	2	2	6	2	5
학생 수	13,494	2,314	4,949	93	4,245	1,579	219	95
교원 수	1,294	198	575	15	250	194	39	23

* 기타국가(5) : 모스크바, 테헤란, 카이로, 리야드, 젯다

(출처: 교육부)

제3절 한국어 교육 현황

1. 국내 한국어 교육

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는 1)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2)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3) 국내 대학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4) 국내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5) 자원봉사 단체, 6) 정부 산하의 한국어 교육 기관, 7) 기업체 내의 한국어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학이다. 대학 등 학위 과정으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302개 기관이며, 비학위 양성 과정은 260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표 2-1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현황(2023년 12월 기준)

교육 기관	대학원	학부	사이버대학(원)	학점은행 기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단기)	계
기관 수(개)	141	61	15	64	255	536

* 출처: 국립국어원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현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한국어진흥과)이며, 2006년~2008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시험을 주관했으나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필기시험은 4개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을 하고 총점의 60%인 1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교사로서의 태도 및 소양, 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한다.

〈표 2-1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1. 한국어학(60문항, 90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20문항, 30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93문항, 150점) 4. 한국문화(20문항, 30점) ○ 합격 기준 -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내용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 한국어능력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성 및 소양 ○ 합격 기준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2006년 첫 시험이 실시된 후 2024년 7월 현재까지 18차례 실시되었다. 2006년 첫 시험의 응시자가 1,022명이었던 데 비해 2023년에는 4,598명이 응시하는 등 응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15〉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2023년 12월 기준)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6년(1회)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년(2회)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년(3회)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년(4회)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년(5회)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2011년(6회)	2,825	673	23.8%	684	594	86.8%	21.0%
2012년(7회)	2,945	1,020	34.6%	1,067	844	79.1%	28.7%
2013년(8회)	2,711	837	30.9%	999	794	82.5%	29.3%
2014년(9회)	3,167	875	33%	979	775	81.8%	24.5%
2015년(10회)	2,740	1,682	61.4%	1,744	1,323	76.4%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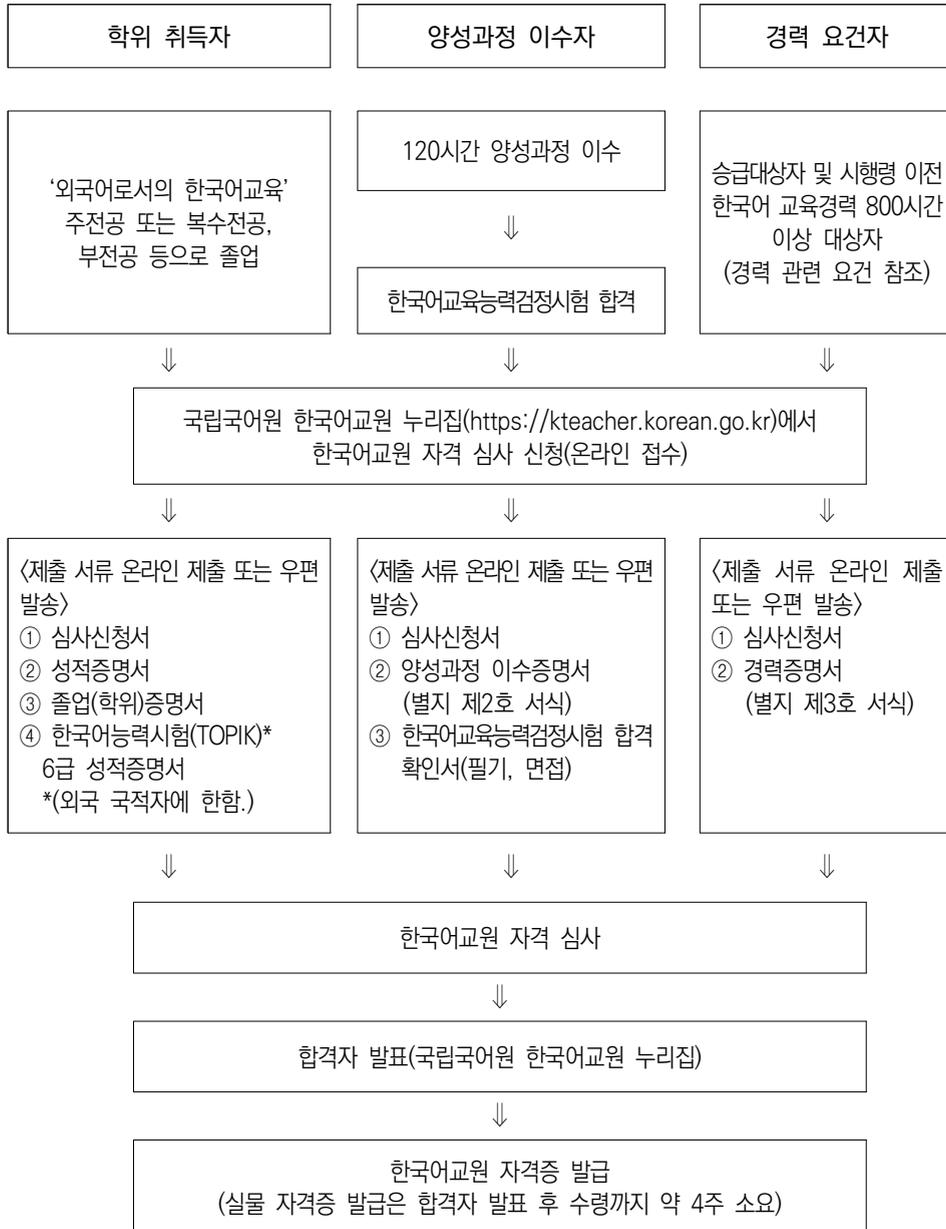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6년(11회)	3,101	721	23.3%	1,006	786	78.1%	25.3%
2017년(12회)	3,527	951	26.7%	1,009	812	80.5%	23.0%
2018년(13회)	3,118	859	27.5%	961	777	80.9%	24.9%
2019년(14회)	3,130	1,250	39.9%	1,324	1,111	83.9%	35.5%
2020년(15회)	2,209	1,055	47.8%	1,160	922	79.5%	41.7%
2021년(16회)	1,653	993	60.0%	1,085	879	81.0%	53.1%
2022년(17회)	1,393	604	43.4%	708	568	80.2%	40.8%
2023년(18회)	1,390	645	46.4%	680	563	82.8%	27.5%
계	43,181	15,241	37.02%	16,449	13,342	83.32%	31.48%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37.02%이며,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약 83.32%로 총합격률은 31.48%이다.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기본법」에 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과했거나, 대학(원) 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2-1]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는 2007년에 누계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23년 12월 기준 누계는 82,844명에 이른다.

〈표 2-16〉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2023년 12월 기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자격증 취득자 수	1급	65	50	73	93	155	191	376	470	500	477	508	435	506	3,899
	2급	3,320	1,306	2,168	3,622	4,280	4,936	4,961	5,288	6,227	7,064	7,488	7,154	6,847	64,661
	3급	3,432	627	877	841	877	1,392	882	866	873	1,133	961	898	625	14,284
	합계	6,817	1,983	3,118	4,556	5,312	6,519	6,219	6,624	7,600	8,674	8,957	8,487	7,978	82,844
대학(원) 전공 학과 수	학부	1	4	6	5	6	3	6	2	5	2	2	3	10	71
	대학원	11	15	8	8	10	0	8	4	7	6	5	5	9	150
	사이버 대학 (원)	1	2	1	1	1	0	0	1	1	0	1	1	0	15
	학점 은행제	2	3	6	3	2	0	4	9	7	9	11	1	2	66
	합계**	98	122	143	160	179	182	200	216	236	253	272	281	302	302
단기 양성 기관 수**	131	154	160	178	188	202	213	221	227	243	253	257	259	259	

* 2006년 최초 자격을 발급한 이후의 누적 수치임. 2급과 3급은 2006년부터 발급되었고, 1급은 2011년 최초 발급됨.

** 해당 연도까지의 누계 수치를 나타냄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원의 적재적소 배치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한국어교원들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 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해외 한국어 교육

가. 한국어 보급 기관

한류 및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한국어 보급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어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는 세종학당이고, 민간 자체적으로 설립된 한글학교도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여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초·중등학교와 한국학과 또는 한국어과를 개설한 해외 대학도 한국어를 보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 세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기관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의 대표 기관인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세종학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개선 세부 실행 방안(2016. 7. 국무회의)’에 따라 한국교육원 31개소를 세종학당으로 지정하였다.

2023년 기준 세종학당은 전 세계 85개국에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28개국 139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유럽 28개국 57개소, 아메리카 14개국 34개소 순이다. 2013년에는 52개국 120개소, 2014년에는 54개국 130개소, 2015년에는 54개국 138개소, 2016년에는 58개국 174개소, 2017년에는 54개국 171개소, 2018년에는 56개국 172개소, 2019년에는 60개국 180개소, 2020년에는 76개국 213개소, 2021년에는 82개국 234개소, 2022년에는 84개국 244개소가 운영되었다.

〈표 2-17〉 대륙별 세종학당 운영 현황(2023년 기준)

대륙	국가 수	학당 수
아 시 아	28	139
유 럽	28	57
아메리카	14	34

대륙	국가 수	학당 수
아프리카	13	14
오세아니아	2	4
계	85	248

2) 한글학교

한글학교는 재외 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 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 한글학교의 교육생은 주로 재외동포 2~3세나 지사·상사 주재원의 자녀 등으로 구성되며 일부 외국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한글학교는 주로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이 진행되며,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2~6시간 내외이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14개국에 1,462개교의 한글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곳에 등록된 교사는 14,192명, 학생은 92,443명에 이른다. 2022년에는 111개국 1,438개교의 한글학교에 13,186명의 교사와 85,173명의 학생이 등록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이후 한글학교 수와 학생 수가 다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2023년 4월 기준)

구분	국가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아시아	19	293	2,327	18,384
대양주	5	81	909	6,682
북미	2	726	8,181	43,657
중남미	20	65	531	4,703
유럽	29	121	1,173	8,013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9	130	646	9,269
아프리카, 중동	30	46	425	1,735
계	114	1,462	14,192	92,443

* 출처: 재외동포청, 스테디코리안(stidy.korean.net)-“한글학교 현황”

지역별로는 북미에 726개교로 한글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은 아시아,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유럽 순이다. 한글학교 지원 업무는 199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담당했으나 1998년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산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을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였으며, 2023년 재외동포청이 개청한 후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3) 한국어 채택 해외 초·중등학교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반의 최근 8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1,111개교(26개국)에서 2023년 2,154개교(47개국)으로 93.9%(1,043개교) 증가했고, 학생 수도 93,144명에서 202,745명으로 117.7%(109,601명) 늘었다.

〈표 2-19〉 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가 수	26	28	27	28	28	30	39	42	43	47
학교 수	1,111	1,224	1,309	1,423	1,495	1,635	1,669	1,806	1,928	2,154
학생 수	93,144	107,199	115,335	14,303	134,102	145,309	159,864	170,563	186,583	202,745

〈표 2-20〉 해외 국가별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2023년 12월 기준)

권역	학교 수	학생 수
동북아시아	662	28,235
동남아시아	451	84,890
서남아시아	139	9,421
러시아·중앙아시아	180	24,643
중동	2	133
유럽	195	5,680
오세아니아	102	13,461
북미	268	27,521
중남미	154	8,340
아프리카	1	421
계	2,154	202,745

* 출처: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재외공관, 한국교육원 등의 제출 자료를 가공)

한국어반 개설 학교가 가장 많은 권역은 동북아로 662개교이고, 동남아(451개교)가 그 뒤를 잇는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동남아시아가 84,89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북아(28,235명), 북미(27,521명) 순이다.

4) 해외의 한국학 강좌

해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강좌 또한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367개)이고 중국(265개)과 미국(171개)이 뒤를 잇고 있다.

〈표 2-21〉 해외 한국학 강좌 운영 현황(2023년 기준)

대륙별	국 가	개수
아시아	네팔	2
	대만	62
	동티모르	1
	라오스	4
	말레이시아	19
	몽골	18
	미얀마	2
	방글라데시	1
	베트남	41
	브루나이	1
	스리랑카	5
	싱가포르	5
	아프가니스탄	1
	인도	23
	인도네시아	16
	일본	367
	중국	265
	캄보디아	7
	태국	22
	파키스탄	2
	필리핀	19
소계(21개국)	883	

대륙별	국 가	개수
북미	미국	171
	캐나다	20
	소계(2개국)	191
유라시아·유럽	그리스	1
	네덜란드	3
	노르웨이	1
	덴마크	1
	독일	26
	러시아	40
	라트비아	2
	루마니아	4
	리투아니아	1
	몰도바	2
	벨라루스	2
	북마케도니아공화국	1
	불가리아	8
	벨기에	2
	세르비아	2
	스웨덴	2
	스위스	2
	스페인	6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아르메니아	2
	아이슬란드	1
	아일랜드	4
	아제르바이잔	7
	에스토니아	2
	영국	33
	오스트리아	2
	우즈베키스탄	13
	우크라이나	4
	이탈리아	9
	조지아	2
체코	6	
카자흐스탄	23	
크로아티아	2	

대륙별	국 가	개수
	키르기스스탄	16
	타지키스탄	2
	튀르키예	6
	투르크메니스탄	1
	포르투갈	4
	폴란드	6
	프랑스	34
	핀란드	2
	헝가리	2
	소계(43개국)	291
	중동 및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모로코		6
바레인		2
사우디아라비아		2
세네갈		1
수단		1
아랍에미리트		8
에티오피아		2
오만		1
요르단		2
우간다		2
이라크		1
이란		1
이스라엘		4
이집트		3
짐바브웨		1
카타르		2
케냐		2
코트디부아르		1
쿠웨이트		1
탄자니아		3
튀니지		1
소계(22개국)	48	
중남미	과테말라	1
	니카라과	2
	도미니카공화국	1
	멕시코	15

대륙별	국 가	개수
	베네수엘라	4
	볼리비아	5
	브라질	6
	아르헨티나	7
	에콰도르	7
	칠레	5
	코스타리카	2
	콜롬비아	9
	쿠바	1
	트리니다드·토바고	1
	파나마	1
	파라과이	1
	페루	8
	소계(17개국)	76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
소계(2개국)		15
계		107개국 1,504개 기관

*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현재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은 공인시험 2개와 민간 인증시험 10여 개가 있다. 공인시험으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험을 주관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하였고,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 2014.07.20.	시험 체제 개편(제35회~)
● 2011~2014.04.20.	국립국제교육원 제21회~제54회 시행
● 2011.01	사업주관기간 변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제교육원)
● 1999~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38회 - 제20회 시행
● 1999.02	사업주관기관 변경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997~1998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회~제2회 시행

* 출처: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누리집(<http://www.topik.go.kr>)

[그림 2-2] 한국어능력시험 연혁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합격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²⁾

〈표 2-22〉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응시자	합격자
2019년	토픽 I(1~2급)	282,562	74,828
	토픽 II(3~6급)	217,506	133,645
2020년	토픽 I(1~2급)	32,836	30,128
	토픽 II(3~6급)	100,624	70,250
2021년	토픽 I(1~2급)	54,650	49,949
	토픽 II(3~6급)	168,538	120,020
2022년	토픽 I(1~2급)	55,621	50,361
	토픽 II(3~6급)	164,554	113,587
2023년	토픽 I(1~2급)	95,942	85,448
	토픽 II(3~6급)	237,347	156,139

* 출처: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누리집(<http://www.topik.go.kr>)

2) 2006년 12월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구분하였으나 2011년에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폐지되었다. 편 의상 표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 인원만을 보였다. 2015년부터는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제4절 국외 한국어 사용 현황

1. 한국어 사용자 수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뿐이지만 재일 동포, 재중 동포, 구소련 지역(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동포, 북미·유럽·남미 등의 동포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동포 사회가 한국어 사용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 배워서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부 외국인들도 넓은 의미의 한국어 사용 인구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8,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3년 기준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24위임. 국내 통계와 국제 통계의 시차 및 산출 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통계 수치상 차이가 있음).

〈표 2-23〉 언어별 사용 인구(2023년 기준)

구분	모국어와 제2외국어 합산 기준	순위
영어	15억 명	1
중국어	11억 명	2
힌디어	6.09억 명	3
스페인어	5.59억 명	4
프랑스어	3.09억 명	5
아랍어	2.74억 명	6
벵갈어	2.72억 명	7
포르투갈어	2.63억 명	8
러시아어	2.55억 명	9
우르두어	2.31억 명	10
인도네시아어	1.99억 명	11
독일어	1.33억 명	12
일본어	1.23억 명	13
∴	∴	∴
한국어	8.17천만 명	24

출처: 『에스놀로그 Ethnologue』(<http://www.ethnologue.com/statistics/size>)

2. 한국어의 위상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국제 공개어는 특허 출원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 사회에 알릴 때 쓰는 특허계의 공용어로 현재 10개 언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한반도에 국한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개어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사용자 수와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제어로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구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개별 국가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강화된 사례로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초·중등학교가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프랑스 초·중등학교에서는 ‘국제섹션’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되었다. 국제섹션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문학, 역사, 과학, 수학 등의 교과목을 프랑스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교육하는 정규교과 체계다. 현재 프랑스 초·중등학교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17개 언어의 국제섹션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대학 입학 국가 자격 고사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이 외국어 시험 교과목의 공식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는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 위상이 기존 ‘임의 선택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격상되었으며 계열별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 비중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터키는 2017년에 초·중·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제2외국어에 한국어를 추가했으며 2018년 9월부터 앙카라 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태국은 2016년에 한국어를 대학 입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2018학년도에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가 시행되었다. 필리핀에서도 국공립학교 제2외국어 정규과목으로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2017년 6월에 체결한 후, 2018년부터 마닐라 수도권 내에 우선적으로 10개의 중·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베트남도 2016년 9월 신학기부터 일부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시범 채택하였고 그 후 2년 만인 2019년에는 제2외국어로 선정하여 중·고등학교로 확대, 2021년 초에는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였다. 인도에서는 201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취미반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듬해 2020년 7월에 전격적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러시아도 2020년 10월 국가교육 정책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권장 과목으로 선정하여 2024년 현재 약 50개 초·중등학교에서 약 5,900 명의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표 2-24〉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응답 순위 \ 국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한국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고려말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조선어
3순위	한국말	기타	기타	-	-
4순위	북한말	한국어	-	-	-

〈표 2-25〉 제일 잘하는 언어

응답 순위 \ 국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	한국어	영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	영어	포르투갈어	동포어
3순위	한국말	-	-	스페인어	-
4순위	-	-	-	한국어	-

〈표 2-26〉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응답 순위 \ 국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 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고려말/사할린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동포어
3순위	한국말	한국어	-	스페인어	-
4순위	-	지역어	-	한국어	-

〈표 2-27〉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응답 순위 \ 국가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고려말/사할린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동포어
3순위	한국말	한국어	-	스페인어	-
4순위	-	지역어	-	한국어	-

제5절 국어 관련 민간단체 현황

1. 국어 관련 법인

2023년 12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 등록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28〉 국어 관련 법인 현황 및 주요 사업(2023년 12월 기준)

일련 번호	단체명	설립목적	주요 사업
1	국어고전문화원	올바른 국어 연구 및 한자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국어 연구 정립 ○ 한자 교육 및 한글의 성음법 비교 연구
2	국어순화추진회	우리말과 글의 순화 운동을 통해 온 국민의 언어생활을 바로잡고 주체성을 드높여 국민의 민주화와 민족 문화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순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의 전개, 강습회, 세미나 개최 ○ 한글의 기계화 촉진 ○ 학술 용어 및 전문 용어의 제정
3	한국어정보학회	국어 정보 처리의 이론 체계 정립과 기술 향상을 통한 정보산업 성장 지원, 국어 정보 처리 기술의 보급 및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정보 관련 문제점의 조사·연구 발표 ○ 논문집, 출판물 편집·간행 ○ 국어 정보 관련 표준 및 규격의 제안
4	더플랜트코리아	해외 낙후 지역에 한국학교를 설립 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널리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낙후 지역에 한국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전파 ○ 청소년 및 대학생 상호 방문 교류 및 낙후 지역 봉사 활동
5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어 진흥)에 이바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 ○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진흥 ○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과 보수 교육
6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우리말을 가꾸고 한글을 지켜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히고 민주 소통 문화를 복돋우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독창적인 말글 문화를 일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언어 개선 사업 ○ 교육 사업 ○ 학술 연구 사업 ○ 문화 사업 ○ 대외 협력 사업

일련 번호	단체명	설립목적	주요 사업
7	사단법인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국립한글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회원의 기부·기증을 통하여 국립한글 박물관의 전시·연구·교육·문화사 업·편의 시설 등의 지원과 한글문화 확산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전시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 박물관 학술 자료 및 조사·연구 지원 ○ 한글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 교육 및 국제 교류 ○ 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양 향상 ○ 한글 관련 연구자 등에 대한 장학 사업
8	사단법인 한국공공통 번역협회	공공 통역 및 번역 수행, 감수 및 평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통역 ○ 공공 번역 사업 ○ 공공 통역 감수 및 평가 사업 ○ 공공 번역 감수 및 평가 사업 ○ 공공 통역 및 번역 관련 연구 사업 ○ 공공 통역사·번역사 교육 및 인증 사업 ○ 유관 기구와 교류·협력 사업
9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세종대왕 성덕과 위업을 추모, 후손에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 간행 ○ 세종대왕의 유물·유적 수집·보관
10	온누리 한글 문자화 협의회	우리 글자인 한글로 지구촌의 문맹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계도
11	한국어문화	국어 전통의 계승 발전과 국한문 혼용 체제의 확립 및 국어 순화를 통한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정책 연구(상용한자 제정, 국어 순화 등) ○ 학술 연구 발표 ○ 어문연구, 어문 교육 교재 등 발간 ○ 한자능력검정시험 실시 ○ 한국어문화관 건립 및 운영 ○ 한자 교육 장학 사업 ○ 난정학술상 수여
12	한국언어문화 연구원	국어 교육의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국어 정보화 사업, 국어 대중화 사업, 국어 능력의 평가 활동 등을 지원 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문화 창달을 위한 정기 간행물 발간 ○ 국어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 고전의 발굴 및 대중화를 위한 디지털화 사업 ○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 하는 사업
13	한글문화연구회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나라 말을 살려 내고 이를 다듬고 가꾸어 한글 문화 중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통한 국민정신 계도 ○ '한' 정신 및 '한' 문화의 연구 및 개발, 보급 ○ '한' 정신 및 '한' 문화 발전을 위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및 출판

일련 번호	단체명	설립목적	주요 사업
14	한글재단	우리 말과 글을 갈고닦는 개인이나 단체 지원 및 한글의 국내외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 ○ 우리 말과 글 관련 간행물, 저술, 논문 등 출판 및 지원 ○ 전통문화와 한국학 연구 지원
15	한글학회	국어·국문의 연구, 통일 발전과 한글의 기계화 연구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국문의 연구 ○ 표준말, 맞춤법 연구와 학술 및 전문 용어에 관한 연구 ○ 한글 글자꼴과 한글 기계화에 관한 연구 ○ 사전 편찬과 각종 조사·연구 및 발행 ○ 국어 정화에 관한 연구 및 실천 운동
16	한국어능력 평가원	한국어 능력의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한 국내외 한국어 진흥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직업 개발을 지원하고 후원 ○ 한국어 교육의 공평한 기회 제공
17	한국문화 국제교류 운동본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제 문화 교류 및 한국 이미지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보급 ○ 태권도 보급
18	한말글	바르고 쉽고 품격 있는 국어 사용 운동 실천, 건전한 우리말글 환경 조성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쉬운말 쓰기 운동 ○ 생활국어 상담 및 한말글 일깨우기 ○ 국어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및 교육
19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지역 국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국어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 국어문화원 운영 및 활성화 ○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20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 사업회	문자 강국의 자긍심 전승 및 훈민정음의 우수성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민정음 백일장, 훈민정음 국제 서예대회, 훈민정음서문암송대회 개최 ○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시행 및 연수교육 ○ '훈민정음 과거시험' 시행 ○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 ○ 훈민정음 관련 도서 발행 및 보급
212	사단법인 한국공공언어 연구협회	공공언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물을 축적 및 공유함으로써 국내 공공언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 국내 공공언어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여 국민의 공공언어 역량 강화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별 공공언어의 특징 규명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 공공언어 연구 성과의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게재 및 단행본 출간 ○ (한)국어 공공언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 및 보급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공언어 연구개발 관련 사업

2. 국어 관련 학술 활동 지원

현재 국내에는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등 어문 관련 분야에 90여 개의 학회가 있다. 이러한 국어 관련 학회 및 기관과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와 국어 관련 학술 단체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국어 정책 학술대회 수행 계획을 공모하여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국어 정책 관련 학회 및 기관에서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국어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민간 학술 단체와 협력하여 국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어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학회와 협력하여 2020 세계한국어대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부터는 세계한국어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학술대회와 문화행사, 언어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2022년 세계한국어한마당 국제학술대회는 공모를 통해 14개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2023년 세계한국어한마당 국제학술대회는 16개 학술단체가 공동 개최하였다. 국어 정책 관련 학술행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9〉 국어 정책 관련 학술행사 지원 내용

연도	날짜	구분	주제	주관 학회	장소
2013	6. 20.	포럼	문학과 언어학의 통섭	한국언어문학회	한남대학교 (대전)
	8. 9.	포럼	남북 언어 통합의 문제	국어문학회	춘향문화예술회관 (남원)
	9. 7.	포럼	어문규범 정책의 방향성	한국어문학회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
	10. 11.	전국학술대회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 정책의 방향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4	6. 13.	포럼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	한국지명학회	전남대학교 (광주)
	8. 21.	포럼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우리말학회	동아대학교 (부산)
	11. 7.	포럼	한국어 문학과 한국어 교육학의 세계화 전략	한국국어교육학회	충북대학교 (청주)
	10. 10.	전국학술대회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 개선 운동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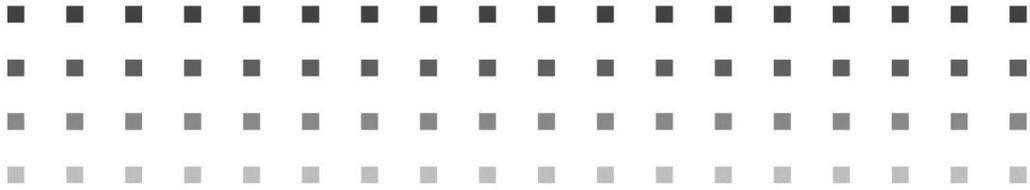
연도	날짜	구분	주제	주관 학회	장소
2015	5. 14.	포럼	광복 70돌맞이 말글 정책의 회고와 전망	한글학회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5. 30.	포럼	광복 70년, 통일과 창조를 위한 한국어문학	국어국문학회	고려대학교 (서울)
	8. 7.	포럼	국어사 자료의 현대화	국어사학회	충남대학교 (청주)
	10. 16.	전국학술대회	문화융성 시대의 우리 말글과 국어기본법	한국어문학술 단체연합회,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6	6. 24.~25.	포럼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의 성과와 연구 방향 모색	한국방언학회	목포대학교 (무안)
	9. 24.	포럼	한국어 듣기 능력과 듣기 교육	한국화법학회	전주교육대학교 (전주)
	12. 3.~4.	포럼	자기표현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한국어교육학회	신라대학교 (부산)
	12. 15.	포럼	국립국어원의 위상과 역할	국어학회	인하대학교 (인천)
2017	7. 6.	포럼	한국수어 연구의 현황과 전망	국어학회	청주대학교 (청주)
	8. 25.~26.	포럼	(한)국어교육의 세계화 - 어제, 오늘, 내일	국어교육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10. 20.	포럼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과학과 수학 융합 연구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11. 3.	전국학술대회	국외 한국어 문학의 과제와 진흥 방안	국어국문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8	6. 21.	포럼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국어학회	경북대학교 (대구)
	5. 18., 8. 10., 12. 14.	포럼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성과 - 미래/통일 교육과정을 위한 토대 구축	한국어교육학회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11. 28.	포럼	국어기본법 13년, 그 성과와 과제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서울시청 (서울)
	12. 20.	전국학술대회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국어사학회	고려대학교 (서울)
2019	5. 17.	포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한국공공언어학회	국회의원회관 (서울)
	5. 17., 8. 9., 12. 13.	포럼	문식 환경 변화에 따른 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대응 - '국어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연도	날짜	구분	주제	주관 학회	장소
	6. 21.~22.	전국학술대회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연구	국어학회	전남대학교 (광주)
	6. 28.~29.	포럼	북한 언어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방언학회	서울대학교 (서울)
	11. 9.	포럼	통일 시대의 한국 사회언어학 연구	한국사회언어학회	대구대학교 (대구)
2020	12. 21.~23.	국제학술대회	(전체)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 (1분과) 세계로 향하는 한국어학	13개 분야의 학회와 협업 (국어학법/소통, 말뭉치 언어학, 사회언어학/방언학 국어 정책 통사론, 음성학/음운론, 의미학 국어사, 텍스트언어학, 담화회용 수어학, 문자학 형태론)	온라인 개최
2021	10. 8.~9.	국제학술대회	새 일상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향	국립국어원에서 3개 분과 구성·운영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통번역학)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대면 및 비대면 진행 병행
2022	10. 6.~7.	국제학술대회	세상을 잇는 한국어, 미래를 이끄는 한글	14개 학술단체 공동 개최 (국어학회, 국어학회, 국어사학회, 국어교육학회, 이종언어학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반교어문학회,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한국공공언어학회, 한국번역학회, 한국통번역학회, 한국사회언어학회, 한국어 의미학회, 한문텍스트언어학회)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대면 및 비대면 진행 병행
2023	10. 5.~6.	국제학술대회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 문화	16개 학술단체 공동 개최 (구결학회, 국어사학회, 국어학회, 국제	aT센터(서울) *일부 비대면 진행 병행

연도	날짜	구분	주제	주관 학회	장소
				한국언어문화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동국대번역학연구소, 서울대학교국어연구소, 이중언어학회, 인문학협동조합, 한국사전학회, 한국사회언어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외대언어연구소, 한국어의미학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한국회법학회)	

* 2016년 이후의 학술 행사 지원은 국립국어원에서 공모를 통해 시행하였음.

* 2020년에는 학회와 협력하여 2020 세계한국어대회를 개최,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학술대회·문화행사·언어산업전을 포함하여 2021, 2022, 2023 세계한국어한마당을 개최



제3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

- 제1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 제2절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 제4절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 제5절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3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1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 근거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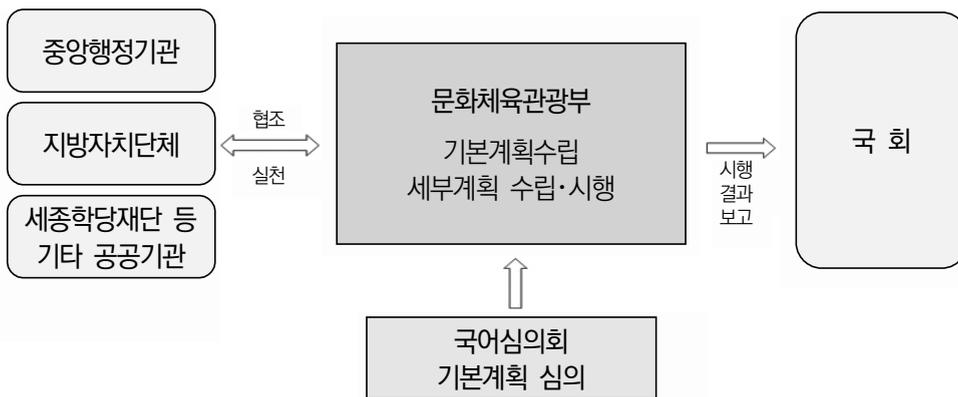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되며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목적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의 발전에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운 계획을 수집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며,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년~2011년)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이다. 3대 중점 추진 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3-1〉 3대 중점 추진 과제

<p>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 ▶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국어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교육 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 ▶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 개설, 운영
<p>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차(2007년~2008년):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 ◦ 1단계 2차(2009년~2011년):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 ◦ 2단계(2012년~2016년):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교육 전문가 연결망 구축 ◦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언어정책 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 ◦ 정보 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개발 ▶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 ◦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 ◦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 ▶ 민간 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
- ▶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
- ▶ 실용 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
-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는 「국어기본법」 및 정책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국어 정책으로, 10대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0대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 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 구축
3.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3-2 새터민 ³⁾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 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 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6-2 민족생활어 및 직업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3) 법률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임. 본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해 기술함

10대 추진 과제	세부 과제
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8-1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 정책 홍보 맞춤형 서비스 체제 구축 10-3 국어생활 기획 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 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2.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는 한국어 세계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종학당 60개소를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 초급, 중급 1·2 및 교원용 지침서를 개발하고 국내외 세종학당 및 주요 기관에 보급하였다. 특히 초급·중급 교재를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현지화하여 발간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기초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외 한국어 학습자들의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세종학당인 누리-세종학당을 2009년에 개통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된 누리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과 2011년 각 1회씩 온라인 75시간, 현장 교육 45시간으로 구성된 세종학당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2009년부터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 교수법 등 한국어 교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매년 20개국 내외 300여 명 참석) 한국어교원들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공공언어 개선 분야에서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국어문화학교 특별반을 연 2회씩

운영하였고 한글사랑지원단(2009년), 우리말 가꿈이(2010년~2011년) 등 민간단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공공언어 개선 토론회는 물론이고 방송 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사 공동 토론회를 연 1회씩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감수 지원(연평균 1,500건),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지원(연평균 66건) 등 공공 부문의 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무원 국어 사용 지침서, 차별적 표현 개선 안내서, 방송 언어 안내 지침, 신문 언어 안내 지침, 통신 언어 교육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부처별 국어책임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편리한 국어 사용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2011년에 복수 표준어 및 표기 관련 심의를 통하여 39개의 복수 표준어 및 표기를 추가·확정하였다. 2010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평가, 외래어 표기법 영향평가, 문장부호 규정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2011년에 표준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문 정책에 참고·반영하기 위한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2010년 월드컵 선수명 한글 표기 표준안 920여 개를 발표하는 등 시사·시의적 외래어 표기를 즉시 확정·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외래어 표기 용례 48,220건, 로마자 표기 용례 12,803건, 주요 어휘 용례 8,666건을 탑재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연평균 45,000여 건의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서의 언어생활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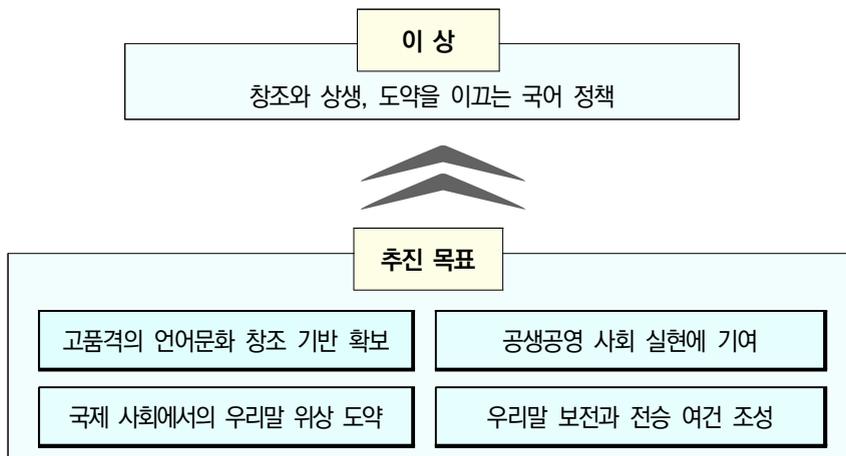
국민의 언어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인 국어사전 편찬 분야에서는 2008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개정하고 인터넷판을 개통하여 상시 현행화 환경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쉽고 체계적인 풀이와 현실 언어를 반영한 사용자 참여형 100만 항목의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10종을 편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 2010년 5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서 착공에 들어간 국립한글박물관 건립을 빼놓을 수 없다.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은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정책을 이상으로 삼아 고품격의 언어문화 창조 기반의 확보, 공생공영 사회 실현에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말 위상 도약, 우리말 보전과 전승 여건 조성 등을 추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되었다.



[그림 3-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5대 추진 과제'와 각 추진 과제별로 3개씩의 세부 과제가 설계되어 '15대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다.

〈표 3-3〉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5대 추진 과제	15대 세부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능력 향상	1-1 국민의 비르고 편안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1-2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2. 공생공영의 국어문화 확산	2-1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국어 정책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언어 소통의 방식이 다변화하고, 언어 사용의 주체도 다양해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정책 시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국어에 대한 국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국립한글박물관의 건립으로 국어 정책의 저변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3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도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를 추진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분야에서는 어문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놀잇감, 이쁘다, 실뭉치’ 등 30항목의 복수 표준어를 추가하였고, 2014년에 문장부호 규정을 개정하고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용례 7만여 개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창구를 다변화함으로써 상담 건수가 연평균 25%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상담 건수: 약 115,000건(2012년) → 약 247,000건(2016년)]

맞춤형 언어정책의 수립을 위해 표준발음법 영향평가(2012년), 제1차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2013년), 한글맞춤법 영향평가(2014년), 제3차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2015년), 한국어 발음 현황 조사(2016년)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언어·독서·화법·작문 등과 같은 실용 국어 분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국어문화학교를 확대 운영하였다. [※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42,243명(2012년) → 약 62,589명(2016년)]

둘째, 공생공영의 국어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두드러진다.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에 시행되었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점자법」은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이어서 2016년 9월 27일에 국립국어원에 특수 언어 사업을 전담하는 특수언어진흥과가 신설되어,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첫 해인 2017년부터 한국수어와 점자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기간에도 한국수어의 진흥을 위해서 농인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2년~2013년), 한국수어 전문용어 및 문화정보 구축(1,052건, 2015년~2016년), 『한국수어사전』 편찬(23,062항목, 2015년) 등을 추진하였고, 점자 사용의 촉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언어 사용 환경 실태 조사(2014년), 시각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2012년~2013년) 등을 추진하였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2013년),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2,200항목, 2015년~2016년), 제1차 남북 언어의식 조사(2016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249만 어절, 2015년~2016년) 등을 추진하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경우

남북 공동편찬회의는 거의 열리지 못했지만, 원고 집필 등은 꾸준히 진행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75%의 진척률을 보였다. 아울러 중국(2012년), 독립국가연합(2013년), 미국(2014년), 중남미(2015년), 일본(2016년) 등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도 조사하였다.

셋째, 공공언어 개선 분야에서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 기관과 교육 기관, 한글운동 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바른 언어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언어, 청소년 언어, 대중매체 언어 분야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보도자료 평가 및 우수 기관 표창(2014년~2020년), 공공기관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순회 강연(40개소), 신문 언어·재난 보도 언어·문화재 안내문 등 분야별 공공언어의 사용 길잡이를 제작·보급하였다. 아울러 국어책임관을 1,874명으로 확대하고, 국어 진흥 조례도 전국적으로 106건을 제정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하였다.

청소년 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외계어’와 비속어·축약어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15년부터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공모전·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국립국어원 안에 바른 우리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말 꿈터’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체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송언어 개선’ 사업을 통해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 개선안 마련, 연구 발표회 등을 실시하였다.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인터넷 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영상·만화영화 등 홍보물을 제작·방영하였고,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선플 캠페인’을 지원하였다.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부처에서 요청해 온 전문용어 표준안 10,122건을 검토·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별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고시한 표준안은 모두 454건에 이른다.[※ 표준안 고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312개(2013년), 산자부 90개(2015년), 미래부 52개(2015년)] 2015년 12월에는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공공용어 번역 통합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넷째, 한국어 보급 분야에서는 국외 한국어 보급을 선도하는 세종학당의 양적 성장과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첫해인 2012년 당시 43개국 90개소였던 세종학당은 2022년에는 84개국에 244개소로 증가하였다. 대륙별로도 아시아 139개소(30개국), 유럽 57개소(27개국), 아메리카 32개소(13개국), 아프리카 12개소(12개국), 오세아니아 4개소(2개국) 등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여 운영 중이다. 수강생도 28,793명에서 117,636명으로 308% 넘게 증가하여 국외 한국어 보급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강의 품질 개선,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세종학당 기본 교재인 『세종한국어 1~8』을 개발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의 기본 교재로 활용하고 있고, 2022년에는 국외 한국어 대표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기본 교재인 개정판 <세종한국어>를 새롭게 출판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초·중·고 수준별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2017년~2019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정확한 한국어』(2017~2018년), 한류 드라마를 활용한 『두근두근 한국어 1~4』(2012년~2015년)와 『씹씹 한국어 1~2』(2016~2017년) 등 학습자 유형과 교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였고, ‘누리-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어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원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는 세종학당 교원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기관 소속의 한국어교원이 참가하고 있어 연수 프로그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한국문화 체험 연수에는 참여자 수가 2012년 67명에서 2022년 19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하는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초청 연수)’는 매년 15여 개국에서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반대로 국외 한국어교원 연수를 위해 국내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에는 매년 10여 개국 20여 명이 파견되었다(코로나19 기간 제외).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는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는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 연수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등을 매년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 분야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과 『우리말샘』 개통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 둘은 국어 정책사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4년 한글날에 개관하였다. 2012년에 ‘한글박물관 종합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 개관 준비팀을 구성하였다. 2013년 4월 개관위원회 발족, 2013년 8월 박물관 준공을 거쳐 2014년 10월 9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이다. 개관 기념으로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를 시작으로 한글 편지, 소설, 정보화, 글꼴, 광고 등을 소재로 10차례의 기획 전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유아, 어린이, 초등학생 자녀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20여 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월인석보』와 『말모이 원고』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5,662점의 한글 자료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2016년 말까지 각종 연구, 전시, 교육 및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564,000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었다.

2016년 10월에 개통한 『우리말샘』은 사전 이용자가 사전 집필, 즉 표제어 등재와 뜻풀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항목에 실생활어 7만 5천 항목, 방언 9만 항목, 전문용어 35만 항목 등을 추가한 100만 항목 규모로 개통하였다. 기존의 국어사전은 발간 시점의 언어를 반영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말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므로 현실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지식의 총합으로써 국어사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말샘』 개통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어휘 5만 항목을 탑재한 『한국어기초사전』을 개통하였고, 이후 이 5만 항목을 10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프랑스어)로 대역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개통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는 국립국어원이 그동안 구축해 온 언어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한글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한글날에 즈음하여 광화문 일원에서 한글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을 장려하고자 세종문화상,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화상,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등을 지원하고 한글 산업화 공모전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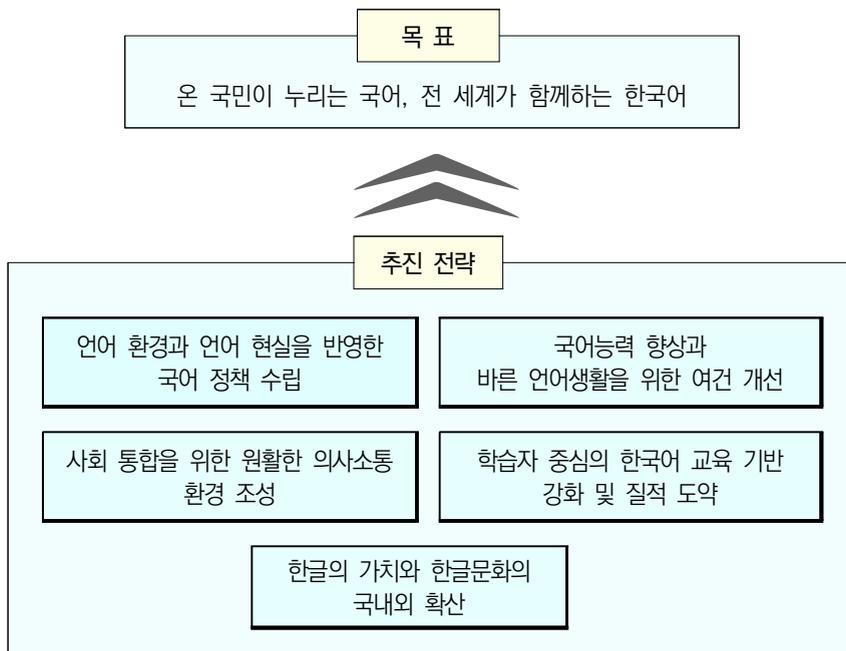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과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12년~2013년에 9개 권역 63개 지점의 구술 자료를 전사하였고, 어촌 지역 민족 생활어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2016년에는 9개 권역 35개 지점의 지역어를 보완 조사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지역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2014년까지는 매년 지역 언어문화 축제,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어와 지역 언어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절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우리나라 국어 사용 환경을 살펴보면 과도한 축약어 사용이나 외국어 및 외래어의 오·남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욕설과 혐오 표현 등으로 공공언어 환경이 악화되고, 말하기·글쓰기 등 국민의 국어능력 저하와 남북·계층·지역 간 언어 소통 단절 등 문제가 대두되어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외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년~2021년)은 온 국민이 누리는 국어, 전 세계가 함께하는 한국어를 목표로 삼아 5개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3]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대 추진 과제’와 각 추진 과제별로 4개씩의 실행 과제가 설계되어 ‘20대 실행 과제’로 이루어졌다.

〈표 3-4〉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5대 추진 과제	20대 실행 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1-1 어문규범 현실화 1-2 국어사전의 개방적 운영 및 활성화 1-3 언어 정보 자원 구축 및 활용 1-4 국어 기본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2.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2-1 공공언어 개선 활성화 2-2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2-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2-4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
3.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	3-1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3-2 특수 언어 환경 개선 및 보급 확대 3-3 언어 취약 계층 지원 3-4 사회·지역 방언 정보의 구축과 활용
4.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4-1 국외 한국어 보급 대표 기관으로 세종학당 육성 4-2 한국어 교육 체계화 및 기반 강화 4-3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 및 교원 연계망 구축 4-4 한국어교원 연수 과정 운영
5.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5-1 다양한 한글문화 자료의 수집 및 전시 5-2 한글문화 연구·교육 및 산업화 기반 구축 5-3 한글날 기념 및 한글문화 관련 포상 5-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기간(2017~2021) 동안 케이팝(K-Pop)을 필두로 한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함께 상승하고,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정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누리소통망의 발달로 정보 생산자가 다양해지고 정보가 단시간 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 다량의 외국어가 유입되었다. 급증하는 국내외 한국어 수요와 변화무쌍한 언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 등이 활발해졌고, 해외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새롭게 유입된 어려운 외국어를 신속하게 순화어로 대체하여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조성하고 「국어기본법」을 개정(2021.6.15)하여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에 한글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2018~2022)> 및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며 ‘한국수어의 날’ 및 ‘한글 점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특수 언어 진흥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를 추진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분야’에서는 어문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어 규범정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의성에 맞는 어문규범을 정비하고, 외국 주요 인명·지명의 한글 표기를 31,000건 이상 구축하고, 3,685건 배포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전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며 2차 계획 대비 상담건수*가 28% 증가하였다.

* 상담 건수: 859,698건(2012~2016) → 1,100,754건(2017~2021)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기반인 ‘4차 산업혁명 대비 말뭉치 구축’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를 통해 2021년 기준 21억 어절 규모(누적)의 말뭉치를 공개하였다.

둘째, ‘쉽고 바른 언어 환경 지원 분야’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2017년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의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업무가 강화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구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 협의회 등을 통해 5년간(2017~2021) 23,098건의 표준안을 검토·지원하였다. 2018년부터는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https://publang.korean.go.kr>’에 정책용어 상담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행정용어, 정책명, 보도자료 등의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였고, 어려운 외국어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말다듬기 위원회를 새말모임으로 개편하여 3차 계획 추진 기간 동안 총 285개의 다듬은 말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 용어 번역의 국가적 통일성을 위하여 2020년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발표하였으며, 2021년 7월 22일에는 한식 이름 등을 표기할 때 우리말 원음을 살려 번역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공공언어에서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쉽고 바른 언어로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1년부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시작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을 통해 5년간(2017~2021) 1,014개교에 강의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제2차 국어 능력 실태 조사(2018년) 및 202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등의 각종 국어 능력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22개소(2021년 기준)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국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셋째, 사회·문화적 언어 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을 기반으로 2017년 9월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및 2018년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여 한국수어와 점자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 12월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매년 2월 3일)’ 및 ‘한글 점자의 날(매년 11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또한 농인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발표, 코로나19 관련 발표 등 정부발표(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한민족 언어 통합을 위해 남북 교과 전문용어 통합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어 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832만 어절을 구축하고, 북한 자료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시범 구축하는 등 통일 대비 남북 언어통합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전국 155개 지점의 지역어를 바탕으로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누리집)’을 개통(2020년 2월)하는 등 지역어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한국어 확산 분야에서는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여 한국어 보급 및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처음 시작한 세종학당은 2020년 최초로 200개소를 돌파하였고, 2021년 12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에서 81,476명이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한국어 확산 증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9월 <한국어 확산 계획(2020~2022)>를 수립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확충 및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도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기존 10개어 한-외 학습사전 외에 한-중 학습사전을 추가로 구축하여 보급하였고(2020년 5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54호)’을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자료를 현지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 요구에 발맞춰 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 요구에 발맞춰 2020년부터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과 <사이버 한국어 중급>, <사이버 한국어 입문 및 심화과정> 등을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을 새롭게 구축하여 비대면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제3차 계획 기간 동안 각 해외 현지로 파견된 한국어교원은 95% 증가(2017년 119명→2021년 232명)하였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는 87% 증가(2017년 35,545명→‘21년 66,395명)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한국어교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연 1회)’ 및 지역별 워크숍(지역별 연 1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개선’ 및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한글문화 진흥 분야에서는 한글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글주간」을 통해 국내외 한글 관련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글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2020년에 국제학술대회인 ‘세계한국어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의 위상 강화와 가치를 확산하였다. 2021년에는 세계한국어 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언어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학술대회와 언어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한글·한국어 관련 학자, 교육자, 산업 관계자 간 교류망을 형성하고 국내외 한국어 발전 및 확산 성과를 공유하였다. 한글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한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지난 5년간(2017~2022) 총 63건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이중 총 13건은 상품으로 출시되어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기도 하였다.

* 2015~2022 공모전 수상작 총 75점 및 '20년 기준 22개 상품화

한글문화의 중심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를 국내외 확산, 공유하기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와 콘텐츠를 선보였다. 한글의 과거와 현재 등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콘텐츠를 통해 한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한글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문화·예술로서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전을 17회(2017~2021) 개최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현장 학습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글문화 콘텐츠를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운영함으로써 쌍방향 소통 교육을 실현하였다. 또한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를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온라인 세종학당에 게시하고, 재외동포재단 및 재외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에 한글 교육 영상과 교구재를 지원하여 세계 속에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2019년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10만 명, 1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 '17년 67만 명→'18년 69만 명→'19년 77만 명→'20년 10만 명→'21년 11만 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것도 3차 계획상 큰 성과이다. 국립세계문자 박물관은 소통, 포용, 통섭의 매개인 문자를 통해 국민의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 문자 사에서 한글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였다. 2017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11월 착공하였다. 2020년 10월 전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2월 전시·체험 설계를 완료하였다.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추진결과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18. 8월, 2019. 8월, 2020. 8월, 2021. 8월, 2022. 8월)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제5절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배경

○ 변화하는 언어 환경과 다양한 언어 현실에 대응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인공지능·비대면 관련 산업 발달로 언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국어 정책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중시한 규범성·표준성을 중심으로 추진돼왔고, 그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언어 현실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누리소통망의 발달로 언론, 방송 등 공공매체나 공공기관, 전문가 중심의 정보 생산에서 이제는 국민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새말, 개인어 등 사적 언어가 언론기사나 정책명 등 공공 영역으로까지 퍼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획일적인 언어 기준보다는 언어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폭넓게 반영하고, 동시에 원활하고 평등한 소통을 보장하는 국어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도록 어문규범을 정비·개선하여 어문규범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국어문화학교 운영 체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 국민이 언어를 바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세계화의 가속화로 물밀 듯 들어오는 외국어의 홍수 속에 공공기관의 외국어 및 외래어의 오·남용은 한글의 보전과 대중의 언어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량의 외국어 유입이 심화 되면서 새로 접하는 전문용어가 늘어났지만, 대중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이 막힘이 없이 편하게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주도하여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외국어 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공공매체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문용어 사용과 분별 있는 외래어 사용을 실천하는 것은, 언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언어파괴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도

세대 간 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쉽고 바른말 쓰기 문화 조성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공공언어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국어 감수·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언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문서 등 언어 사용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급증하는 국내외 한국어 수요에 맞추어 한국어의 위상 제고

한류 확산, 유학·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글·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간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종학당의 수를 점차 확대해왔으나, 디지털 시대에 교육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개별 수요 대응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류 확산 연계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개소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비대면 학습자를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양방향 수업 제공도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원의 확대와 교원 대상 전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어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체계적·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어 확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한국어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 국어와 한글 자원 수집·연구를 통한 우리 말과 글의 가치 창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대규모의 고품질 말뭉치에 대한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언어기술 선도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래전부터 상당량의 말뭉치를 구축해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의 우리말 말뭉치를 구축(2018년~)해 왔다.

그동안은 말뭉치 구축의 양적 확대에 집중한 반면, 분석 말뭉치·정제 말뭉치 등 기술

선도형 말뭉치의 구축은 아직 부족하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사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선도형 말뭉치의 구축은, 우리의 말과 글을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와 산업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자동번역, 사전 편찬,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말뭉치 구축의 질적 활용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언어능력 평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한국어 자원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비대면·비접촉 사회로 전환되면서 언어 소통 방식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 및 언어 사용에 취약한 장애인, 저소득층, 노령층, 이주민 등 언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어 소외계층의 디지털 언어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디지털 언어 능력의 증진을 위한 계층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고, 디지털 언어 사용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점자발전계획 수립 등 언어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언어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우리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어의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다. 지역 언어문화 저장소(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역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간 분단에 따른 남북 언어의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언어 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남북 언어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한글문화의 가치 확산과 한글 산업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채로운 한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한글 발전 기여자를 선정하여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류 확산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한글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한글을 신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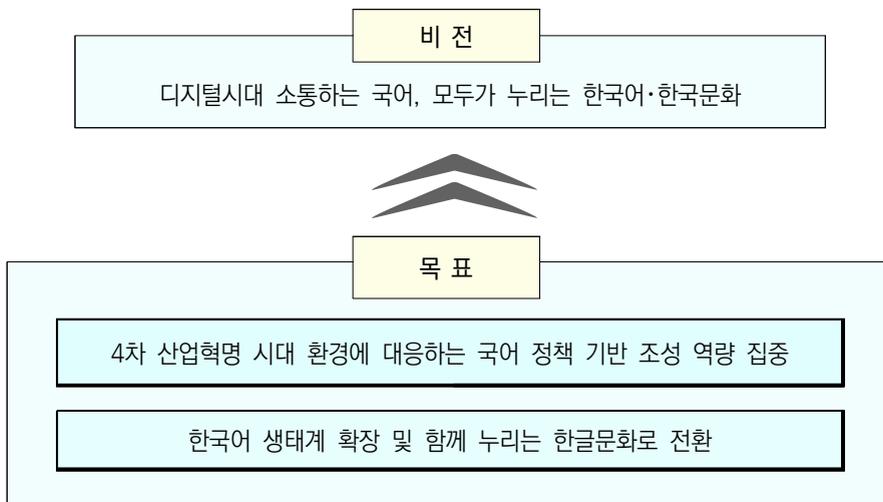
이에 따라 한글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다양한 한글문화 자원을 수집해왔으나, 중요 자료의 선별적 수집을 통해 전시·교육 등 소장품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의 한글문화 자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체험형 전시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양한 주제의 한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과 세계 문자의 가치 연구 기능을 선점하여 세계 언어·문자로 특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2.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22년~2026년)은 디지털시대 소통하는 국어, 모두가 누리는 한국어·한국문화를 비전으로 삼아 2개의 추진 목표로 구성되었다.



[그림 3-4]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대 추진 전략'과 각 추진 전략별로 3개씩의 추진 과제가 설계되어 '15대 추진 과제'로 이루어졌다.

〈표 3-5〉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5대 추진 전략	15대 추진 과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정책 기반 조성	1-1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 기반 구축 1-2 다양한 언어현실을 반영한 국어 정책 기반자료 구축 1-3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 기능 강화와 언어 자원 구축
2.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2-1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언어문화 기반 조성 2-2 공공언어 종합 평가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2-3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3.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3-1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3-2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3-3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4. 한국어 생태계 확장	4-1 한국어 교육기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4-2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 4-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5.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5-1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전시교육 강화 5-2 한글문화 산업 육성 5-3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기능 강화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2022년 국어 정책 시행 결과는 제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장 2023년 국어 정책 시행 결과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정책 기반 조성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제4장 2023년 국어 정책 시행 결과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정책 기반 조성

1.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 기반 구축

‘21세기 세종계획’(1998년~2007년) 이후 언어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언어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언어모델 개발의 기초 자원으로서 대규모 언어 자료인 말뭉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우리말 자료의 부족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한국어 서비스 수준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당시 공개된 국어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2억 어절에 불과했고,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자료는 소규모인 데다 저작권 문제 등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말뭉치가 민간에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국가 공공재로서의 국어 말뭉치 구축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인 대규모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첫해인 2018년에는 ‘국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현대 언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 문제를 감안한 구축 방안 마련과 적정 규모의 말뭉치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현대국어 문어 원시 말뭉치 2,650만 어절과 구어 원시 말뭉치 500만 어절 등 총 3,150만 어절을 구축하였다.

인공지능 언어처리 시스템의 개발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말뭉치의 분량이 많을수록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2억여 어절의 말뭉치에 더하여, 2019년에는 신문, 책, 보고서 등의 문어와 구어·준구어(일상 대화, 방송, 강연, 드라마 대본 등), 웹에서 사용된 다양한 언어 자료(메신저 대화, 누리소통망(SNS), 댓글, 블로그, 게시판의 글 등)를 한국어 원시 말뭉치 18억여 어절을 구축하였다. 이 원시 말뭉치는 분량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원문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말뭉치의 산업적 활용의 제약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억여 어절의 원시 말뭉치 외에도 형태, 어휘의미, 개체명, 상호참조 해결, 무형 대용어 복원, 구문, 의미역 분석 정보를 부착한 분석 말뭉치와 술어 격틀 정보, 문서 요약, 어휘 관계 자료, 문법성 판단 자료 등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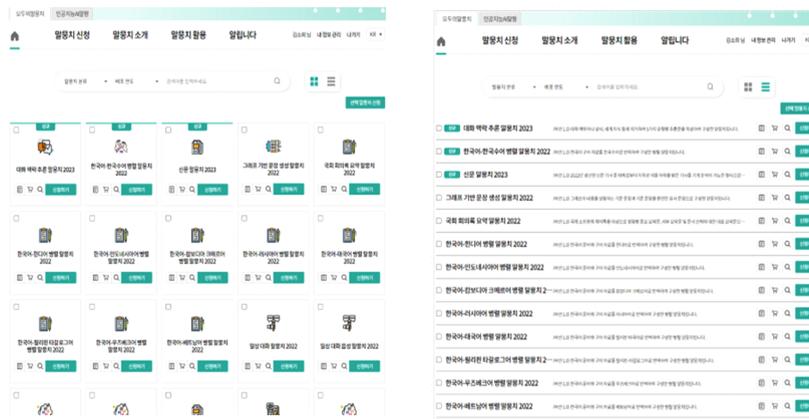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최신의 언어 자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와 일상 대화 원시 말뭉치를 매년 구축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말뭉치도 구축하여 공개하는 상시 구축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한국어 확산을 위해 한국어-외국어(베트남어, 태국어, 인도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말뭉치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언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신문 기사, 일상 대화 등 원시 말뭉치 2종, 언어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회의록 요약, 대화 요약, 합의 분석 등 분석 말뭉치 4종, 8개 언어에 각각 대응하는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8종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자료는 언어 연구 및 인공지능 한국어 처리 관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https://kli.korean.go.kr/corpus>)’를 통해 2018년부터 구축한 말뭉치 62종을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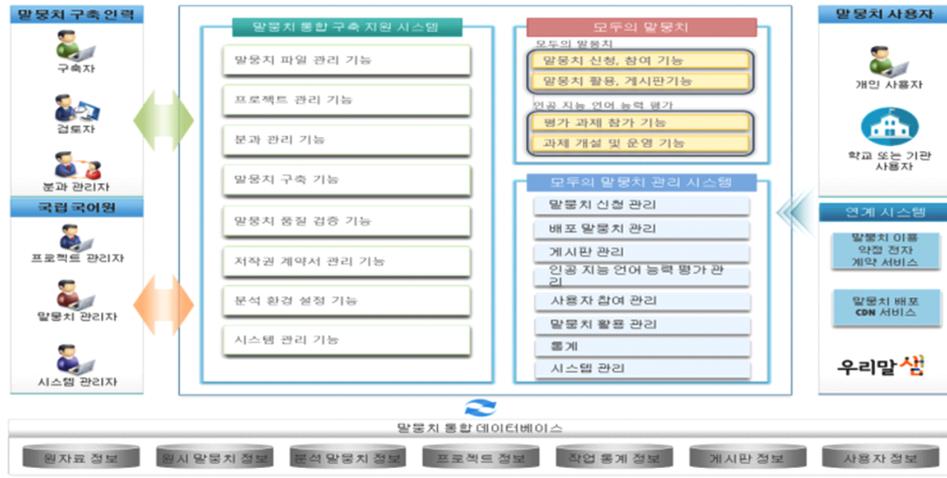
〈표 4-1〉 ‘모두의 말뭉치’ 공개 현황

연도	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원시	한국어 사용 현실 반영 말뭉치	4종	5종	
분석	언어 특성 정보 포함 말뭉치	7종	8종	6종	6종	28종
병렬	한국어-외국어 등 대응 말뭉치				16종	16종
합계		11종	13종	12종	25종	62종

말뭉치 등 국어 자원 구축 및 통합 관리, 유통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말뭉치 통합 시스템은 2018년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에 더하여 2019년에는 말뭉치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구축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말뭉치 배포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대량 말뭉치의 구축 관리, 배포, 유통 기능 등을 보완하였으며, 2022년에는 말뭉치 신청 기능 개선 등 말뭉치 배포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하였다. 2023년에는 시스템의 명칭을 ‘언어정보나눔터’로 개편하고 ‘모두의 말뭉치’, ‘인공지능(AI)말뭉’ 등 다양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였으며, 특히 약정서 관리 방식을 외부 위탁에서 직접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23년 말까지 ‘모두의 말뭉치’를 통해 총 28,098건의 말뭉치를 배포하였으며,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평가(8,128건), 인공지능 연구(5,178건), 언어 연구(11,050건)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림 4-1] ‘모두의 말뭉치’ 공개(2023. 12.)



[그림 4-2] 말뭉치 통합 시스템 개념도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사람과 유사하게 언어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경쟁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언어처리 연구자들은 미국의 글루(GLUE), 슈퍼글루(SuperGLUE) 등이 제공하는 공통된 과제를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인공지능 언어 모델(BERT, GPT-3 등)을 발전시켜 왔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민간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에 ‘2021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30개 팀이 참가하여 9개 팀이 수상하였다. ‘2022년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에서는 국립국어원이 구축하여 국내 최초로 공개한 ‘속성 기반 감성 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상품 후기에 나타나는 작성자의 긍정 또는 부정 판단을 탐지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총 7,468건의 출품작이 제출되었으며 7개 팀이 수상하였다. 2023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여 추론형 과제(감정 분석)와 함께 생성형 과제(이야기 완성)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생성 결과물을 전문가(사람)가 정성 평가하는 ‘인간 평가’ 단계를 도입하였다. 총 233개 팀이 참가하였고, 2,596건의 언어모델이 제출되었으며, 7개 팀이 수상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 평가 체계의 브랜드 명칭을 ‘인공지능(AI)말평’으로 정하고, 2023년부터 누리집을 시범 운영하였다.



[그림 4-3] 2022년, 2023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 포스터

한편, 지식을 표상하는 중요한 언어 자원 중 하나인 용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가·공공기관의 용어 자료를 모아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용어 정보를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 기술 등의 지식을 창출·공유·확산하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소통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020년에는 용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운 공공용어 분석 및 개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에는 용어 구축, 보급,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22년~2023년에는 용어 사용 추이 분석 시각화, 일치어 구축 작업 도구, 분야 분류 작업 도구 개발 등 고도화 사업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기술 표준원 표준용어, 법제처 법령용어, 한국정보통신협회 정보통신용어, 대한의사협회의학용어, 한국전력공사 전력용어 등 기관·단체별 용어를 이관·구축하여 2023년 12월 기준 총 50종 200만 건의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언어자원 표준화의 추진을 위해 문자코드 표준화 위원회(SC2) 및 국제한자특별위원회(IRG)의 일원으로 국내외 회의에 참여해 왔다. 한자특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하는 국제문자세트(Universal Character Set)에 포함될 통합 한자 코드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2023년에는 국제한자특별위원회에 한국 한자 306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수평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2. 다양한 언어 현실을 반영한 국어 정책 기반 자료 구축

변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일은 어문규범의 큰 과제이다.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와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언어 변화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 현실과 어문규범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현실과 어문규범의 차이를 검토하고 국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어 규범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운영하는 ‘국어규범정비위원회’를 2023년에는 7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였다. 2023년 7월 1차 회의에서는 동사로 등재된 ‘맞다’의 형용사 통용, ‘거시기하다’의 표준성 인정, ‘망치’의 표준성 결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12월 2차 회의에서는 ‘바라다’의 활용형 ‘바래’, ‘바램’ 등의 표준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시의성 있는 외국의 인명, 지명, 용어의 한글 표기 또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외래어 규범 표기의 기초 자료로서 주요 지명을 중심으로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6,172건을 구축하였으며,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통해 426건의 시의성 있는 외래어 표기를 배포하였다.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국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국어 사용 양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어기본법」 제9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기반한 국어 실태 조사 중에서 국어 의식 조사와 국어 능력 실태 조사는 전국 규모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국어 환경 및 사용 실태 조사는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세대, 성별, 지역, 계층에 따른 전국 규모의 국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조사의 규모와 방법, 분야 등 조사 내용을 체계화하고 전국 규모의 주기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어 사용을 관측함으로써 적절한 국어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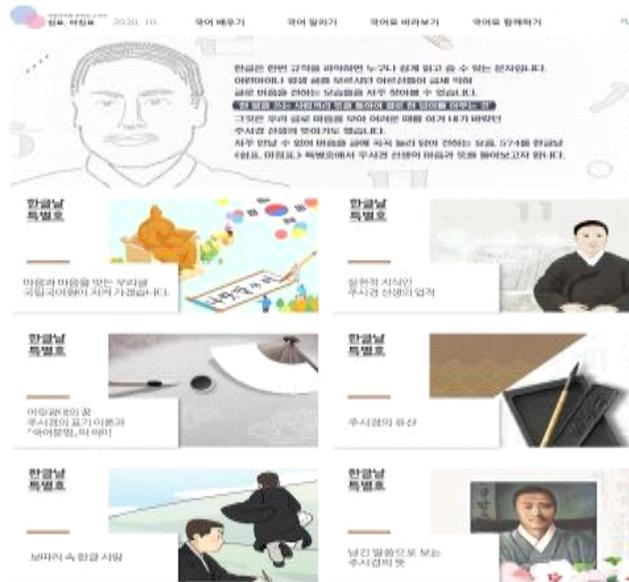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17개 시군)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조사 내용	발음 총 31문항
유효 표본	총 3,000 표본
표본 설계	1차: 전국 17개 시도를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제곱근 비례 배분 2차: 각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은 세부 층별 인구 수 기준 비례 배분
조사 방법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국어 정책의 객관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외의 국어 정책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구축하고 있다. 국어 정책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국어 정책 자료 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에는 ‘국어 정책 자료 시스템’을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로 개편하였으며 총 749건의 국어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4〉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누리집

이와 함께 국어 정책 및 바른 국어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를 연 24회(매월 2회) 발간하였고 새로운 소통 환경에 발맞추어 누리소통망 매체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국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그림 4-5] 『쉽표, 마침표.』

3.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 기능 강화와 언어자원 구축

2016년 10월 5일에 개정한,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은 국어 사용의 주체인 언어 대중이 직접 국어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개방형 국어대사전이다. 2009년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2009. 6. 24.)에 보고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개한 결과물이다. 일상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 115만여 개의 어휘를 수록하고 품사, 뜻풀이, 발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 더하여 어휘 역사 정보, 규범 정보, 수어 정보, 음성·사진·영상 정보, 어휘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언어문화 정보 집합체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4-6] 『우리말샘』 개통 당시 수록 규모 및 구성 내용

『우리말샘』은 국민의 생생한 언어생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용자 참여형 사전으로서 사전 이용자가 사전 집필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을 보완·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사전 이용자의 집필 참여 건수는 총 65,920건(연평균 약 55,800건)에 달하였고, 전문가 감수 건수는 14,221건이 이루어져 ‘전문가 감수 정보’라는 항목으로 반영되어 『우리말샘』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써 2016년 개통 당시 100만여 항목이었던 표제어 수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115만여 개로 증가하였다.

〈표 4-3〉 『우리말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반영 건수

(단위: 건)

구분	2016년 (10월 개통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인 등록 요청	3,006	7,467	36,162	56,619	79,941	70,301	85,705	65,920
전문가 감수 사전 반영	1,644	2,208	8,232	10,286	11,374	12,471	13,256	14,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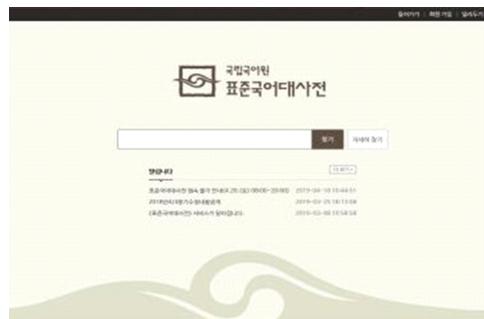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규범성과 현실성이 조화를 이룬 사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정비하여 언어생활의 준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전 표제어 정비를 위해 표제어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42만 개 표제어를 전수 검토하여 10만 여개를 제외 후보 표제어로 선별하는 한편 ‘반려견, 배꼽인사, 아웃렛’ 등 일상의 언어현실을 반영한 어휘 1,000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일관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해 형태·의미적 계열관계 어휘를 정비하고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어휘의 규범정보(1,500개)와 형태분석 정보(5,000개), 용례(5,000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사전 정비를 통해 규범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분기별로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정보를 수정·보완하였다. 2024년에는 뜻풀이·용례 수정 등 총 6,011건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였다.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말의 뿌리와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어원사전 편찬을 위해 국어 어휘역사 자료를 집대성하고 자료 검색기를 개발하여 사전 편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국어사 문헌자료 말뭉치 400만 어절 정비, 기구축 어원사전 10종, 학술논문 1,259편 등 어원 관련 참조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또한 2만 항목 규모의 어원사전 편찬을 위해 후보 어휘 2만 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4,000개 어휘의 어원정보를 집필하였다.



『우리말샘』 화면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그림 4-7]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1.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언어문화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부터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안녕! 우리말’을 추진하여 바른 언어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과 민간 중심의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15년 실태 조사에서 성인의 88%가 ‘우리 사회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92.1%가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 부문의 노력에 더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에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네이버 해피빈과 협력하여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언어 문제점 및 노력 방안, 무분별한 외래어 표기 실태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10만 8천여 명이 캠페인 페이지에 방문했으며 그중 1만 8백여 명이 댓글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림 4-8]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요’ 캠페인 이미지(네이버 해피빈)

또한 청소년이 언어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언어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다. 찾아가는 언어문화개선 문화예술공연사업 ‘안녕! 우리말’ 사업을 추진하였고(‘23년 5개 학교 대면 공연),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23년 250개 학교, 대면·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 배포)을 지원하여 쉽고 바른 우리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높였다. 또한 대학생 중심의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펼치는 ‘우리말 가꿈이’를 양성했다.(‘23년 631명)

어린이·청소년의 우리말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2016년 개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우리말 꿈터’ 체험 프로그램은 2023년 338회 운영, 5,332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개발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본격 운영으로 참여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4-4〉 최근 5년간 우리말 꿈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023년
참여 인원	2,865	1,340	3,723	4,592	5,332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초등용: ‘바르게 곱게 함께’, 중등용: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의 경우 2023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 보완하고 프로그램 2종(협오표현, 세대간 소통)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초·중교 80개교 2,4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4-5〉 2023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주요 내용(중등)

차시	수업 내용	주요 내용
1-2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 의식 인식하기 • 서열 의식에 담긴 문제점 이해하기 • 서열 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3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적 표현을 일상 대화 상황 속에서 찾기 •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점 이해하기 • 성차별적 표현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4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화와 태도 인식하기 •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기 • 부모님께 고마움과 사랑 표현하기
5-6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및 대화 상황 인식하기 •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해하기 •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언어 표현 사용하기
7-8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언어 활동의 파급력과 영향력 이해하기 • 댓글의 다양한 목적과 기능 인식하기 • 바람직한 온라인 언어 활동 실천하기
9-10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경청하기 •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기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말하기



[그림 4-9]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교재(초등, 중등)

한편, 2020년부터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을 전개하여 외국어 도입 초기에 신속하게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마련하였다. 대체어는 ‘새말모임(회의)’ 및 국민수용도 조사를 거쳐 2020년에 145개, 2021년에 71개, 2022년에 46개, 2023년에는 65개를 발표하였다.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17개)의 보도자료 및 언론사(30개)의 기사에서 외국어 사용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유도하였고, 신문·방송·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배포(1,810건)하여 쉬운 우리말 쓰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신문(세계일보, 2023. 6. 10)
〈우리말 화수분, 국제조직 로마자〉



방송(머니투데이, 23. 6.)
〈3D 자막뉴스-우리말 경제용어〉



유튜브(김한용의 모카, 23. 7. 29)
〈자동차입계 외국어 남용〉

[그림 4-10] 신문·방송·유튜브를 통한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

법무부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많은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2년에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외국인 보호규칙」,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등 32개의 부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등기특별회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비용법」 등 4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해 3월 28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제작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언어 사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들 대상으로 ‘방송언어가이드라인’ 및 ‘방송언어 조사 자료집’을 공유함으로써 바른 언어 사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말 확산에 기여한 방송프로그램인 ‘뉴스말모이’(YTN), ‘가나다 라디오’(경인방송), ‘KBS안동 한글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5부작 <여성과 한글 : 내방가사>(KBS안동-1R), ‘특집 <글로벌 우리말 겨루기> 4부작’(KBS-1TV)에 대해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시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달 5월과 한글날 10월에 방송언어 순화 자막 고지를 하는 등 올바른 방송언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 공공언어 종합 평가 및 전문용어 표준화

공공언어란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가리킨다. 「국어기본법」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언어에는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 비문법적인 표현, 장황하고 권위적인 표현 등이 다수 포함되어 국민과의 소통에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언어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들어 공공 부문의 언어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제도적 보완,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사업 내용 다각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공공언어 개선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22일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6년 769명이었던 국어책임관이 2023년 기준 2,317명으로 늘어났으며,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43개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114곳, 교육청 12곳)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7년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의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임무가 강화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구로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되었다. 이에 맞춰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운영 편차 문제 등 표준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 의한 전문용어 발굴을 유도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토 단계부터 실무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 합동의 다각화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의 재난 안전, 금융, 교육, 과학 기술 관련 전문용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총 256개의 표준안 목록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20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500부)를 발간하여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2021년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개 기관의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용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총 65개의 전문용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 병무청 2개 기관의 교통, 물류, 국방 관련 전문용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총 82개의 전문용어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전문용어를 발굴 분석하여 18개의 전문용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령 정보와 그간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포함하여 현행화한 『2023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를 전자 파일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표 4-6〉 2022년 전문용어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에서 마련한 표준안(일부)

부처	대상 용어	표준안
국토교통부	가공 [^] 전차선	공중 [^] 전선
	ATS	열차 [^] 자동 [^] 정지 [^] 장치
	역조작반	역 [^] 제어판
	역조작반	역 [^] 제어판
	조발	빠른 [^] 출발
	차장률	차 [^] 길이율
	콩코스	역내 [^] 광장
	팅레일	방향 [^] 전환 [^] 레일
병무청	국민개병주의	국민병역주의
	부책	참고 [^] 문서
	사위	거짓
	역종	병역 [^] 유형
	최기	가장 가까운
	인도 [^] 인접	입소 [^] 등록 [^] 절차

3.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국어능력은 의사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다. 국어능력이 부족하면 생각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는 소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개개인이 새로운 언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국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종합적인 국어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제5조, 제9조, 제23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해 5년 주기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13년(1차), 2018년(2차)에 이어 2023년에는 ‘제3차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조사는 3개년에 걸쳐 실시되며 그 첫 번째 해인 2023년에는 듣기, 말하기, 듣기·말하기 영역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연수 프로그램인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은 ‘종합과정’ 과 ‘기획과정’, ‘찾아가는 과정’,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과정’에서는 공무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어문규범, 공공언어, 언어생활 등 국어 전 분야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교육생 편의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3년 총 10회 962명이 수강하였다.

‘기획과정’은 ‘심화형 기획과정’과 ‘맞춤형 기획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심화형 기획과정’은 특정 분야(주제)에 대한 단기 심화 과정으로 현재 ‘공공언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하는 언어환경과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심화형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기획과정’은 공공환경에 영향력이 큰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2023년은 교사, 국어책임관,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과정’은 지역의 국어문화원과 연계하여 총 46명의 강사를 교육 신청 기관에 파견하였으며, 총 165회 10,989명이 강의를 수강하였다.

‘온라인 과정’은 2023년 8월에 학습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노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정비하고, 명사 특강으로 구성된 콘텐츠 등을 새롭게 개발 보급하여 온라인 과정 교육의 질과 양을 풍부하게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수요가 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표 4-7〉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19년~2023년)

구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종합/기획 과정	횟수(회)	27	17	26	60	53
	인원(명)	2,194	812	1,371	3,610	3,874
찾아가는 과정	횟수(회)	463	107	157	143	165
	인원(명)	35,839	6,771	8,587	11,845	10,989
온라인 과정	인원(명)	2,912	3,420	28,103	20,363	12,864
인원 총계(명)		40,945	11,003	38,061	35,818	27,727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국어를 사용하며 생겨나는 궁금한 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국어 생활을 돕기 위한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의 상담 건수는 총 178,181건이었으며, 상담 매체별로는 가나다전화 54,482건, 게시판(온라인가나다) 31,704건,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는 91,99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분야는 어문 규범과 국어 문법, 언어생활, 국어 교육, 사전, 국어 정책 등 다양한데, 한글 맞춤법 관련 문의와 국어의 형태론, 어휘 의미 등 국어 문법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상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상담원과 어문규범 및 사전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담원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4-8〉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건수(2018년~2023년)

구분(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화	91,920	76,744	70,228	59,139	54,437	54,482
게시판 (온라인가나다)	42,044	35,107	38,354	37,960	37,307	31,704
누리소통망	115,087	104,859	106,623	96,354	89,624	91,995
총계	249,051	216,710	215,205	193,453	181,368	178,181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1.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2016년 8월에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점자법」이 2017년 5월에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문자로서 공인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에 따라 한국수어와 점자의 원활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기초 자료 구축과 연구를 진행하며, 교육과 홍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 계획 수립과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 시행 이후 한국수어와 점자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농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2.7.5.일부개정, ’22.7.19.시행)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 재난, 감염병 예방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점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2.9.27.일부개정, ’23.3.28.시행)을 통해 기존의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점자 교육을 포함한 점자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확대하고, 점자 교육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점자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두 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어와 점자의 진흥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2022년에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2023년에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과 ‘2023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23.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회 한국수어의 날(2.3.) 및 한국수어 주간(1.30.~2.5.),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11.3.) 및 한글 점자 주간(10.30.~11.3.)을 운영하여 수어·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국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한국수어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교육원을 신규지정(23.4월)하였으며, 강원도 한국수어교육원, 경기도 한국수어교육원, 전라남도 한국수어교육원은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23.10월)하였으며, 한국수어교육원 총 6개소(강원, 경기, 전남, 충남, 광주, 세종)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대비 교육, 대상별 수어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애국가’ 및 ‘국기에 대한 맹세’의 의미를 살린 한국수어 표현 대표영상을 제작하였다.

점자 사용 촉진과 점자 출판 시설의 역량 강화, 점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점자 출판 시설(7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점역·교정사 양성 교육, 점자 출판 실무 교육, 점자 인식 개선 활동, 찾아가는 점자교육, 시각장애인의 언어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점자 자료(점자 홈트레이닝 카드, 라벨동화 도서, 지역 관광 정보 등 지역 특화 자료 등) 제작·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각장애 유·초등생의 점자 문해력 향상을 위한 촉각 낱말카드, 및 촉각점자일람표, 촉각 스티커 등 점자 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 규범 정비와 연구를 위해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분과별 점자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소위원회(한글 분과 4회, 수학·과학 분과 3회, 음악 분과 10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국외 점자 자료 중 스페인 점자 규정과 미국 점자 문서 편집 양식(Braille format) 번역본의 목차책을 발간하였다. 점자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점자 사용자의 점자 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점자 정보화 사업으로는 목자-점자 병렬 말뭉치를 구축(258.5만 어절)하고 온라인 점자 콘텐츠 등 점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을 운영하였다.



[그림 4-11]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대표 화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2023년 점자 사용자의 신청 및 장서 목록 선정을 통해 전자 점자도서(203책, 64,287면)와 전자 점자악보(47책/13편, 7000면)를 제작하였으며, 점자도서 473건과 점자악보 42건에 대한 출력 서비스, 점자라벨도서 출판 지원 및 보급(도서 40종, 16,000책)을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시각장애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점자 교과용도서의 보급(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용 1,510책, 5,847부) 및 EBS 수능 방송 교재, 참고서 등 대체 자료 제작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아울러, 수어 교사용지도서(초, 중등) 2책,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교사용지도서(초등) 1책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한국수어교원은 2018년에 농인 13명을 포함한 35명을 처음으로 배출한 이후, 2023년까지 565명이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9년에 시작된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2023년 '제5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89명이 응시하여 14명이 합격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 연구 기반의 확충을 위해 한국수어 문법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수어 음운·형태 분야를, 2020년에는 통사·의미 분야의 문법을 기술하였으며 2021년에는 각 분야의 기술 내용을 정비하여 발간 및 배포하였다.

한국수어 교육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과 한국수어사전 편찬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다. 2023년에는 충북지역의 언어제공자 32명을 대상으로 59시간 분량의 원시 말뭉치를 구축하고, 한국수어 말뭉치를 수어 연구와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공개할 수 있도록 6시간 분량의 말뭉치 자료를 정비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한국수어 정보화 사업으로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를 구축(100만 어절)하였다. 수어 사전과 관련하여 기존 《한국수어사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한국수어에 기반한 새로운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3년에는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의 수어 표제어 151개를 집필하고 기 구축 표제어 950개를 정비하였다.

한편 농인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코로나19 관련 발표 등 정부 발표(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였다(23년 연 436회). 현장 수어 통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보급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통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수어 통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림 4-12] 수어 통역 제공 화면

2.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지역어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언어문화와 지역민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며, 국어의 역사이자 현재의 국어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한 부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 매체의 발달, 표준어 보급 정책 등으로 지역어의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평소에 자신이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0년 47.5%에서 2020년에는 9.2%가 증가한 56.7%로 나타났다. 지역어의 마지막 사용처인 일상생활에서도 지역어의 사용 비중이 10년 사이에 9.2%나 축소된 것이다. 제주 지역어의 경우, 유네스코(UNESCO)가 지난 2011년에 소멸 직전 단계의 언어로 지정했을 정도이다.

지역어의 소멸은 그 언어 체계에 반영된 사고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어 사용 비중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우리 국민의 50.9%는 지역어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이므로 보호가 필요하고, 지역어 사용자의 정체성 및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 유지·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멸해 가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 단위의 지역어를 조사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지역어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을 개발하였다. 소멸 위기의 지역어 조사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어 조사가 불가능한 수도권 14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155개 지점(149개 시·군)의 지역어를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표 4-9〉 국내 지역어 조사 지점 현황(2004년~2020년, 총 155지점)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7)	용인시	삼척시	-	공주시	완주군	-	경주시	고성군	제주시 건입동
2005 (9)	화성시	원주시	제천시	대전시	남원시	곡성군	상주시	창원시	제주시 북제주군 한경면
2006 (9)	포천시	양양군	청원군 (현 청주시)	논산시	무주군	진도군	청송군	창녕군	서귀포시 호근동
2007 (9)	파주시	홍천군	충주시	서천군	군산시	영광군	고령군	산청군	서귀포시 표선면
2008 (9)	양평군	평창군	옥천군	예산군	고창군	보성군	청도군	남해군	제주시 구좌읍
2009 (9)	이천시	인제군	보은군	서산시	임실군	영암군	의성군	울산시	서귀포시 색달동
2010 (1)						신안군			
2011 (8)	강화군	정선군	영동군	천안시	-	광양시	봉화군	하동군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20)	-	철원군, 화천군, 강릉시	단양군, 괴산군	당진시, 보령시, 금산군	진안군, 부안군, 정읍시	강진군, 고흥군, 여수시	울진군, 김천시, 영천시	합천군, 함양군, 거제시	-
2016 (15)	-	고성군, 황성군	음성군	연기군 (세종시), 홍성군	익산시, 장수군	담양군, 구례군, 완도군	문경시, 안동시, 영덕군	밀양시, 통영시	-
2017 (10)		춘천시	진천군	부여군	김제시	무안군, 해남군	예천군, 포항시	사천시, 김해시	
2018 (10)	연천군	양구군	-	아산시	순창군	순천시, 장흥군	영양군, 군위군	거창시, 진주시	-
2019 (20)	가평군,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평택시	영월군		청양군, 태안군		광주광 역시,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구미시, 성주군, 영주시, 칠곡군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2020 (19)	서울특별시, 수원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 용인군 (인근지역)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증평군	계룡시	전주시	목포시, 함평군	경산시, 달성군 (대구 광역시), 울릉군	거창군 (부산 광역시)	

※ 2010년, 2012년, 2013년에는 기초사 자료를 전사하였음.

2021년에는 한국어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대별·지역별 변인에 따라 분화된 지역어를 조사하고 자료로 구축하는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첫째인 2021년에는 앞으로 5년간의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질문지,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조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질문지와 각종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점(9개도 각1지점+대도시 1지점)의 3세대(20대, 50대, 80대 이상) 제보자 총 30명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에 개발된 질문지와 지침서,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는 지역어의 변이와 변화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성별 변인을 추가하여 전국 9개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남녀 제보자 총 54명을 대상으로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도 계속해서 전국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4-10〉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조사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9지점(9개도 각 1지점) (강원 원주, 경기 수원·화성, 경남 울산·울주, 경북 안동, 전남 광주·광산,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충남 공주, 충북 충주)
조사 대상 (제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9지점*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남녀 총 54명 대상 • 조건: 해당 지역 3대 이상 거주, 토박이 화자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표현 500항목(사용도/인지도 조사) • 주제별 구술 발화: 2시간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어 음성 자료, 형태음소전사 자료, 지역어-표준어 대역 전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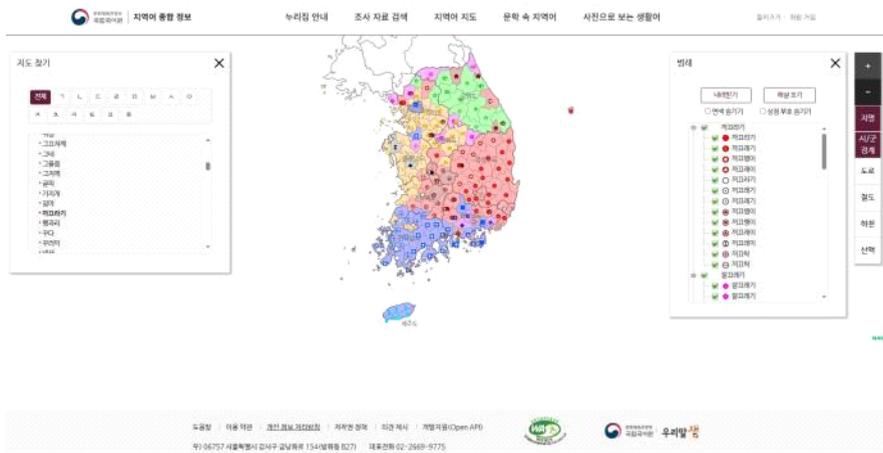
조사를 통해 축적한 지역어 정보는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지역어 약 23만 항목을 비롯한 각종 지역 언어문화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지역별 어휘 정보와 지역민의 이야기 자료, 전국의 지역어 지도 등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년 2월에 개통하였다.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에서는 지역어 어휘 찾기, 지역어 지도,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학 속 지역어,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등의 지역어 정보를 제공한다.

〈표 4-11〉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탑재 정보

구분	지역어 찾기	지역어 지도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학 속 지역어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내용	전국 155개 지점 지역어, 음성	지역어 지도, 해설	구술발화 지역어, 음성, 표준어역	문학작품 속 지역어, 예문	지역어, 사진
항목 수	231,759항목	155장	100시간	1,855항목 (예문 4,708개)	2,868항목 (사진 4,067장)

‘조사 자료 검색’의 ‘어휘 조사 자료’에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155지점(149개 시군)의 지역어와 음성 파일 약 23만 건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이 지역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구술발화 조사 자료’에서는 전국 9개도 지역어 화자의 구술 발화 음성(약 100시간)과 지역어, 대응 표준어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어로 표현되는 지역의 언어문화를 공유한다. ‘문학

속 지역어’에서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지역어 1,855항목과 작품 속 예문 4,708개를 제공한다.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에서는 46종의 전통적인 직업에서 사용하는 민족생활어 2,868항목과 관련된 사진 4,067장을 제공한다. ‘지역어 지도’에서는 특정 어휘의 전국적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어 지도 155장과 전문가 해설을 제시하고, 일반 국민도 자신이 사용하는 지역의 방언으로 지역어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 작성 도구를 지원한다.



[그림 4-13] ‘까끄라기’에 대한 지역어 지도

3.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그러나 남북 언어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남북 간 소통과 이해를 앞당기는 일이므로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마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3개 분야의 전문용어 10,249항목을 비교·분석하여 3,824항목의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2020년 그동안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를 비교·대조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 기준(문법성, 윤라·미학적성,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을 보완하고, 기준별 우선 적용 순서를 정하는 등 ‘남북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정비하였다.

〈표 4-12〉 2015년~2022년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연도	분야	검토 개수	통합안 개수
2015	수학	352	146
	과학(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1135	249
2016	체육	1,173	935
	수학	483	265
	과학(물리, 생물)	548	215
2017	국어(문법, 문학, 기능교육)	2,200	801
2018	역사	2,049	363
2019	음악	1,124	200
	미술	476	131
2022	정보통신기술	709	519
합계	13개 분야	10,249	3,824

또한 남북 언어 통합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북한어 말뭉치 구축 사업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93만 어절(문어 40만 어절, 구어 53만 어절)을 구축하여서 지금까지 834만여 어절을 구축하였다.

〈표 4-13〉 북한어 균형 말뭉치 구축 현황

(단위: 어절)

연도	문어		구어		합계
	원시	분석	원시	분석	
2015년	312,961	54,117	100,076	10,105	477,259
2016년	1,002,061	627,529	301,218	100,590	2,031,398
2017년	1,004,284	501,478	301,222	100,711	1,907,695
2018년	1,000,000	500,000	100,000	100,000	1,700,000
2019년	800,000	300,000	100,000	100,000	1,300,000
2020년	200,000	200,000	330,000	200,000	930,000
합계	4,319,306	2,183,124	1,232,516	611,406	8,346,352

2021년 이후에는 그동안 구축한 북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2021년 북한 언어 자료 구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기구축한 북한어 말뭉치를 검토,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북한어 정보를 보완, 정비하였다. (2022년 1,965개 북한어 어휘 용례 구축, 2023년 북한어 3,716개 집필)

한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제25차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이후 회의가 중단된 동안에도 남북 간 합의 사항을 토대로 꾸준히 편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 3월에 30만 7천 개의 올림말, 1만 5천여 개의 관용구와 속담, 1만 1천여 점의 삽화가 수록된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가제본 원고 교열과 남북 간 미결 과제 점검 등을 진행하여 남북공동 편찬회의 재개를 준비하였다. 또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2022년부터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신규 올림말 채집(해외 지역어 포함), 목록 정비 등을 진행하였다.

2023년에는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에 수록된 지역어를 전자사전용 원고로 정비하여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발간하여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무상 배포하였고 일반 국민에게 남북한 언어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1. 한국어 교육기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초창기 한국어 보급은 드라마, 대중가요 등 대중 예술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의 수도 크게 늘고, 그만큼 학습 동기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한국어 보급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함께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보급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비해 한국어 교육 콘텐츠는 늘어난 수요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전략이라면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개발된 교육자료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기준으로 참고할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2022년에는 2020년, 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10여 년에 걸쳐 연구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2010~2011, 2016~2017)’과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철학을 제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54호, 2020. 11. 27.)’ 활용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현장에 실질적인 자문과 감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교육과정 기반의 인도 중·고등학교(9~12학년)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고, 이 외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튀르키예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인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Liseler için KORECE)>를 교사용 지침서와 함께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개발하였다. 이 교재는 현지 고등학생 및 한국어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2016년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과정의 교재를 전담하여 개발해 오고 있다. 2022년에는 국외 한국어 대표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기본 교재인 개정판 <세종한국어>를 새롭게 출판하였다. 2021년까지의 개정판 <세종한국어>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용 표준 교육과정(초급 2단계, 중급 2단계)에 맞춘, 단계별 교육 자료(기본 교재, 더하기 활동 교재,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용 익힘책, 어휘·문법·표현 자료집) 형태로 구성, 개발하였다. 다양한 세종학당의 운영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개정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교원 및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에 탑재하여 보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K 티처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신규로 탑재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4-14]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용 웹사전인 『한국어 기초사전』과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의 11개어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이하 『한-외 학습사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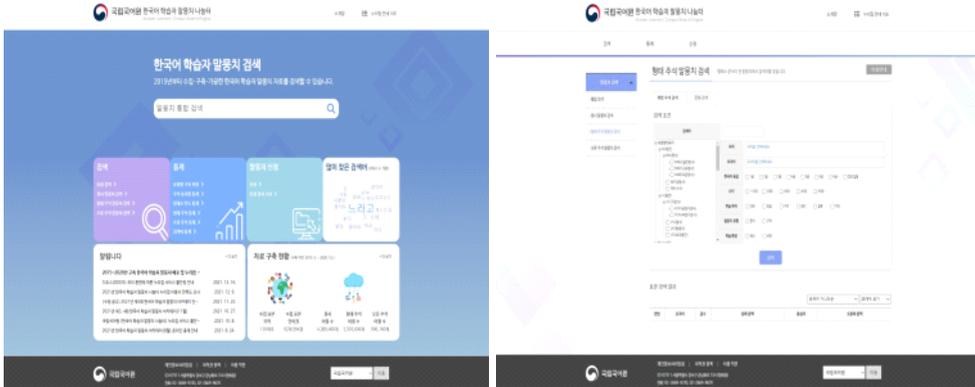
운영·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에 접수된 사용자 의견 42건을 검토하고, 뜻풀이 및 대역 정보 등 총 436을 수정·보완하였으며, 11개어의 신규 표제어 대역 347건(총 4,114건)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학습 현장의 과학화를 위해 2015년부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용 어휘 및 문법 항목의 등급화와 과학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평가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 과정에 대한 실제적 관찰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어 교육 연구 및 정책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2021년에는 언어권별수준별자료 유형별 ‘균형성’을 확보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총 1,000만 어절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수준 대규모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제2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5개년의 구축 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표 4-1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계획(2021~2025)

구분	기초 연구	구축 1단계		구축 2단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동 구축	대규모 구축(국내 + 이주민 + 국외)				
기획 구축	대상의 초점화 (학문 목적 학습자)				
		언어권별 균형성 확보 (5개 주요 언어권)			
				매체·장르의 초점화 (비디오 말뭉치)	

또한 2020년까지 1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6개년 동안 총 440만 어절의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 공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습자 말뭉치 333만 어절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3만 어절을 누적 구축하였다. 구축된 말뭉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s://kcorpus.korea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내려받을 수 있다.



[그림 4-1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2.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2에 근거하여 지난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이 국외 한국어 보급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파견 지원,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지정되며, 운영 평가 결과가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될 수 있다.

〈표 4-15〉 세종학당 지정 절차 및 일정

①	지정신청 안내, 공고 (전년도 11월)	◦ 재단 홈페이지(www.ksif.or.kr), 재외공관을 통해 공고
②	지원 신청서 접수 (전년도 11월~1월)	◦ 신규 세종학당 온라인 신청 시스템(nbms.ksif.or.kr)내 입력 및 제출
③	공관 의견 조회 (2월)	◦ 신청 기관 지역 재외공관으로 의견 조사 협조 요청
④	1차 서류 심사 (3월)	◦ 공관 의견 및 1차 서류 심사를 통한 예비 후보 선정
⑤	현지 실사 (4월~5월)	◦ 예비 후보 기관 대상 현지 실사 실시
⑥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6월)	◦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심사 및 선정
⑦	업무위탁계약 체결 (6월~7월)	◦ 재단과 신규 지정 기관 간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⑧	시범운영 (7월~12월)	◦ 6개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식 계약 여부 결정

2023년 세종학당은 전 세계 85개국에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일반 세종학당 184개, 문화원 세종학당 33개, 교육원 세종학당 31개). 2023년에 신규로 지정된 세종학당은 미지정 국가 7개국*을 포함한 17개국 20개소이다.

* 미지정국가 7개국: 동티모르, 말라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코트디부아르, 페루

〈표 4-16〉 연도별 세종학당 지정 증가율(2023년 기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종학당 수	52개국 120개소	54개국 130개소	54개국 138개소	58개국 174개소	54개국 171개소	56개국 172개소	60개국 180개소	76개국 213개소	82개국 234개소	84개국 244개소	85개국 248개소
전년 대비 증가율	33.3%	8.3%	6.2%	26.1%	△1.2%	0.6%	4.7%	18.3%	9.9%	4.3%	1.6%

대륙별로는 아시아 28개국 139개소, 유럽 28개국 57개소, 미주 14개국 34개소, 아프리카 13개국 14개소, 오세아니아 2개국 4개소이다.

〈표 4-17〉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2023년 기준)

대륙	일반 세종학당(수)	소계 (187개)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33개)	교육원 세종학당(수)	소계 (31개)	합계 (248개)
아시아	대한민국(1), 라오스(2), 말레이시아(3), 몽골(4), 미얀마(1), 바레인(1), 방글라데시(2), 베트남(21), 사우디아라비아(1), 아랍에미리트(3), 아제르바이잔(2), 요르단(1), 우즈베키스탄(6), 이란(2), 인도(6), 인도네시아(10), 중국(18), 카자흐스탄(1), 캄보디아(5), 쿠웨이트(1), 키르기스스탄(4), 타지키스탄(2), 태국(3), 투르크메니스탄(1), 파키스탄(1), 팔레스타인(1), 필리핀(5)	108	베트남(1), 아랍에미리트(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3), 카자흐스탄(1), 태국(1), 필리핀(1)	12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일본(14),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1), 태국(1)	19	139개소 (28개국)
유럽	덴마크(1), 독일(2), 라트비아(1), 러시아(6), 루마니아(1), 룩셈부르크(1), 리투아니아(2), 벨기에(1), 불가리아(1), 세르비아(1), 스웨덴(1), 스페인(2), 슬로바키아(1), 슬로베니아(1), 아이슬란드(1), 에스토니아(1), 영국(2), 우크라이나(1), 체코(1), 크로아티아(2), 튀르키예(3), 포르투갈(1), 폴란드(1), 프랑스(3), 핀란드(1), 헝가리(2)	41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페인(1), 영국(1), 오스트리아(1), 이탈리아(1), 튀르키예(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11	러시아(4), 영국(1)	5	57개소 (28개국)
아메리카	멕시코(1), 미국(9), 볼리비아(1), 브라질(3), 아이티(1), 에콰도르(1), 엘살바도르(1), 우루과이(1), 칠레(1), 캐나다(2), 콜롬비아(1), 페루(1)	23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캐나다(1)	6	미국(3), 브라질(1), 파라과이(1)	5	34개소 (14개국)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1), 말라위(1), 모로코(2), 보츠와나(1), 에스와티니(1), 우간다(1), 케냐(1), 코트디부아르(1), 탄자니아(1), 튀니지(1)	11	나이지리아(1), 남아프리카공화국(1), 이집트(1)	3	-	-	14개소 (13개국)
오세아니아	호주(1)	1	호주(1)	1	뉴질랜드(1), 호주(1)	2	4개소 (2개국)

2023년 기준 국가별 세종학당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8〉 국가별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2023년)

① 일반 세종학당-아시아(27개국 108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대한민국	서울 세종학당	아동권리보장원-세종학당재단
2	라오스	비엔티안 세종학당	라오스국립대학교-상명대학교
3	라오스	폰사반 세종학당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4	말레이시아	말라카 세종학당	멀티미디어대학교
5	말레이시아	방이 세종학당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종학당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코리아플라자
7	몽골	다르한 세종학당	몽골국립생명과학대학교-한국공학대학교
8	몽골	울란바토르1 세종학당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9	몽골	울란바토르2 세종학당	몽골국립대학교-공주대학교
10	몽골	울란바토르4 세종학당	후레정보통신대학교
11	미얀마	양곤 세종학당	양곤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12	바레인	마나마 세종학당	국립바레인대학교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
13	방글라데시	다카1 세종학당	미국국제대학교(방글라데시) -서정대학교
14	방글라데시	다카2 세종학당	방글라데시독립대학교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
15	베트남	견터1 세종학당	견터대학교-경상대학교
16	베트남	꾸이년 세종학당	용산구청
17	베트남	다낭 세종학당	다낭외국어대학교
18	베트남	달랏 세종학당	달랏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
19	베트남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20	베트남	비엔호아 세종학당	락흥대학교
21	베트남	빈 세종학당	빈대학교-군장대학교
22	베트남	빈즈엉 세종학당	빈즈엉대학교-조선대학교
23	베트남	웅비 세종학당	하롱대학교-평택대학교
24	베트남	짜빈 세종학당	짜빈대학교-서정대학교
25	베트남	타이응우옌 세종학당	두선 베트남
26	베트남	하노이1 세종학당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27	베트남	하노이2 세종학당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28	베트남	하노이3 세종학당	KAS E&C CO., LTD(VIETNAM)
29	베트남	하이퐁 세종학당	하이퐁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30	베트남	호찌민2 세종학당	호찌민사범교육대학교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31	베트남	호찌민3 세종학당	호찌민산업대학교-경운대학교
32	베트남	호찌민5 세종학당	호찌민시산업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33	베트남	호찌민6 세종학당	베트남호찌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34	베트남	후에 세종학당	후에대학교-(사)BBB코리아
35	베트남	흥옌 세종학당	흥옌커뮤니티컬리지-경성대학교
36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세종학당	프린스술탄대학교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
3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종학당	재아랍에미리트연합국한인회
38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세종학당	샤르자대학교-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39	아랍에미리트	아즈만 세종학당	아즈만대학교-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40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종학당	바쿠국립대학교-경운대학교
41	아제르바이잔	흐르달란 세종학당	바쿠공과대학교-인하대학교
42	요르단	암만 세종학당	요르단대학교-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
43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세종학당	코리아베스트아카데미 (Korea Best Academy)
44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세종학당	사마르칸트경제대학교-우석대학교
45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세종학당	안디잔국립외국어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
4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세종학당	타슈켄트세종한글학교-순천향대학교
4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2 세종학당	타슈켄트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
48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세종학당	페르가나한국국제대학교-선문대학교
49	이란	이스파한 세종학당	이스파한대학교-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50	이란	테헤란 세종학당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51	인도	바라샤트 세종학당	웨스트벵골주립대학교-안양대학교
52	인도	임팔 세종학당	인도 디엠(DM) 대학교 -주인도한국문화원
53	인도	첸나이1 세종학당	인코센터-상명대학교
54	인도	첸나이2 세종학당	힌두스탄과학기술대학교 -주인도한국문화원
55	인도	파트나 세종학당	인도에이엔대학 -주인도한국문화원
56	인도	푸네 세종학당	유스빌드재단의 인도한국센터
57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세종학당	부툽무함마디아대학교-원암문화재단
58	인도네시아	반다야체 세종학당	시아쿠알라대학교-열방대학 선교훈련원
59	인도네시아	반둥1 세종학당	인도네시아컴퓨터대학교 -와이즈유(영산대학교)
60	인도네시아	반둥2 세종학당	텔콤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61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페트라크리스천대학교-동서대학교
62	인도네시아	암본 세종학당	암본국립기독교대학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63	인도네시아	육야카르타 세종학당	가자마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6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6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종학당	DCU 인도네시아 센터, SEAMOLEC -대구가톨릭대학교
66	인도네시아	탕으랑 세종학당	야야산 이페카(Yayasan IPEKA) -한동대학교
67	중국	가오슝 세종학당	고웅시한인회
68	중국	린이 세종학당	린이대학교-강남대학교
69	중국	스자좡 세종학당	허베이과기대학-성신여자대학교
70	중국	시안 세종학당	시안외국어대학교 아세안-아프리카대학
71	중국	신베이 세종학당	성오과학기술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72	중국	옌뎬2 세종학당	옌뎬대학교
73	중국	옌청 세종학당	염성사범대학교
74	중국	옌타이 세종학당	루퉁대학교-남부대학교
75	중국	우한 세종학당	화중사범대학교
76	중국	청두 세종학당	쓰촨사범대학교
77	중국	칭다오1 세종학당	중국해양대학교
78	중국	칭다오2 세종학당	청도빈해대학교
79	중국	쿤밍 세종학당	윈난남방청년진수학원-선문대학교
80	중국	타이난 세종학당	쿤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81	중국	타이베이 세종학당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코리아플라자
82	중국	타이중 세종학당	정의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83	중국	하얼빈 세종학당	하얼빈사범대학교
84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	물산중대국제학교-호남대학교
85	카자흐스탄	심켄트 세종학당	남카작대학교-상명대학교
86	캄보디아	스렁 세종학당	이화스렁학교
87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세종학당	희망의 노래 어학센터
88	캄보디아	포이펏 세종학당	사랑의 기적-엘 미라클
89	캄보디아	프놈펜 세종학당	왕립농업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90	캄보디아	프놈펜2 세종학당	프놈펜국제예술대학교
91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세종학당	쿠웨이트대학교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
92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세종학당	국립아라바예바대학교 -경운대학교
93	키르기스스탄	소쿨루크 세종학당	키르기스국제대학교
94	키르기스스탄	오시1 세종학당	오시기술대학교-호남대학교
95	키르기스스탄	오시2 세종학당	오시국립대학교-광주대학교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96	타지키스탄	두산베1 세종학당	타지키스탄국립외국어대학교 -계명대학교
97	타지키스탄	두산베3 세종학당	타지키스탄기술대학교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
98	태국	마하사라캄 세종학당	마하사라캄대학교-상명대학교
99	태국	방콕 세종학당	까셈반딧대학교
100	태국	치앙마이 세종학당	치앙마이대학교
101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세종학당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학교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102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종학당	파키스탄국립외국어대학교
103	팔레스타인	라말라 세종학당	주팔레스타인대한민국대표사무소
104	필리핀	까인따 세종학당	쉐마지도자훈련원
105	필리핀	발랑가시티 세종학당	바탄페닌술라주립대학교
106	필리핀	산후안 세종학당	홍천군청
107	필리핀	세부 세종학당	원광글로벌교육센터
108	필리핀	케손시티 세종학당	UST안젤리컴대학-서울과학기술대학교

② 일반 세종학당-유럽(26개국 41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덴마크	코펜하겐 세종학당	코레안스크 쿨투르 센터
2	독일	뉘르츠부르크 세종학당	뉘르츠부르크대학교
3	독일	튀빙겐 세종학당	튀빙겐 에버하르트 칼스대학교
4	라트비아	리가 세종학당	리가공과대학교
5	러시아	모스크바1 세종학당	모스크바 원광교육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6	러시아	모스크바2 세종학당	국립연구대학 고등경제대학교 -경희대학교
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종학당	상트 한국문화센터
8	러시아	아스트라한 세종학당	아스트라한국립대학교-동서대학교
9	러시아	야쿠츠크 세종학당	북동연방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0	러시아	울란우데 세종학당	부랴트국립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11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세종학당	디미트리에 칸테미르 크리스천 대학교
12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세종학당	룩셈부르크 한국 문화의 집
13	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동서대학교
14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세종학당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인하대학교
15	벨기에	브뤼셀 세종학당	벨기에 한국문화교육협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6	불가리아	소피아 세종학당	소피아대학교 -주불가리아대한민국대사관
17	세르비아	노비사드 세종학당	노비사드대학교 철학대학
18	스웨덴	예테보리 세종학당	예테보리 한국문화센터
19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종학당	라스팔마스대학교
20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바르셀로나국립대학교
21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세종학당	코메니우스대학교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22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세종학당	류블랴나대학교 인문대학
23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세종학당	아이슬란드대학교
24	에스토니아	탈린 세종학당	탈린대학교
25	영국	런던 세종학당	리치먼드대학교
26	영국	프레스턴 세종학당	센트럴 랭커셔 대학
27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세종학당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인하대학교
28	체코	올로모우츠 세종학당	팔라츠키대학교-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29	크로아티아	리예카 세종학당	리예카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30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세종학당	자그레브대학교-중앙대학교
31	튀르키예	앙카라 세종학당	앙카라대학교 예니셰히르 투메르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32	튀르키예	이스탄불 세종학당	이스탄불대학교-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33	튀르키예	이즈밀 세종학당	앙카라대학교 이즈밀 투메르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34	포르투갈	리스본 세종학당	신리스본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5	폴란드	포즈난 세종학당	아담 미츠키에비츠대학교
36	프랑스	라로셀 세종학당	라로셀대학교-경희대학교
37	프랑스	캥페르 세종학당	이엠비에이(EMBA) 대학
38	프랑스	프랑스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39	핀란드	탐페레 세종학당	빔아트예술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
40	헝가리	데브레첸 세종학당	데브레첸 여름대학교
41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	외트뢰시 로란드 대학교

③ 일반 세종학당-아메리카(12개국 23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멕시코	케레타로 세종학당	케레타로공과대학교
2	미국	미국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3	미국	블루밍턴 세종학당	인디애나대학교
4	미국	샌안토니오 세종학당	세인트 메리 대학교-동서대학교
5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종학당	코리안센터
6	미국	어바인 세종학당	오렌지카운티 한미문화센터
7	미국	업랜드 세종학당	테일러대학교-한동대학교
8	미국	오그덴 세종학당	웹버주립대학교
9	미국	오번 세종학당	오번대학교-계명대학교
10	미국	웬츠빌 세종학당	미드웨스트대학교
11	볼리비아	라파스 세종학당	아야쿠초기술대학-원암문화재단
12	브라질	브라질리아 세종학당	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13	브라질	상레오폴두 세종학당	유니시노스대학교-배재대학교
14	브라질	캄피나스 세종학당	캄피나스주립대학교
15	아이티	카라콜 세종학당	(주)글로벌세아
16	에콰도르	키토 세종학당	국립에콰도르센트럴대학교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17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세종학당	엘살바도르기술대학교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18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세종학당	오르트대학교
19	칠레	산티아고 세종학당	칠레센트럴대학교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20	캐나다	몬트리올 세종학당	퀘백한민족재단
21	캐나다	워털루 세종학당	워털루대학교 레니스컬리지
22	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	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재단
23	페루	리마 세종학당	산마르코스국립대학교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④ 일반 세종학당-아프리카(10개국 11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세종학당	안타나리보 국립대학교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2	말라위	릴롱게 세종학당	대양대학교
3	모로코	라바트 세종학당	마루문화원
4	모로코	페스 세종학당	아리랑
5	보츠와나	가보로네 세종학당	보츠와나국립대학교 -주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문화원
6	에스와티니	음바바네 세종학당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교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7	우간다	쿠미 세종학당	쿠미대학교
8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	케냐타대학교 -주케냐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세종학당	한-코트디부아르 스포츠, 문화, ICT협력센터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10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11	튀니지	튀니스 세종학당	알리 발후안 문화 클럽

⑤ 일반 세종학당-오세아니아(1개국 1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호주	애들레이드	남호주대학교 - 주시드니한국문화원

⑥ 문화원 세종학당(29개국 33개소)

연번	대륙	국가	개수
1	아시아	베트남	1
2		아랍에미리트	1
3		인도	1
4		인도네시아	1
5		일본	2
6		중국	3
7		카자흐스탄	1
8		태국	1
9		필리핀	1
10	유럽	독일	1
11		러시아	1
12		벨기에	1
13		스페인	1
14		영국	1
15		오스트리아	1
16		이탈리아	1
17		튀르키예	1
18		폴란드	1
19		프랑스	1
20		헝가리	1

연번	대륙	국가	개수
21	아메리카	멕시코	1
22		미국	2
23		브라질	1
24		아르헨티나	1
25		캐나다	1
26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27		남아프리카공화국	1
28		이집트	1
29	오세아니아	호주	1

⑦ 교육원 세종학당(13개국 31개소)

연번	대륙	국가	개수
1	아시아	베트남	1
2		우즈베키스탄	1
3		일본	14
4		카자흐스탄	1
5		키르기스스탄	1
6		태국	1
7	유럽	러시아	4
8		영국	1
9	미주	미국	3
10		브라질	1
11		파라과이	1
12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
13		호주	1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한국어 전문 교원을 세종학당에 파견하여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63개국 131개소에 265명의 교원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전 국내 교육으로 현지 적응 능력을 높이고 파견 후에는 재교육을 통해 교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9〉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인력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파견인원	24명	39명	50명	90명	119명	125명	140명	180명	232명	270명	265명
파견기관	15개국 22개소	17개국 32개소	22개국 36개소	31개국 65개소	35개국 75개소	40개국 79개소	41개국 83개소	52개국 103개소	58개국 117개소	59개국 125개소	63개국 131개소

또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초~고급 수준까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존 초·중급 중심이었던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이어 고급 과정 교재 및 강좌 콘텐츠인 『세종학당 한국어5A~6B』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연속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학습자료인 『농업/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교재를 6개 언어(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키르키스어, 러시아어)로 개발하고, 『세종통번역』을 4개 언어(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로 추가 개발하는 등 특수 목적 학습자의 수요에도 부응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인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과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 메타버스 세종학당(zep.us/@ksif)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누리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온라인 학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온라인 세종학당 개발하고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외에 2022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구축하였고, 2023년부터 정식 운영을 통해 실감형 온라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표 4-20〉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 감 (B-A)	
							%
누적회원 수 (연도)	200,916	261,437	403,767	444,019	477,002	32,983	7%
방문 수 (세션 수)	971,684	1,672,544	1,784,887	2,210,762	2,712,400	501,638	23%
페이지뷰 수	7,366,929	11,873,643	13,041,452	16,544,183	22,038,102	5,493,919	33%

*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통합 운영 실적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현지의 한국문화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12개국 15개소, 2018년에는 20개국 30개소, 2019년에는 18개국 35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총 25,634명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내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온/오프라인 병행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0년은 온라인 59개국 157개소 12,082명, 오프라인 14개국 21개소 6,200명이 참가하였으며 2021년은 온라인 56개국 148개소 14,313명, 오프라인 35개국 46개소 14,837명이 참가하였다. 2022년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을 재개함으로써 22개국 41개소 세종학당에서 24,223명이 세종문화아카데미에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세종문화아카데미 심화과정 4개 분야(△영화와 드라마 △문학 △예술 △전통 무예와 놀이)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2023년에는 세종문화아카데미 사업 운영 형태를 이원화하여 현지 수요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였다. 세종학당이 직접 전문가들을 현지로 초빙하여 강의를 운영하는 형태와 재단이 직접 분야별 전문가와 강좌 운영 전문 인력들을 파견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종문화아카데미'를 병행하였고, 그 결과 23개국 52개소의 세종학당을 통해 총 26,743명의 수강생이 한국문화 강좌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찾아가는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참가자 만족도 98.8%를 달성함으로써 한국문화 보급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에 대한 세종학당 수강생의 장학 수혜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학당 말하기·쓰기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문화 연수 및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43개국 172명, 2014년 47개국 119명, 2015년 46개국 148명, 2016년 54개국 146명, 2017년 52개국 134명, 2018년 50개국 145명, 2019년 47개국 140명의 세종학당 우수학습자가 참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국내 초청이 어려워져 우수학습자에게 개인별 부상을 제공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2021년에는 62개국 127개소 세종학당의 244명의 우수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대면 연수를 재개하면서 한국어 분야뿐 아니라 문화 분야의 우수학습자들을 함께 초청함으로써 63개국 193명을 초청하였다. 2023년에는 66개국 149개소 세종학당의 168명의 우수학습자가 한국에 방문하여 대회 결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의 장을 경험하였다.



2023 찾아가는 세종문화아카데미(K-뷰티)



2023년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그림 4-16] 세종학당 한국문화 교육 현장(2023년)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교원의 교수 역량과 교원 간 상호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와 '2023 중동·아프리카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2023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되었으며, 모든 일정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미래를 잇고, 교원을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분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교원 우수사례 발표(최우수상)

[그림 4-17]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이와 함께 해외 한국어 교육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23년에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총 2박

3일간(2023.5.23.~5.25.) 개최하였고, 중동·아프리카 지역 세종학당 관계자 및 현지 한국어 교육 관계자 180명이 참석하였다. 지역별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한국문화 교수법 연수와 함께 세종한국어 개정본과 메타버스 세종학당 활용 방법 등 한국어 교수법 관련 전문 연수를 제공하고, 권역별 교원 간 교류의 시간을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수업 정보도 제공하였다.



2023 중동·아프리카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

[그림 4-18] 2023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는 82,844명에 달한다. 2006년 당시 86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7년 동안 약 94배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도 학부 71개, 대학원 150개, 사이버대학(원) 15개, 학점은행제 66개, 단기 양성과정 260개 등 총 562개에 이른다. 이처럼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이 증가하고, 한국어교원이 많이 배출되면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내실화와 교원의 전반적인 능력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어교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최신 한국어 교육의 동향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교류협력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집중 연수회’를 주관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대면으로 진행된

2023년 연수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원을 대상으로 ‘차세대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교원의 지식 능력과 활용 능력’이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원 중 35명이 연수를 수료하였다.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외의 다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 현장의 유형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021년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2022년 다시 대면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2023년 배움이음터(국립국어원 주최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 연수회 명칭)도 현장 대면 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동시에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코로나19 동안 온라인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연수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확장형 연수 방식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문화 관련 교원 연수회는 주관 부처별로 나누어 개최하였는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 보수 교육과 연계하여 방문교육 한국어지도사 및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66명 수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200명 수료), 교육부 초·중·고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KSL) 교원 연수회(115명 수료) 및 교육부 한국어(KSL) 교육과정 담당 교사(74명 수료) 대상 연수회,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어교원(88명 수료) 연수회 등을 현장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운영하였다. 대학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역시 5년 이내 대학 신입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128명), 관리자급 대학 전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141명)를 대면 및 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여 많은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림 4-19]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2023년)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를 위한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 2022년 온·오프라인 동시 연수(블렌디드 방식)로 운영하였다가 2023년에는 코로나19의 유행 이전과 같이 전면 초청 연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5주에 걸쳐(온라인 사전 연수 1주 포함) 이루어졌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불가리아, 케냐 등 13개 지역에서 18명이 참가하였다.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외 한국어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국가적 차원의 장기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신 한국어 교육 동향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등을 알리고, 각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한다.



[그림 4-20]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2023년)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전문가 파견 현지 교원 연수회’는 권역별로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외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재외공관(문화원, 교육원, 한글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매년 약 10여 개국에 20여 명의 연수 전문가를 파견해 왔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수회가 축소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4개국 9명을 파견하였으며, 2023년에는 4개국 6지역에 총 12명을 파견하였다.

〈표 4-21〉 한국어 전문가 파견 현지 교원 연수회 개최 내역

연도	국가(지역)	인원
2014년	중국(충칭), 프랑스(파리/리옹), 미국(인디애나폴리스/하와이), 일본(오사카/후쿠오카/도쿄), 베트남(호찌민/하노이), 인도(뉴델리), 필리핀(마닐라)	18명
2015년	필리핀(마닐라), 중국(사안/북경), 터키(앙카라), 이란(테헤란), 호주(시드니), 일본(후쿠오카/오사카), 미국(뉴저지), 러시아(사할린),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독일(오버베젤/본)	22명

연도	국가(지역)	인원
2016년	덴마크(코펜하겐),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베트남(하노이), 이란(테헤란), 미국(덴버), 일본(오사카/삿포로), 몽골(울란바토르), 폴란드(바르샤바), 중국(우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3명
2017년	인도(뉴델리), 러시아(이르쿠츠크), 일본(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태국(방콕, 랑싯), 미국(애들랜타), 이집트(카이로), 벨라루스(민스크), 필리핀(마닐라), 카자흐스탄(알마티), 아제르바이잔(바쿠)	26명
2018년	캄보디아(프놈펜), 태국(사툼 송크람), 중국(서주), 미국(시카고), 일본(히로시마/시모노세키 / 오사카),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24명
2019년	터키(앙카라), 태국(방콕), 말레이시아(푸트라자야), 캄보디아(프놈펜), 미국(팜/사이판/시애틀),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오사카), 러시아(이르쿠츠크)	16명
2020년	인도(델리, 마니푸르)	2명
2021년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연수 개최 불가	-
2022년	체코(올로모우츠), 벨기에(브뤼셀), 튀르키예(앙카라, 이스탄불), 호주(시드니)	9명
2023년	일본(나고야, 센다이), 미국(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중국(광저우), 프랑스(액상프로방스)	12명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추진하였다.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2023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국외 활동 중인 한국어교원 중에서도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K-티처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어 총 367명이 수료하였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에서는 집합형 연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국어교원들을 위해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에 온라인 연수 강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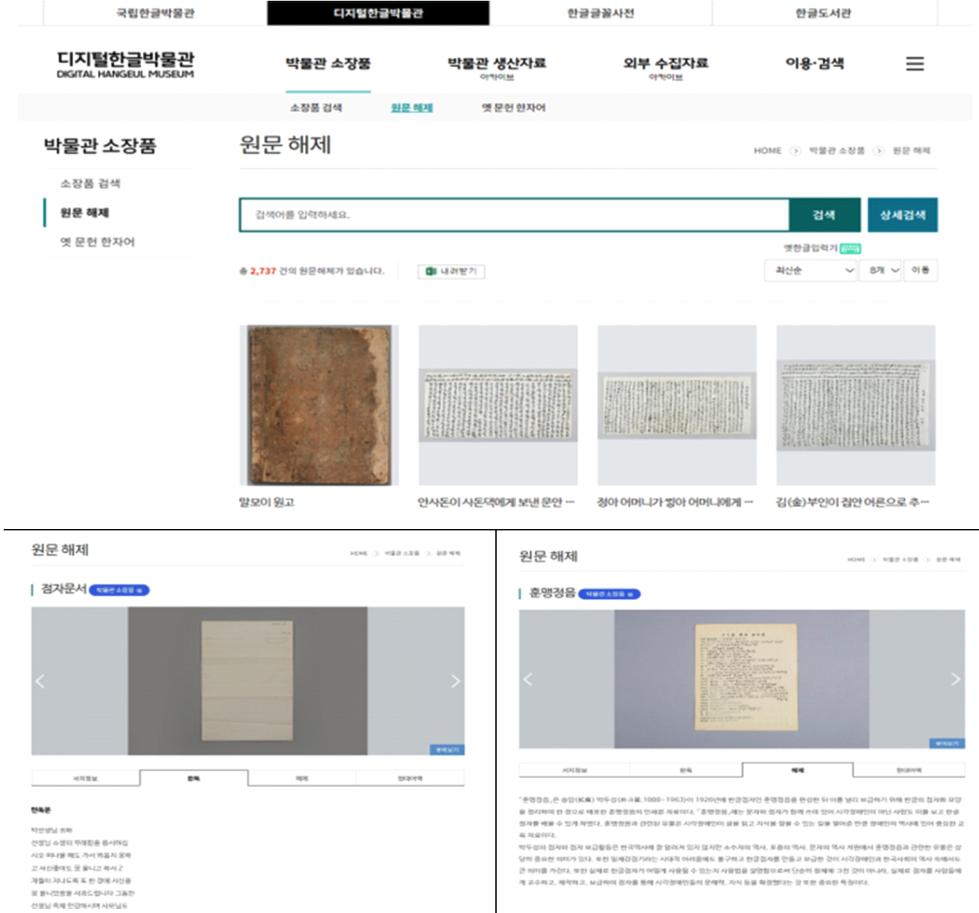
1.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전시 교육 강화

2014년 10월 9일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과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글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고 한글문화 자원의 다양한 가치, 즉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발굴해 내고, 이를 전시 콘텐츠나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한글문화 자원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2년에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창제 이후의 중요 언해본 및 활자본과 특별전시를 위한 근현대 어린이 잡지 등 3,211점(구입 2,029점, 기증 1,182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수집 자료로는 유길준 친필 서명본 『서유견문』(1895), 연활자본 초판 『턴로역명』(1895), 『어린이』(20세기), 『신여성』(20세기) 잡지 일괄 등으로 모두 근현대시기 한국어·한글에 대한 어문 의식과 당시의 사회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 외에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자원을 소장한 개인과 협력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특히 파주 지역의 개인 장서 수집가인 故정우호(1928~1994)의 자료 1,000여 점을 일괄 기증받았으며, 이에는 『사상계』, 『문학사상』, 『현대문학』 등 유명 문예 관련 잡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한글전문용어(전자공학 분야)를 수록한 잡지 『전파계』(1970년대) 일괄, 조선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한글 가사 「한양가」(20세기 초) 등 다양한 한글 자료를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수집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수집한 한글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자료의 검색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한글박물관(<http://archives.hange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주요 소장자료 정보 공유를 위한 원문 사진 및 해제 구축 사업으로 194점 13,600면을 새롭게 공개하였으며, 감염병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사업을 재개하여 구술자 6명의 구술 약 20시간을 채록하고, 보급본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림 4-21] 디지털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과거와 현재 등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콘텐츠를 통해 한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한글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시도하여 문화·예술로서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 전시를 개최하였다. 2023년에는 잡지 『어린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잡지에 담긴 새 시대의 ‘설렘’과 ‘희망’을 전시로 구현한 <어린이 나라>(‘23년 5월~8월)와 조선 후기 한양의 풍경을 보존한 한글문화유산 『한양가』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전시 <서울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23년 9월~‘24년 2월)를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국내외 순회전 또한 개최하였다. <한글실험프로젝트> 국외 순회 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돌며 디자인적 관점으로 본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주독일한국문화원과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를 열어 15세기 한글의 원형, 소리글자 한글의 유연성, 한글의 조형미를 다룬 실험적 작품을 선보였다. 아시아지역은 주중한국문화원, 주일한국문화원,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 근대 시기 한글 표기와 출판물, 이방인이 본 한글 등을 소재로 현대 작가들이 창작한 한글 작품을 소개하였다.

지역순회전으로는 한글 동요 노랫말을 그래픽과 영상으로 소개한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를 군산 예술의전당(23년 3월~5월)과 세종 박연문화관(23년 9월~11월)에서, 100년 전 창간한 한글 잡지 『어린이』의 가치와 언어 문화적 특징을 소개한 <어린이 나라>를 하동 문화예술회관(23년 9월~12월)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글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어린이 나라>(2023년 5월~2023년 8월)



<한양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2023년 9월~202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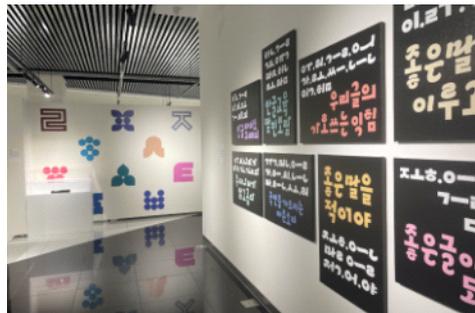
한글실험프로젝트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순회전(2023년 4월~2023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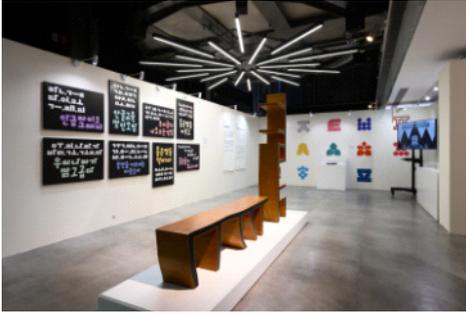
한글실험프로젝트 주독일한국문화원 순회전(2023년 7월~2023년 9월)



한글실험프로젝트 주중한국문화원 순회전(2023년 6월~2023년 8월)



한글실험프로젝트 주일한국문화원 순회전(2023년 8월~2023년 10월)



한글실험프로젝트 주흥공국문화원 순회전(2023년 11월~2024년 1월)



〈파란마음 하얀마음 어린이 노래〉 군산 예술의전당 순회전(2023년 3월~2023년 5월)

[그림 4-22]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2023년)

또한 부족한 수장공간 확충과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활용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1년, 파주시에 기재부 비축부동산* 사용을 승인 받아 건립 예정지로 결정되었고 '22년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 건립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25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통합수장센터는 연면적 16,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재질별 수장고와 보존과학실, 아카이브 자료실 등을 포함한다.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9번지(30,152㎡) 일대



[그림 4-23] 통합수장센터 예상 조감도

2023년에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397,10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관람객 만족도는 93.4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 및 관람객 만족도(2016년~2023년)

연도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2016년	564,393명	84.0점
2017년	672,332명	85.5점
2018년	695,378명	88.1점
2019년	776,570명	89.3점
2020년	104,348명	88.4점
2021년	110,074명	88.4점
2022년	271,235명	93.3점
2023년	397,107명	93.4점

2. 한글문화 산업 육성

학문, 예술, 산업 분야 등에서 시각 기호로서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발전·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려면 한글 및 문자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분야별 연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외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글꼴이나 타이포그래피 등 문자와 디자인을 접목한 한글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글문화 상품의 발굴·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올바른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3년에는 「한글문화 지식 사전 편찬 (4)」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 보고서 1종을 발간하였다. 한글문화사에서 가치가 있는 소장자료를 선별하여 연구한 소장자료총서(10) 『삼강행실도언해』를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연구 및 전시의 성과 등을 담은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관련 기관 및 학계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글박물관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표 4-23〉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 〈서울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
연계 자체 학술대회 개최(2023.10.13.)

시간	세부 내용
10:00~10:20	개회사 및 축사
	기조 발표 사회: 유호선(국립한글박물관)
10:20~11:00	'서울 풍속지'로서의 『한양가』- 강명관(전 부산대)
11:00~11:40	왕도 한성부의 도시구조 - 홍순민(명지대)
	1부 사회: 장지연(대전대)
13:30~14:10	19세기 『한양가』에서 노래한 조선의 음악 문화 발표: 송지원(전 국립국악원), 토론: 이정희(한국학중앙연구원)
14:10~14:50	『한양가』속 화성 행차_사실, 재현, 상상 발표: 김지영(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토론: 이경구(한림대)
14:50~15:30	『한양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패션 리더, 별감과 기생 발표: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이은주(안동대)
	2부 사회: 노혜경(호서대)
15:50~16:30	『한양가』를 통해 본 19세기 시장 판매용 회화 발표: 유재빈(홍익대), 토론: 서윤정(명지대)
16:30~17:10	『한양가』의 출판 형태와 독자층의 성격- 통속물과 고전의 사이에서 발표: 노경희(울산대), 토론: 이민희(강원대)
17:10~17:40	기획특별전 〈서울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의 전시 기획과 구성 발표: 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



[그림 4-24] <『한양가』로 그려낸 조선 후기 한양> 학술대회(2023.10.23.)

<표 4-24>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 <어린이 나라> 연계 지원 학술대회 개최(2023.5.25.)

(주제: 어린이와 함께 한『어린이』100년, 주최: 근대서지학회,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시간	세부 내용
10:00~10:15	개회사 및 축사
1부 사회: 조은숙(춘천교대)	
10:15~10:30	신영철 편집 시기 『어린이』에 대하여 발표: 정용서(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토론: 이정석(전남대)
10:30~10:45	천도교와 『어린이』잡지 발표: 박길수(원광대), 토론: 성주현(숭실대)
10:45~11:00	『어린이』에 수록된 필자의 관계성 연구 발표: 장정희(서울대), 토론: 최미선(경상국립대)
11:00~11:15	『어린이』의 '세계' 기획과 상상력 발표: 엄희경(방정환재단), 토론: 최배은(숙명여대)
11:15~11:30	『어린이』의 목차와 원문 DB구축을 통한 현대 어린이 콘텐츠 개발 발표: 김경희(가천대), 토론: 송지현(길벗출판)
11:30~12:10	1부 토론
2부 사회: 유춘동(강원대)	
13:30~13:45	『어린이』 소재 동요의 '동심' 연구 발표: 다프나 쥬르(스탠포드대), 토론: 장유정(단국대)
13:45~14:00	『어린이』 소재 동요와 율동·유희에 관한 연구 발표: 이경민(중앙대), 토론: 김수현(단국대)
14:00~14:15	근대 한일 아동잡지에 나타난 아동의 생활상 발표: 박종진(연세대), 토론: 김영순(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15~14:30	『어린이』와 부록 『어린이세상』의 만화 연구 발표: 백정숙(만화평론가), 토론: 서은영(서울과기대)

시간	세부 내용
14:30~14:45	인격의 탄생 - 잡지 『어린이』 속의 어린이들 발표: 조현신(국민대), 토론: 김소연(홍익대)
14:45~15:25	2부 토론
3부 사회: 장수경(목원대)	
15:40~15:55	『어린이』100주년기념 기획특별전 <어린이나라> 전시 기획과 구성 발표: 김민지(국립한글박물관), 토론: 신하영(국립한글박물관)
15:55~16:10	『어린이』와 아동의 성장-‘원기’를 중심으로 발표: 김윤정(인하대), 토론: 최선경(한국외대)
16:10~16:25	아동 어문교육과 『어린이』 발표: 김미미(국립한글박물관), 토론: 김태호(춘천교대)
16:25~16:40	『어린이』잡지의 대중과학적 글쓰기 발표: 서희경(숭실대), 한민주(건양대)

〈표 4-25〉 국립한글박물관 지원 학술대회 개최(2023.7.20.)
(주제: 왕실과 궁궐 여성의 삶과 문화, 주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시간	세부 내용
10:20~10:50	개회사 및 축사
기조 발표 <왕실과 궁중 여성의 한글문화와 서체(궁체)의 형성> 사회: 황윤정(서강대)	
10:50~11:20	궁중 여성의 일상 - 정병설(서울대)
11:20~11:50	왕실의 한글문화가 궁체를 꽃피우다 - 박정숙(경기대)
개별 발표 <왕실과 궁중 여성의 삶과 한글 문헌들> 사회: 노경희(울산대)	
13:10~13:35	왕실여성의 궁서체와 문안 편지 문화 발표: 크세니아 치조바(미국 프린스턴), 토론: 조혜란(이화여대)
13:35~14:00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 문화 발표: 이승희(상명대), 토론: 박부자(성신여대)
14:00~14:25	왕실과 궁궐 여성들의 소설 취향과 <완월회맹연> 발표: 탁원정(성신여대), 토론: 김문희(경기대)
14:40~15:05	왕실 의례와 한글 문헌 제작-1827년 존송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봉좌(성신여대), 이현진(카이스트)
15:05~15:30	언문교서를 통한 왕실 여성의 정치활동 발표: 임혜련(한남대), 소진형(서울대)
종합토론 사회: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15:50~18:00	조혜란(이화여대), 박부자(성신여대), 김문희(경기대), 이현진(카이스트), 소진형(서울대)

특히, 2023년에는 박물관 최초로 세계 문자·언어박물관의 주요인사와 일반관객이 참가(총 213명)한 제1회 국제박물관포럼(주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문자·언어박물관)을 개최하여 한글박물관의 세계적 역할 정립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였다.



[그림 4-25] 2023년 국제박물관포럼(제1회)

또한, 한글과 한글문화에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강좌 <화요 한글문화강좌>를 온라인으로 10회 운영하였으며 상시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관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아울러 2024년도 기획전시 ‘사투리는 못 참지’의 기초조사를 위한 전시토대연구를 수행하여 전시 기획에 필요한 자료 및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의 결과를 내부 보고서로 발간, 박물관 업무의 선순환적 효과를 도모하였다.

<표 4-26> 국립한글박물관 ‘화요 한글문화강좌’ 운영 내용(2023년)

회차	제목	강연일자
1화	K-방역의 원조, 조선 왕조의 방역 정책 - 조선 시대 역병과 한글 의학서의 간행	3.21
2화	벤또(X)?! → 도시락(O)!! - 해방과 함께한 우리말 독립운동	4.18
3화	[기획 전시 연계]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세상 - 소파 방정환과 최초의 아동문학 잡지『어린이』	5.16
4화	한글과 근대 과학 기술의 만남 - ‘송기주 타자기’로 보는 한글 이야기	6.20
5화	대중가요로 읽는 삶과 노래 이야기 - 계절을 담은 노랫말 읽어보기	7.18
6화	일제강점기, 지키고 가꾼 우리 말글 이야기 - 최초의 사전 원고 『말모이』에 담긴 언어와 그 가치	8.15

회차	제목	강연일자
7화	[한글날 특집] 방탄 덕분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 BTS 한글 학습 교재 기획자를 만나다	9.19
8화	19세기 한양에 올려 퍼진 서울의 찬가 - 『향토한양가』 속 한양 사람, 한양 풍경	10.17
9화	[점자의 날 특집] 6개의 점으로 만나는 시각장애인들의 세상 - 박두성의 훈맹정음과 한글 점자	11.21
10화	유행가, 조선을 흔들다 - 『청구영언』에 담긴 한글 노랫말 음미하기	12.19



허용(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노혜경(호서대 혁신융합학부 교수)

[그림 4-26] 화요 한글문화강좌(2023년)

전시와 유물을 연계한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별·목적별로 대면·비대면 총 27종, 424회 운영하였으며 총 41,99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 19 종식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 방문 체험 교육 중심의 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하며 대면 교육 운영 횟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교육 참여 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27〉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3년)

(단위: 회/명)

구분	대상	연번	교육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교육, 원격 교육, 교구재 배포)	초등학생 동반 가족	1	천년의 문자 계획(저)	16	314
		2	천년의 문자 계획(고)	16	400
		3	기획 전시 연계 교육(어린이 잡지)	7	344
	유아 단체	4	한글아 놀자(한글놀이터 연계)	-	6,835
		5	자연 속 한글 탐험	14	322
	초등 단체 (저학년)	6	신비한 이야기꾼	45	1,144
		7	전설의 이야기꾼	43	1,031

구분	대상	연번	교육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초등 단체 (고학년)	8	한글이 보이는 라디오	42	1,203
		9	한글 보따리1	25	595
		10	한글 보따리2	31	756
		11	한글 보따리3	35	900
	중학생 단체	12	붓으로 만나는 한글	35	959
	중고등학생 단체	13	반듯하게 쓰는 한글	43	1,062
	성인	14	기획 전시 연계 교육(한양가)	6	350
	시각장애인	15	시각장애인 대상 시범 교육	2	31
	특수학급	16	세종의 친구, 한글 지킴이(초등)	6	52
		17	세종, 꿈을 이루다(중등)	6	72
	외국인 단체	18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	34	852
		19	디자인으로 만나는 한글	4	108
	어르신 단체	20	멋을 담은 한글	12	223
	한국어 교원	21	한국어 교육 연수 지원	1	18
국외 문화원	22	국외 순회 전시 연계 교육	1	180	
영상 및 학습자료 배포	국내 협약 기관	23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영상, 활동지)	-	2,320
	중학생 단체	24	붓으로 만나는 한글(영상, 활동지)	-	7,574
	온라인 세종학당 수강생	25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영상, 활동지)	-	739
온라인 영상 콘텐츠 조회	어린이 동반 가족	26	한글 풍당 시리즈(6종)	-	12,921
	외국인	27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국/영문)	-	685
합계				424회	41,990명



[그림 4-27] 2023년 교육프로그램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글꼴 연구와 산업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글 글꼴 조형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한글 산업 활성화하고자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이전 통합 시스템 구축>과 <옛글꼴누리 옛글꼴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글 산업화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본 공모전을 통해 문자적 가치를 넘어 문화상징 콘텐츠로서 한글의 독창적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 공모전에는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2023년 아이디어 부문 157점, 상품화 부문 33점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15점을 선정·시상하였다.

선정작들을 포함하여 한글 문화상품으로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들은 시제품 개발, 대량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상품화하였으며, 메종&오브제 등 해외 박람회 참가, 재외한국문화원 특별전 개최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한글의 가치를 한 단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문화 축제와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기리는 포상을 실시하여 한글 창제의 의의와 한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한글주간(10.4.~10.10.)에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한글문화산업전시회(10.4.~6.)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경연,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그림 4-28] 2023년 한글주간

아울러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포상을 추진하였다. 2023년 9월 8일에는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시상을 실시하고, 10월 4일에는 ‘세종문화상’, 10월 9일에는 ‘한글발전유공자 포상’을 수여하였다.

3.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기능 강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을 지닌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언어·문자로 특화된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건립이 추진되었다. 2015년에 인천 송도가 건립 대상지로 결정된 후, 201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3월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4월에 건립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건립위원회는 문자·언어, 박물관, 문화·예술,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개관 전까지 운영되었다. 2017년 국제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계획설계 및 중간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3월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다. 같은 해인 2019년 11월에 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준공된 박물관은 연면적 15,6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교육·연구시설, 강당, 카페, 뮤지엄숍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2016년에 전시 콘텐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세부계획과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기본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0년 10월 전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2월 전시·체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시·체험 설계 공사를 진행하여 2023년에 전시실 공사를 완료 후, 2023년 4월에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23년 6월 29일 개관하였다.



[그림 4-29]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경

법인설립 이후 박물관 관람 편의를 위해 공간 디자인 및 박물관 야외·내부 안내물 제작 설치를 완료(36건 72종)하고 로비, 라운지, 수유실 등 공간 개선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3년 8월에는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6월 개관 이후 12월 31일 기준 관람객은 56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관람객 만족도는 88.9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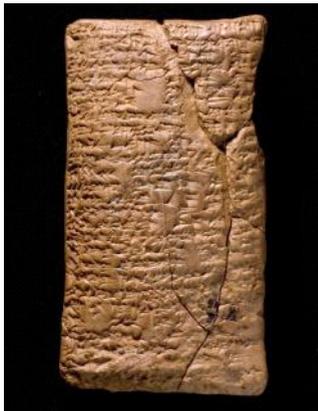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개관 주간을 설정하고 공연, 전시, 체험, 포토존, 이벤트 등을 진행(‘23.6.30.~7.6., 박물관 및 센트럴파크, 총 63,000명 참여)하였고, 추석 계기 <세계문화만남>(‘23.9./3일간), 한글날 계기 <한글만남: 하나된 글, 한글>(‘23.10.7.~9.), 초청강연 <명사와의 만남>(‘23.11./3일간), 송년맞이 <12월의 만남, 안녕 2023>(‘23.12.12.~25.)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박물관 인지도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을 통해 소장품, 상설·특별전시와 연계한 박물관만의 정체성이 담긴 차별화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문자의 발생, 발전과 확산 등 세계문자와 문자문화, 문명을 비교문화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상설전시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비롯하여 글보다 그림·영상 등 비문자적 소통을 선호하는 최근의 경향을 돌아보고 문자·비문자 매체의 특성과 소통의 미래를 통찰하는 특별전시 <긴 글 주의, 문자의 미래는?>(‘23.6.30.~‘23.11.19.), 뒤러 『대수난전』, 『멜랑콜리아 I』 등 52건 55점을 전시하는 <문자와 삽화: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를 만나다>(‘23.12.19.~‘24.3.31.) 등의

기획전시를 비롯해 옥상 페이지월 공간을 활용, 문자의 속성과 체계를 은유적으로 담아낸 작품 〈공명(Resonate, 共鳴)〉을 야외전시로 선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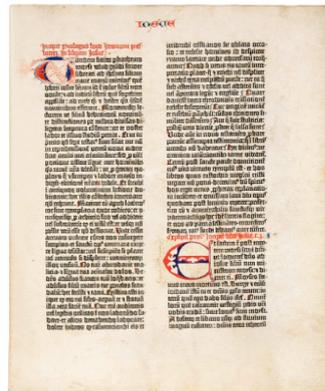
연구·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관 전시 〈개비와 함께 떠나는 문자 여행〉(23.6.30.~ /20,879명 참여)을 운영하고 학습 교재를 제작(1종)하였고, 개관 기념 국제학술대회개최(23.6.30./110명 참여)를 통해 연구서 〈박물관, 문자를 이야기하다〉를 발간하였으며, 유아·어린이 등 대상별 문자문화 교육 프로그램(8종, 91회)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박물관 소장 문자 자료의 양적·질적 확충을 위한 수집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집 범위는 기원전 22세기부터 현대까지 약 4천 년의 폭넓은 시기의 초기 문명 발상지부터 유럽과 아시아 전역 등 전 세계의 문자 자료를 바탕으로 박물관 전시·연구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이다. 주요 수집품으로는 〈원형 배 점토판〉, 〈구텐베르크 성서의 「여호수아서」〉, 〈뉘른베르크연대기〉, 〈기욤몰레의 기도서〉 등 343건 674점이 있다.



원형 배 점토판

(기원전 2000~1600년 수메르 썩기문자)



구텐베르크 성서의 「여호수아서」

(1454년경 라틴어, 라틴문자)

[그림 4-3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수집 자료

또한, 소장 자료 관리 기반 마련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자료 위수탁 협약을 체결(23.6.5.)하고, 소장자료 DB 구축을 위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23.7)하여 소장자료 실측조사 및 등록(175건 379점)을 하고 활용서비스를 위한 사진 촬영(243건 532점)을 마쳤다. 이 밖에도 『세종식 속기문자표』등 8건 9점 보존처리, 전시에 활용할 복제품 제작(『훈맹정음』등 12건 23점) 등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박물관 누리집(<https://www.mow.or.kr/kor/>) 구축을 통해 박물관 정보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수도권 중심 옥외광고(9개 역, 61개 광고지면 활용),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제5장 2024년 국어 정책 주요 추진 계획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정책 기반 조성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제5장 2024년 국어 정책 주요 추진 계획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정책 기반 조성

1.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립국어원은 국가 공공재로서 국어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의 대규모 구축(원시 말뭉치 18억여 어절 등)에 이어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최신의 언어 자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와 일상 대화 원시 말뭉치는 매년 구축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공개하는 상시 구축 체제로 전환하였다. 2024년부터는 챗GPT로 촉발된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시대 한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용 지시문 기반 생성 말뭉치, 적대적 함의 분석, 구문 분석 및 무형 대응어 복원, 대화·텍스트 요약, 표·그림 등의 한국어 설명 말뭉치 등 한국어·한국언어문화 정보를 입력한 고품질 말뭉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으나 언어자원이 희소한 8개 언어(태국어, 베트남어, 인니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인도 힌디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와 한국어 번역을 대응시킨 병렬 말뭉치 총 1천만 어절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일상대화, 신문 기사 등의 언어 자료도 계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말뭉치 등 국어 자원 구축 및 통합 관리, 유통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말뭉치 통합 시스템은 2018년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19년~2020년에 말뭉치 검증 시스템과 대량 말뭉치의 구축 관리, 배포, 유통 기능을 개발하였다. 2023년에는 말뭉치 통합 시스템의 명칭을 '언어정보나눔터'로 개편하고 '모두의 말뭉치',

‘인공지능(AI)말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말뭉치 이용 약정서 작성 단계를 단순화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24년에는 표·그림·영상 등 다양한 매체 기반 자료를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말뭉치 구축을 위한 멀티모달 말뭉치 구축 지원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말뭉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재설계하고 API를 통한 내려받기 기능을 구현하여 내려받기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 평가 체계인 ‘인공지능(AI)말뭉’ 활성화를 위해 경진 대회와 함께 상시 평가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 평가 부문을 ‘한국어 기본 능력 평가’, ‘한국어 대화 능력 평가’, ‘한국 문화 이해 능력 평가’로 나누고 매년 6종의 과제 및 데이터 세트를 신규 개발·공개하여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인공지능(AI)말뭉’ 플랫폼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말뭉치상의 오류를 상시로 점검·정비하여 분기 말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연 4회), <모두의 말뭉치> 시스템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연 1회)를 실시하여 국어자원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언어 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산·학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발굴→구축·배포→현장 활용의 환류 체계를 공고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지식을 표상하는 중요한 언어 자원 중 하나인 용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구축한 용어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용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24년에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 기반이 되는 한국 언어문화 지식 그래프를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문자코드 표준화를 위하여 2024년 3월 18일~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62차 국제한자특별위원회 회의(IRG)에 참가할 것이며, 10월에는 국립국어원 주최로 제63차 국제한자특별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자 코드 및 한자 등의 언어자원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상의 한국 한자 중 국제문자 세트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한자를 대상으로 표준화[수직확장(신규 문자코드 할당), 수평확장(기존 문자코드에 한국 출처 정보 및 글꼴 등록)]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옛 문헌 등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 한자가 컴퓨터상에서 원활하게 표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다양한 언어현실을 반영한 국어 정책 기반자료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다변화된 언어 환경에 따른 어문규범 정비 및 다양한 국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국내외 국어 정책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자원 통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어문규범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어문규범의 현실성을 강화해야 하는바, 국립국어원은 2024년에도 국어규범정비위원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지속 운영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비문법적 쓰임이나 비표준적 표기들에 대한 표준성 인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문규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문규범 정보 보급 및 관리, 어문규범 개선 내용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9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집단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국어의 변화 방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전국적 규모의 국어 사용 양상을 조사한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이어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를 진행하였다.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어 사용을 관측하여 국어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조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조사 분야와 방식 등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어 정책 관련 자료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국어 정책 자료 시스템'은 2023년에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누리집으로 개편되었으며 국어 관련 수치 자료를 추가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자료의 이용 편이성과 활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관련하여, 기초어휘는 일상적 언어생활에 꼭 필요한 어휘로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으며 다른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어휘를 말한다. 기초어휘는 한국어 어휘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면서 국어능력 진단이나 공문서 어휘의 적합성 평가, 사전 편찬, 교육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기초어휘는 한국어 어휘 사용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용량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어휘

전문가와 해당 어휘 사용자의 정성적 평정 절차를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한다. 언어 자료는 대표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연령별, 수준별, 분야별 어휘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초어휘에 대한 전문가와 사용자의 어휘 평정을 통해 말뭉치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기초 연구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 어휘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1등급, 2022년에는 2~3등급, 2023년에는 4~5등급 어휘를 선정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거쳐 총 5등급 4만 개의 기초 어휘를 전수 검토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1~5등급 어휘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객관적 어휘 평정 방법론을 보완하고 지침을 정교화하였다. 그리고 2억 어절 규모의 구어문어 말뭉치 분석과 전문가·사용자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어휘 목록을 제시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어 기초 어휘 목록은 연령별, 학령별 국어 교육 자료로서 활용되며, 독서 능력 및 도서 지표 연구, 문해력 및 이독성(읽기 쉬운 정도) 연구 등에 기초 자료로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표 5-1〉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구분

국어 기초 어휘 등급 구분			
등급	연령	학령	어휘 수
1등급	4~6세	학령 전	5,000개
2등급	7~8세	초1~초2	2,500개
3등급	9~10세	초3~초4	5,500개
4등급	11~12세	초5~초6	10,000개
5등급	13~15세	중1~중3	17,000개
전체			40,000개

3.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 기능 강화와 언어자원 구축

국립국어원은 2016년 10월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의 개통 이후로 『표준국어대사전』과 함께 두 가지 국어사전을 운영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현행

어문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 언어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해 왔으며, 『우리말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전이라는 목표로 우리말 언어자원을 집대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2023년부터 국어 어원사전 편찬에 착수하여 2026년까지 2만 항목 규모의 국어 어원 정보를 집필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이 언어 환경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08년 개정 이후 보완·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표준국어대사전』을 언어생활의 기준으로서의 사전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범성과 현실성이 조화를 이룬 사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등재가 필요한 어휘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계열 관계를 이루는 어휘군의 수정 보완, 최신 용례 추가, 규범 정보 정비 등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제되고 풍부한 실용적 국어 지식을 전달하는 사전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말 자원의 통합 구축, 사용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우리말샘』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운영, 이용자 등록 자료에 대한 감수 및 정비 사업 역시 계속 진행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말샘』은 대량의 언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지식 관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2023년부터 착수하는 국어 어원사전 편찬은 우리말 어휘역사 정보를 집대성하고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3년~2026년(1단계) 동안 총 2만 항목 규모로 국어 어원 정보를 집필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23년에 이어 6,000개 어휘의 형태·표기 변화, 의미변화 과정, 유입 경로, 어휘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 관련 설화, 민간어원 등 한 어휘의 생성과 변화, 소멸의 과정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추적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집필할 계획이다. 또한 어원사전의 원활한 집필과 향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사전편찬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사전 정보 제공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어 어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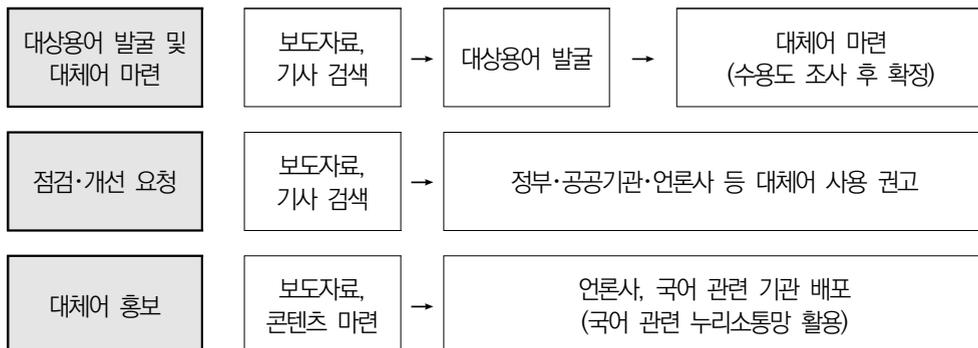
1.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언어문화 기반 조성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등에서 외국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어려운 외국어 사용으로 인한 소통 장애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국어문화원연합회 조사 결과, 언론사(신문, 방송 20개사) 1,933,484건의 기사 제목 중 145,147건(7.5%)에서 어려운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 등 공공영역에서 어려운 외국어 사용 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난해한 용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 생활 속 공공언어 개선 지원을 위해 국민이 자주 접하는 정책용어, 신문·방송 용어 등에서의 어려운 용어들을 발굴해 쉬운 대체어를 마련하는 공공분야 외국어 사용 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유입되는 외국어 등에 대해서는 새말모임을 통해 우리말 대체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새말모임에서 선정된 새말을 포함하여 쉬운 우리말에 대한 콘텐츠를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와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고 한국정책홍보원, 방송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영상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표 5-2〉 공공분야 외국어 사용 순화 추진 절차도



또한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에는 90개교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식 표현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2022년 국회에 「소액사건심판법」, 「등기특별회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 추가적인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였다.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법률은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방송언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언어 지침 등의 교육과 방송언어 순화 캠페인,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시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 공공언어 종합 평가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다량의 외국어 전문용어 유입으로 부처·기관별 전문용어 정보를 제각각 구축·보급하여 분야별 전문용어 사용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보 소외층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2020) 결과, 우리 국민의 89%는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전문용어(53.3%) > 어려운 한자어(46.3%) > 신조어(43.1%)]의 의미를 몰라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쉽고 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공언어에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가 남용되거나 어렵고 권위적인 문장이 사용된다면,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소통이 어렵게 되고 국민이 공공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다.

국어기본법(2021. 6. 15.)과 시행령의 개정 시행(2021. 12. 16.)으로 공공기관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한류 등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에 따라 한국어 ⇄ 외국어

번역 소통이 필요 대상과 언어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이 국민 중심의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감수·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언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용어 번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번역 대상 언어를 확대 보급하여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공공언어 평가와 관련하여 공공언어 개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3년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본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용어 번역 기반을 다지고 번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용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고 번역 대상을 현행 지명, 문화재명, 정거장명, 음식명 등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용어 총괄 관리 체계를 통해 분야·기관별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정비·보급하여 문화, 과학 기술 등의 지식을 공유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3.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국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은 디지털 환경을 통한 국어 상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은 전화로 국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가나다전화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온라인 가나다, 누리소통망서비스(카카오톡)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우리말365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도 상담원 연찬회 등을 통해 상담 내용의 전문화에 힘쓰는 한편, 축적된 상담 자료 분석을 통해 국민의 국어 생활 속 관심사와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어문규범 개선, 공공언어 정비, 표준국어대사전 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상담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심리 상담도 1인당 연 6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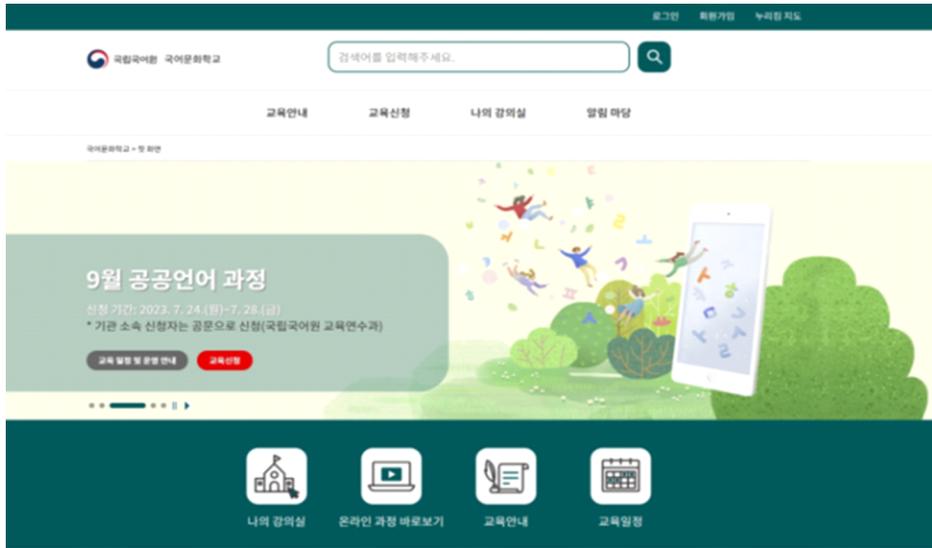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과정과 기획과정의 경우 교육생 의견 및 변화된 언어환경을 반영하여 교과목 개편과 함께 교육시간을 조정한다.

찾아가는 과정은 지역의 국어문화원과 연계하여 연 300회 규모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과정은 어문규범, 공공언어, 병영언어예절 등 총 3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콘텐츠를 정비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어 지식을 담은 짧은 영상(숏폼)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어르신을 대상으로 「쏙쏙 국어교실」 및 「우리말 꼬터」,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과 어르신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국어문화학교 운영과 국어능력 향상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데, 2024년에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가 시행된다. 제3차 국민의 실태 조사는 연차별 조사로 시행되며, 2024년은 그 두 번째 해로 읽기, 문법·규범 2개 영역의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진다. 20세~69세 대한민국 성인남녀 5,050명을 대상으로 읽기 20문항, 문법·규범 13문항을 조사한다. 이 외에도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 중심의 국어 문해 교육 강좌 3종을 개발하여, 국어문화학교와 관련 교육 기관 등에서 독서 교육과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4년에는 2023년에 이어 국민의 글쓰기 능력을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소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논증 글쓰기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지표를 체계화, 표준화하고, 고품질의 대규모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여 채점 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채점 인력을 양성하여 대규모 글쓰기 평가 등에 전문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5-1]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1.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한국 사회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수어와 점자로 대표되는 특수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432,854명, 시각장애인 248,360명).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다른 별도의 언어이며, 점자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또 하나의 한글인 문자 체계로,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와 점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언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에 따라 한국수어와 점자의 진흥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에 수립, 시행하고 있는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의 2차 연도 추진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2024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24.6월 예정).

〈표 5-3〉 2024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추진 사업
1.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1-1. 한국수어 제도 내실화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회위원회 개최(4회) -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8월)
	1-2. 한국수어 교육 기반 확대	- 한국수어교육원 신규 지정(3개소) - 한국수어교육원 9개소 운영 지원
	1-3. 한국수어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한국수어 활용조사' 결과 분석 연구 - 수어 교육 전문용어 표현 심화 연구
2. 맞춤형 수어 교육 및 수어능력 향상	2-1.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 도서 개발	-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교과용 도서(중·고등) 개발 및 모니터링
	2-2. 한국수어교원 역량 강화	-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 연구 - 수어교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추진 사업
3. 차별 없는 수어 사용 환경 조성	2-3. 공공수어 통역 품질 개선	- 공공수어 통역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10명 내외) -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공공수어통역사 교육, 연수
	3-1. 농인의 공공정보 접근성 제고	-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에서 주요 정책·정보·계획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 - 전시정보 수어해설 영상 제작 지원(문화예술기관 10개소), 영화 수어통역 영상 제작·보급(영화 20편)
	3-2. 한국수어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 한국수어방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 및 실사용자 대상 시범서비스를 통한 개선 사항 도출
4.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한국수어 정보화	3-3.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2월) 및 한국수어발전 유공자 장관 표창 수여 - 참여 행사 추진 등 한국수어주간 운영
	4-1.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	-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1백만 어절) 및 수어 인공지능 기술·연구 분야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미구축 지역 원시 말뭉치 구축(2개 지역, 60시간 이상), 대국민 공개('25년 '모두의 말뭉치')를 위한 원시·주석 말뭉치 정비, 주석 아카데미 개최
	4-2. 한국수어 중심의 사전 편찬	- 기존 <한국수어사전> 운영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의 사전 자료 집필(표제어 750개) 및 기구축 표제어 정비(1,000개)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범 개통 및 각종 홍보 자료 제작 - 사용성 및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 고도화 - 한국수어사전 편찬위원회 운영(1회)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24.2월), 시행할 계획이다.

〈표 5-4〉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전략	추진과제	추진 내용
1.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1-1. 점자 정책 제도 강화	- 전문적인 점자 교육을 담당할 점자 교원 자격 제도 마련 - 점자 능력 검정, 점자교육 능력 검정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점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략	추진과제	추진 내용
	1-2. 점자 발전 토대 마련	- 합리적 점자 규범 정비 및 보급으로 점자 발전 기반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태조사 계획 수립·조사 실시
	1-3.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 계승	- 점자 이해 및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활용 - 점자문화 계승을 위한 기념 행사 추진 - 점자문화 공유 및 보전을 위한 자료 수집, 전시
2. 맞춤형 점자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2-1. 대상별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연령, 장애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점자 학습 목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점역·교정사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점자 교원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2-2. 점자교육 실시 체계 확대	- 점자교육 실시 기관 지정 및 지원 - 집합교육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 접근성 제고 - 온라인 점자교육 확대
	2-3. 전문 분야 점자 사용 능력 강화	- 수학, 과학 등 전문 분야 문해력 증진을 위한 촉각 그래픽 활용 활성화 - 영어, 일본어 이외의 다양한 외국어 점자교육 확대 - 학생, 전공자, 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음악 점자교육 지원
3.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3-1. 점자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	-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 확대 -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점자생활 편의 증진
	3-2. 교육용 도서 및 대체자료 점자 제작 보급	- 시각장애학생 및 교사의 장애 정도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도서 적기 제작·보급 - EBS 수능 방송교재의 대체자료 제작·보급 - 시각장애학생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참고서 중심의 교육 관련 출판물 제작·보급
	3-3. 지역 거점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확대	- 지역 중심의 점자 출판 시설 지원 확대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 점자 자료 제작 및 보급 확대 - 점자 규정 및 지침 준수 모니터링 실시
4.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4-1. 디지털 점자의 생태계 구축	- 목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및 활용 기반 마련 -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점역 소프트웨어 고도화 - 디지털 점자 제공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형 점자 연구 및 교육 추진
	4-2. 웹 점자지도 서비스 구축	- 시각장애 보조기기를 통해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지도 제작 - 점자지도 자동변환 웹서비스 데이터 구축, 국토정보 플랫폼 통한 온라인 서비스 - 「점자지도 제작 작업 규정」을 정비하고 점자지도 기관표준 개발 추진
	4-3. 점자 자료 공유 플랫폼 운영	-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 확대 개편 - 촉각자료 및 시각자료 점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유 - 다양한 디지털 점자 사전 제작 및 활용 체계 구축

또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의 마지막 시행 연도인 ’23년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의 첫 시행인 24년의 추진계획을 담은 ‘2024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24.6월 예정)

〈표 5-5〉 2024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전략	추진과제	추진 사업
1.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1-1. 점자 정책 제도 강화	- 점자 교원 자격 제도 마련 기초 연구 - 안전상비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화 약사법 시행 -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신규 구성 및 운영 - 점자정책협의체 운영
	1-2. 점자 발전 토대 마련	-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 운영 - 한국점자규정 개정 내용 안내서 및 홍보물 발간·배포 -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사용 실태 조사
	1-3.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 계승	- 점자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점자문화 계승을 위한 ‘제98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개최 - 점자문화 공유 및 보전을 위한 점자문화 자료 조사
2. 맞춤형 점자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2-1. 대상별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대상별, 수준별, 분야별 점자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점자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보재 및 교구 개발 - 점자 전문 인력의 실무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
	2-2. 점자교육 실시 체계 확대	- 점자교육 실시 기관 신규 선정 및 지원(6개소) - 한국 점자 규정 반영 온라인 점자 교육 콘텐츠 개발
	2-3. 전문 분야 점자 사용 능력 강화	- 국외 점자 자료 번역본 배포(스페인 점자 규정, 북미점자위원회 점역 지침)
3.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3-1. 점자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	- 공공정보 점역·교정 지원 -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 홍보, 시각장애인 요청 창구 마련
	3-2. 교육용 도서 및 대체 자료 점자 제작 보급	- 교과용 도서 제작 및 보급 - 교육용 대체자료의 점자 제작 및 보급
	3-3. 지역 거점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확대	- 지역 중심 점자 출판 시설 지원(5개 단체 내외) - 전자점자자료(도서, 약보) 제작, 점자리벨도서 출판 지원 및 점자 출력서비스 제공 -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 마련
4.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4-1. 디지털 점자의 생태계 구축	- 목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1백만 어절) - 점역 프로그램 고도화 및 추가 기능 개발 - 점역 라이브러리 개발 및 공개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선정 및 지속 보급
	4-2. 웹 점자지도 서비스 구축	- 점자지도 자동변환 웹서비스 데이터 구축 - 점자지도 제작 및 서비스
	4-3. 점자 자료 공유 플랫폼 운영	-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 운영 - 점자 관련 온라인 콘텐츠 보강 - 점역 라이브러리, 점자 병렬말뭉치 등 점자 정보화 자료 공개 체계 마련

또한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2.2.) 및 한국수어 주간(1.29.~2.4.), 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11.4.) 및 한글 점자 주간(11.4.~11.10.)을 운영하여 한국수어·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23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 발표, 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대상 공공수어 통역 지원, 점역·교정 지원은 기관의 신청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농인 및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공공정보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수어통역 영상과 점역 자료를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인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정보에 대한 수어해설 영상 및 영화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립국어원은 세대 간 디지털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언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무인 판매기, 무인 안내기 등에 사용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디지털 매체에 담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관공서, 병원, 은행, 공항, 버스터미널 등 공공성이 짙은 장소와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어려운 용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권장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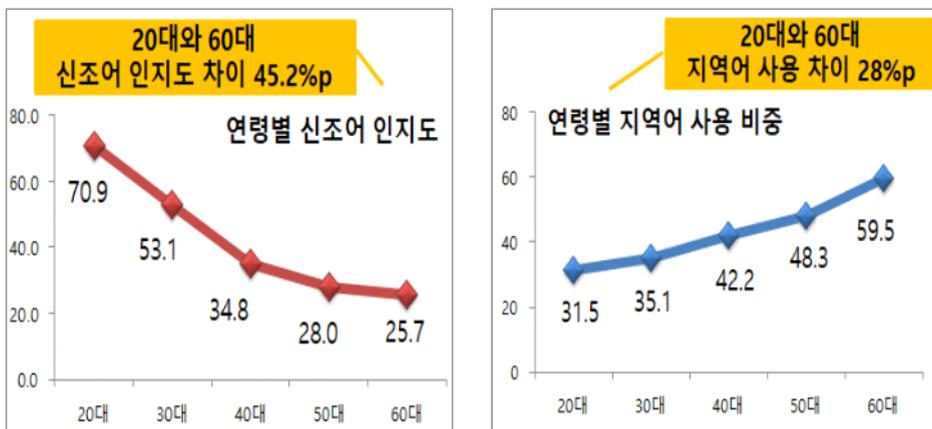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수어와 점자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해 왔다. 2013년에는 '수어'가 독립된 언어임을 강조하고자 정책 용어를 '수화'에서 '수어'로 바꾸었고,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2017년 '점자법'이 제정되어 사용자 중심의 언어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 수어 연구와 교육, 수어 정보화, 공공영역 수어 통역 서비스, 점자 정보화 및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 의약품 정보 점자 제공 등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법정 의무가 명시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 수어 말뭉치 구축, 수한-한수 사전 편찬,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 점자 말뭉치 구축,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프로그램 개발 등 수어와 점자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언어환경 조성 and 수어와 점자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이 확대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를 줄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지식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2.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국립국어원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어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시군 단위의 지역어 조사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고, 그동안 축적한 지역어 정보 약 23만여 항목을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멸 위기의 지역어 조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통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표준어 중심의 언어생활을 하면서 세대별, 지역별 언어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신조어에 대한 인지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지역어 사용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조어에 대한 20대의 인지도는 70.9%인데 반해 60대의 인지도는 25.7%여서, 두 세대 간의 신조어 인지도 차이는 45.2%p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의 지역어 사용 비중은 31.5%인데 반해 60대의 지역어 사용 비중은 59.5%로, 20대와 60대 간의 지역어 사용 비중은 28%p 차이를 보였다.



[그림 5-2] 세대별 언어 차이(신조어 인지도, 지역어 사용 비중)

이에 국립국어원은 한국 언어문화 다양성을 지역별·세대별·성별에 따라 균형적·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에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질문지와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는 현재 5개년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개년 조사의 첫 시작으로 지역어의 변이와 변화 조사로 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 2021년 시범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질문지,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보완하고 성별 변인을 추가하였다. 전국 9개 지점의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남녀 제보자를 대상으로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3년에도 전국 9개 지점을 달리 선정하여 조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국의 지역어 조사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들은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에 탑재하여 연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어의 다양성 실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언어문화 보존의 기초 자료 및 인공지능 개발 언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어 언어 이질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북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말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5년부터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도 추진해 왔다.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의 비교 결과, 일반어 35%, 전문어 66%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 겨레말큰사전편찬회, 2016). 이 결과를 북한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실제 쓰임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으며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에는 지금까지 구축한 북한어 말뭉치를 분석하고 <우리말샘>의 북한어 정보를 보완정비하는 한편 국어사전에 등재된 북한어 표제어를 검토, 분석하고 북한어의 사전 등재 및 정비 지침을 마련하였다.

2024년에는 2021년 구축한 남북의 외국 고유명 자료를 국립국어원 ‘온용어’에 반영하기 위해 항목(분야, 용어, 관련 용어, 원어, 어종, 정의문)을 집필하고 북한어 자료 조사를 통해 새로운 외국 고유명(2,000여 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2023년에 이어 전자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에 수록된 원고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종이사전 발간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겨레말문화학교, 겨레말TV 등을 운영하여 남북한 언어문화 차이 이해와 남북 언어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제5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1. 한국어 교육 기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한국어 교육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목적별, 학습자별, 지역별로 다변화되는 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지화를 넘어, 개별 학습자의 특수성까지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확산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만, 국내외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잠재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 또한 한국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교육기술 산업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교육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의 다각화는 한국어 교육 시장에도 접목되어야 할 변화이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수업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지속적인 한류의 확산과 이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은,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식을 넘어서는 선제적 국가 정책의 추진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교육 기반의 현지화를 통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을 포함한 기관 간 협력의 활성화를 꾀하여 한국어 교육 시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현지화로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한다. 2024년도에는 전년에 개발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학습의 기초 자료가 되는 <한국어기초사전> 및 이를 11개어로 번역한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을 구축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 변화한 한국어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습자 요구를 분석, 한국어 확산의 주요 배경인 한류 문화 및 학습사전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표제어 1,500여 어휘 및 문법 학습 내용(300여 건)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 기반 확대를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개발을 활성화한다. 학습자 말뭉치는 다양한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을 연구하고,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자원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언어권별·수준별·자료 유형별 ‘균형성’을 확보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총 1,000만 어절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학습자의 쓰기 자료 15,000편을 수집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평가한 쓰기 채점 자료 3,000건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의 중심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어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한국어교재협의회를 통하여 유관 기관의 협력을 꾀하고, 국내외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교육 기준과 내용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과정·교재에 대한 자문·감수 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외적 노력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 환류 또한 강화될 것이다. 민관 공동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어원-한국어 교육 학회 간 ‘한국어 교육 정책 포럼’ 운영으로 민관 공동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2.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

국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정부 공인 브랜드로 자리잡은 세종학당은 2007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첫발을 내디딘 이래 성장을 거듭하여 2023년 기준으로 85개국에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학당이 없는 국가/지역 진출 기초를 유지하고, 수강 대기자 및 한국어 수요 급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학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거점 세종학당 운영 확대, 학당 운영 평가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세종학당 지정 확대와 더불어 교원의 수급이 어려운 국외 현장에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적인 교원 파견을 위해 출국 전후 현지어 학습지원, 해외 안전 관리 서비스, 현지 조기 적응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회(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지역별 워크숍)를 개최하고, 교원연수센터의 기능 강화 및 교원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대면·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부터는 현지교원까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만큼 2024년에도 파견교원과 현지교원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수요 급증 또는 교원 파견이 어려운 지역에는 현지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현지 교원의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지원도 이어 나간다.

한국어와 더불어 전 세계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세종문화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수혜를 많은 곳에서 받도록 지원하고, 전 세계 한국문화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전문가 인력 자원을 폭넓게 확보하여 한식, 한복, 케이팝, 케이뷰티,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 이론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연수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비대면 학습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메타버스 세종학당과 온라인 세종학당에서는 시공간 제약으로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학당 통합 앱 '손안의 세종학당'에 수준별, 내용별 교육자료를 탑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방송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송출, 교육자료의 현지 보급 등을 통해 현지 수요에 기반한 수준별, 목적별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자료를 다양하게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자 등의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한 숙달도 평가인 세종한국어평가(SKA)를 '23년 24개국 50개소에서 시행하였다. 재단은 한국어평가에서는 최초로 단계적 적응형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한국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자동채점 기술 적용 연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응시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 입국 및 선발을 관리하는 국내외 대학이나 관계 기관 등이 세종한국어평가(SKA)를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2006년 868명에서 시작하여 2023년 기준 누적 취득자가 82,844명에 이른다. 한국어교원의 자격 부여를 위하여 2024년에도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3회),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2회)를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에는 ‘한국어교원 자격 시스템(kteacher.korean.go.kr)’에 자격증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된 ‘국내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국외 현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K-티처 프로그램의 운영 역시 이어진다. 2024년에는 한글학교 교사 과정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 중인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K-티처 프로그램 범용과정의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외 한국어교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및 평가 문항의 개발, 국외 언어권별·지역별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배움이음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외 현지 맞춤형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는 집합 연수와 실시간 화상 연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교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원, 교육부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한국어교원 및 교육과정 담당 정교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대상 교원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초청 연수)는 연수의 성격에 맞게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은 국외 한국어 연구자를 전원 초청하여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관련 학술 활동을 수행하려는 국외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인 연구 역량 함양을 위한 강의 제공 및 실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1.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전시교육 강화

2014년 개관 이후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창제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15세기 언해 자료에서부터 해방 이전의 한글 보급 교재, 근현대 한글 생활사 자료 등 한글문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조사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글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시에 소개될 국내외 주요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고, 한글 창제 전후의 지정문화재급 한글문화자원을 함께 수집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적 가치 확장에 따른 비언어 분야(생활사, 예술)자료 및 근현대 인쇄 출판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박물관 소장자료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글문화자원 포털 '디지털한글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한글자료 공개를 위하여 한글문화자원 수집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소장자료의 수집과 정보 공유의 선순환을 위한 원문의 전문(全文) 공개 사업과 더불어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결과물을 구술총서로 정리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방언의 말맛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4월)를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국외 순회전으로는 근대 한글의 변화상을 시각, 공예, 영상 등으로 재해석한 한글실험프로젝트 <근대한글연구소> 아시아 순회전이 베트남 국립도서관(7월), 주필리핀한국 문화원(9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지역 순회전으로 <파란마음 하얀마음, 어린이 마음의 빛깔을 노래하다>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4월)에서, <어린이 나라>가 창원 역사민속관(1월), 당진 문예의전당(5월), 용인 포은아트홀(9월)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서울 구경 가자스라, 한양가> 순회전이 국립전주박물관(10월)에서 개최되는 등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한글 전시를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상설전시실을 전면 개편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최신 기술의 전시 기법 적용과 훈민정음 서문의 문장들을 통해 한글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유익한 전시 환경을 제공하며 국민 친화적인 한글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024년에는 국내외 한글문화 가치 확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재를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별·주제별 교육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한글문화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국내외 한글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글과 한글문화의 세계화 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외 전시 연계를 통해 한류 강세가 지속되는 해외 지역 대상 찾아가는 한글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여 한글 확장 정책의 현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독창적이면서 관객 친화적 디지털 체험 전시관인 ‘한글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감형 한글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한글놀이터 콘텐츠를 어린이 문화체험 소외지역으로 확대 전시를 통해 한글문화 누림이 전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세종대왕 나신 날인 5월 15일에 학예직들의 원고로 구성된 대중 교양서 『쉬운 한글』을 출판하고 배포한다. 한글날 기점으로 온라인 강연 영상을 집중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간행된 『소장자료총서』1~10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과 한글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화하는 『한글문화유산 대중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한글 자료 기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화요 한글문화 강좌’는 ‘궁금한글’로 이름을 바꿔 한글의 의미와 한글문화의 다채로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한다.

2. 한글문화 산업 육성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수요층 확대 추세에 따라 한글을 소재로 다양한 유무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글문화 가치를 확산하고자 2015년부터 ‘한글산업화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사업은 ‘한글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15점의

한글 관련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글 콘텐츠 상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한글 콘텐츠 13점의 상품화와 양산 과정을 지원하고, 신진작가들과 협업하여 예술과 결합한 창의적인 한글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 결과물들은 국내외 전시와 박람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전시로는 10월 한글주간동안 ‘한글문화산업전’을 개최한다. 해외는 먼저 캐나다, 튀르키예, 독일 등 해외 한국문화원 8곳에서 ‘한글 문화상품 특별전’ 개최하고 프랑스 메종&오브제 박람회 및 KCON_독일 참가를 통해 한글과 한글문화에 관심 있는 전세계인들에게 한글에서 파생된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들을 선보임으로서 문화상징 콘텐츠로서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를 해외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표 5-6〉 한글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변경 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명	한글 산업화 육성 및 지원	한글산업화 육성 및 지원	한글 산업화 육성 및 지원
사업목적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 추진	동일	동일
사업내용	1. 한글 원천 아이디어 공모전 2. 한글 원천 콘텐츠 개발 지원 3. 해외진출 및 교류 지원 4. 한글·한국어산업 전시 개최	1. 한글 원천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아이디어/상품화) 2. 해외진출 및 교류 지원 3. 국내외 전시 개최 4. 전용누리집 개설 운영	1. 한글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2. 한글 콘텐츠 상품화 개발 지원 3. 해외진출 및 교류 지원 4. 국내외 전시 개최 5. 전용누리집 개설 운영
예산	18억원	18억원	18억

또한, 한글의 가치 및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글주간’ 행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며, 한글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는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한글의 보급, 연구, 교육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기능 강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부터 설계 및 건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10월 건립공사를 준공하였다. 2023년에 전시실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6월 개관했다. 4월 21일 법인설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 문자 관련 전시, 학술조사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계 문자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 국내외 문자 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에는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 아래 문자문화를 비교문화 시각에서 조망하는 상설 전시를 비롯하여 문자 전문 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특화된 주제, 연출 차별, 최신 전시 경향을 반영한 특별전 ‘문자와 삽화: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를 만나다’(‘23.12.19.~’24.3.31.) ‘파란마음 하얀마음’(24.4.30.~7.28.), ‘문자와 여성’(‘24.10.8.~’25.2.2.)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박물관 관람환경에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전시 트렌드인 뉴미디어아트를 박물관 공간에 적용하여 방문객의 새로운 경험 확장과 감각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문자 관련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상반기 구결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2.23.)를, 하반기 제2회 국제학술대회 ‘문자의 기원과 발전: 로제타석과 비썬톤 명문을 중심으로’(10.11.)를 개최 추진 중이다. 국제학술대회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학술총서를 출판 계획 중이며, 문자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문자 기초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물관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시 콘텐츠를 활용한 박물관 고유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운영한다. 상반기에는 특별전 연계 교육 ‘뒤러 삽화 아틀리에’(2.28.~3.30.), ‘MoW 리듬 스튜디오’(5.14.~7.24.), ‘알브레히트 뒤러를 읽다’(3.16.~3.30.), ‘어린이 마음을 이야기하다’(5.3.~6.7.), 상설전 연계 교육 ‘로제타석, 상형문자 비밀의 열쇠’(5.30.~7.18.)를 개발·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특별전 연계 교육 ‘문자와 여성(가제)’(‘24.12.~’25.1), 상설전 연계 교육 ‘이집트 문자 프로그램’(10.~11.), ‘문자 여행가가 된 예술가’(9.25.~12.11)를 비롯해 유아·어린이·청소년·외국인·성인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 문화 및 문명에 대한 공감적 이해, 문화 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문자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할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박물관 정보자원의 수집·관리·공개·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문자 자료 확충 및 체계적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세계 문자 교류 협력망 구축을 통해 국내외 문자·언어·문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교류 기반 조성 및 국제적 연구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23)

인쇄일 | 2024년 8월

발행일 | 2024년 8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전화 | (044)203-2540

전송 | (044)203-3467

www.mcst.go.kr

인쇄처 | (주)계문사 (044)868-7451



9 772092 712000

ISSN 2092-7126